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5
2008 연구보고서-2-4

다민족·다문화사회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Ⅱ)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이선주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2008. 12

연구책임자 : 이 선 주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양 애 경 (본원 연구위원)

장 미 혜 (본원 연구위원)

최 현 미 (평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송 성 실 (워싱턴대 사회복지대학 교수)

보조연구자 : 송 유 나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전지구화시대에 국경을 횡단하는 이주는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면서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역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97,2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책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는 주된 이유가 이들이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 타국에서 이주한 이들의 특성상 급여중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이 아니라 대인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권리의 총체적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여성이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성을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 본 연구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권을 강화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정책관계자와 지역의 시설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강북정팀장님,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정화기획부장님,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송영희센터장님, 나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손경희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짧은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8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2차 연도”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8-17-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7-02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사회학회
08-17-03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8-17-04	생활세계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학회
08-17-0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7-06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승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김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한국사회학회	최종렬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규 계명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협력 연구 기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오은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김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홍선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한국여성학회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김민정 아시아의 창 상근 활동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이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현미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송성실 워싱턴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인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창호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준규 전남대학교 Post Doc. 과정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국제 흐름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체류외국인이 1990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치수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민족’의 순혈주의 담론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가. 문헌연구

-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연구를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현황파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 분석하였다.

나. 심층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 및 사례연구 지역

-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 지역적 특성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을 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피면접자는 부부로서 자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총 28쌍으로 서울 13쌍, 전라남도 15쌍을 면접하였다.

2) 조사대상 표집방법

-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접촉이 활발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시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지원시설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들 시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 지원시설을 통해서만은 연구가 목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만나서 면접하기 어려워 피면접자들에게 다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표집대상을 늘려가는 추적표집법(snowball sampling)도 취하였다.

3) 조사방법

(가) 사전조사

- 2008년 4월 중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 2명과 남성 배우자 1명이 그 대상이었다.
- 사전 조사 전후에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마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한 경험과 향후 필요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나) 본조사

- 본 조사는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한 요소로 정했기 때문에 심층면접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 본 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자택이나 일터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 당 면접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4) 조사내용

- 심층 면접을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외 관련문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 영역을 수립하였다.
- 기본 영역은 ①일반적 사항, ②입국초기-가족형성기, ③자녀 출산 및 양육기, ④노동시장(재)진입기로 구분하였다.

다. 전문가 자문회의

- 본 연구수행을 위한 심층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로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협동과제 연구진들과의 합동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 입국 초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는 경우 좀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경험하지만, 대체로 임신·출산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경험한다.

- 사회서비스 내용은 한국어교육, 산전·후 관리와 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보편적이며, 아동양육기에는 보육비 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다.
- 직업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양하지는 않으며, 전(全)단계에 걸쳐 한국문화체험, 여가활동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 지역별 차이에서는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보건소 이용, 문화체험, 남편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좀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전·후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좀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차이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이주 여성 남편의 경우 육아 양육교육, 자녀와의 문화체험, 찾아가는 한글교육 등 배우자가 경험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주여성이 남편이 남편대상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모르는 점이었다. 남편대상의 사전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참여도를 낮추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1) 입국초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 정보제공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다.
- 한국어 교육 지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한국어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혜자들은 교육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강사의 자질개선과 강의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문화 및 배우자 국가의 문화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에 앞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피면접자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예절, 명절과 같은 한국의 전통들, 한국의 음식 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 교육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린 자녀 때문에 혹은 지리에 어둡거나 이동방법을 잘 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보의 취득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취득하여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상담 및 부부교육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것만큼 아내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임신 및 출산전 · 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 산후관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 전·후 받아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의 존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예방접종 및 정보제공

언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 통역서비스 제공

의사소통을 도와줄 동행이 같이 오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의료시

설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양육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 엄마 교육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아이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 집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어서 보육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문화체험 및 역사교육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이나 부부간의 여행에 대한 지원을 바라는 요구가 높았다.

-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한국어 교육)

실제로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구사력은 취학 후 학습 능력이나 학교 적응과도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닌데, 피부색이나 인종,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보육시설

농촌지역의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농번기 철에도 늦게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으로 여겨진다.

4) 아동취학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 상담서비스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의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 부모교육

아이의 학교생활과 연령에 맞추어 학부모가 알아야 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아동 학습지원

아동 학습지원의 경우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특히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 각국의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진 자원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 문화, 체험서비스

경제적인 이유로 영위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체험에 대한 요구가 있다. 취학기의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친밀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다문화 가정을 알리기 위한 긍정적 의미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5)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 정보화 교육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았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취업,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

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 **보육지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4. 정책제언

가.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의 확대**

사전의 정보제공을 여성결혼이민자 외에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실시함으로써 국제결혼생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입국 후 가족형성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나 부부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목적을 외국여성의 한국사회 이해에만 두기 보다는 부부의 상호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 좀 더 발전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국생활안내 도우미제도 체계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자립을 위하여 입국초기에 한국생활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보편화된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

-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통역서비스 제공**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보완이 요구된다.

나. 임신·출산전·후기

-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임신·출산을 전·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정보부족과 언어문제이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의료 관련 통역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출산기는 고향의 가족과 음식 등이 가장

그리운 시기이다. 최근 친정가족 초청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계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하는 같은 국가 출신자들로 하여금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임신·출산기 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 아동양육가: 아동취학전·후기

- 아동양육지원 강화

방문지도사의 아동양육지원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서비스 기간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담당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민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아동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한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우리사회의 학부모 모임에는 적응이 어렵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일반 부모 대상의 다문화교육과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라. 노동시장(재)진입기

- 사회참여 통로의 확대와 의미부여

센터나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형태나 준전문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은 사회참여의 의미도 찾고 급여수당이 가게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창출로도 볼 수 있으며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역할이 쌍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사 대상의 정기적인 수퍼비전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 담

당자가 이들 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

-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중 언어 전문가로 교육,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적성에 맞는 취업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저임금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고용 촉진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전(全)단계

- 한국어교육의 다양화

초급이나 중급 교육과정 후의 고급과정의 개설이 중요하며, 단계적 교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개별학습에 대한 안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문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보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등의 담당자들이 불친절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행정부서나 관련기관의 담당자 대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방법론 및 한계	5
II.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능	13
2.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19
III.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서비스	29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	31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41
IV.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67
1. 일반적 사항	69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73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85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125
V. 다인종·다민족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미국과 캐나다 사례	175
1.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사회	177
2.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국제적 비교 분석	179

Ⅵ. 결론 및 정책과제	203
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207
2. 임신·출산전·후기	209
3. 아동양육기: 아동취학전·후기	211
4. 노동시장(재)진입기	214
5. 전(全)단계	215
 ■ 참고문헌	217
 ■ 부 록	225
<부록 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 다문화사업 현황	227
<부록 2> 외국인주민 현황('08.5월 실태조사 결과)	229
<부록 3>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230
 ■ Abstract	231

표 목 차

<표 I-1> 심층면접내용의 기본 영역	9
<표 III-1>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2005~2008)	31
<표 III-2>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32
<표 III-3> 외국인과의 혼인	32
<표 III-4>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2000~2007)	34
<표 III-5>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2006/2007)	35
<표 III-6> 농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2007년	36
<표 III-7> 시도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비중 및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2006/2007)	37
<표 III-8>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38
<표 III-9>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38
<표 III-10>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39
<표 III-1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시도별 이혼	41
<표 III-12> 정부부처별 주요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지원 현황	43
<표 III-13> 다문화 관련기관의 지원 사업 현황	47
<표 III-14>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51
<표 III-15> 이주여성관련 주요 사업	52
<표 III-16>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주요 사업	53
<표 III-1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54
<표 III-1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54
<표 III-19>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사업계획(안)	56
<표 III-20>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다문화 사업	57
<표 III-21> 고용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실적	59
<표 III-22> 결혼이민자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60
<표 III-23> 2008년 이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계획	61
<표 III-24> 부처별 생애주기별 주요 서비스	63

<표 IV-1> 서울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70
<표 IV-2> 서울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남성배우자)	71
<표 IV-3> 전남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72
<표 IV-4> 전남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73
<표 IV-5> 심층면접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분포	76
<표 IV-6> 심층면접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경로	77
<표 IV-7>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전체)	86
<표 IV-8>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서울지역)	88
<표 IV-9>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전남지역)	89
<표 IV-10>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여성)	91
<표 IV-11> 배우자(및 본인)가 경험한 사회서비스(남성)	92
<표 V-1> 자조지원조합과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의 일반적 특성	187
<표 V-2> 일반지역사회조직의 일반적 특성	188
<표 V-3> 이민자인권옹호단체의 일반적 특성	189
<표 V-4> 크로스오버(Cross Over) 조직의 일반적 특성	190
<표 VI-1> 입국초기-가족형성기의 정책과제	209
<표 VI-2> 임신 및 출산전·후의 정책과제	211
<표 VI-3> 아동양육기: 취학전·후기의 정책과제	213
<표 VI-4> 노동시장 (재)진입기의 정책과제	215
<표 VI-5> 전(全)단계의 정책과제	216

그림 목 차

[그림 II-1] 사회서비스의 목표, 개입분야 및 주요내용	18
[그림 III-1] 외국인 처의 국적별 추이(2002~2007)	33
[그림 III-2] 외국인과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40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방법론 및 한계	5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경을 횡단하는 국제이주는 전지구화시대에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경제·사회 인구학적 상황에 맞추어 외국인을 노동자로 유입하거나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국제이주보고서 2003(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2003)」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명 중 1명은 국제이주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체류외국인이 1990년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8월말 현재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법무부 2007; 세계일보 2007.4.26).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에 해당하는 치수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결혼이민자는 전체 체류외국인들 중 약 10.5%를 차지하는 104,74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민족’의 순혈주의 담론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체류외국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2006년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빈부격차별시정위원회 2006. 4.26). 이주자들을 위한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나 학계 모두 노동이주보다는 결혼이민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외국노동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정주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절대수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현재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는 97,236명으로 전체 결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혼이민자 중 88.1%로 나타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것을 보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책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우선으로 하여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2006년도 중앙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에 주목하여 인권, 문화, 복지, 가족 등에 관련된 영역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자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회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그 사회의 보편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Marshall 1950).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문순영 2007). 이렇게 법률이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설동훈외(2005)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현재 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가치, 언어를 배우면서 이곳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적 보호(social care)를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권리를 총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권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에 위한 사회서비스는 일회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론 및 한계

가. 연구 방법론

1) 문헌연구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연구를 위해 국내 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사회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각종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2) 심층면접조사

(1) 조사대상자 및 사례연구 지역

2000년도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가족의 중심으로 두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어려움과 적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경제·사회적 위치에 대한 논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다 보니 여성결혼이민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배우자에 관한 연구는 오히려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이 여성들의 경험만이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인 남성의 경험까지 이해하고 포

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우선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서울은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진 곳으로 2007년 현재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23.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의 24.9%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많다(통계청 2008). 전라남도도 같은 시기 여성결혼이민자가 전체의 4.8%가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008년 농림업 종사 남성과의 혼인 건수 비율이 33.9%로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나서 농촌지역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 곳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¹⁾ 등의 기관의 협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전라남도의 나주와 영암을 그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피면접자는 부부로서 자녀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총 28쌍으로 서울 13쌍, 전라남도 15쌍을 면접하였으며,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면접자를 섭외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었다.²⁾

(2) 조사대상 표집방법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의 표집은 우선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장 접촉이 활발한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시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피면접자를 만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시설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들 시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면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요청하였다. 지역의 지원기관은 이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여

1) 2008년 9월22일부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강북정팀장님, 동대문구 건강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김정화기획부장님, 영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송영희센터장님,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손경희선생님 등이 본 조사에 도움을 주셨다.

성결혼이민자 관련 지원시설들은 주요 모니터(gate keeper)로서, 주요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s)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들과 지역적으로 거의 접촉과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 관련 연구를 위해서 이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원시설을 통해서만은 연구가 목적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만나서 면접하기 어려워 피면접자들에게 다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표집대상을 늘려가는 추적표집법(snowball sampling)도 취하였다. 이는 주로 최초의 피면접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피면접자를 찾아내서 샘플 수를 점차 확대해 가는 방식이다. 한데 추적표집 방식이 한정된 지역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조사방법

(1) 사전조사

2008년 4월 중순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 2명과 남성 배우자 1명이 그 대상이었다. 사전 조사 전후에 2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마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한 경험과 향후 필요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일대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면접은 피면접자들의 희망에 따라 자택을 방문하거나 또는 달리 원하는 장소를 택해 이들이 서비스 경험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면접자들에게는 우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양해를 구하여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일단 여성결혼이

민자에게 면접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남성배우자가 면접에 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면접을 요청한 많은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에 자연스럽게 응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부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면접대상자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요한 요소로 정했기 때문에 심층면접의 질문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려다 보니 표집대상이 매우 한정되는 문제점도 있었고, 피면접자를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남성들의 경우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이 끝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면접을 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정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심층면접을 실시한 기간이 농번기라서 낮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면접하기도 쉽지 않았으며, 남성은 일이 끝난 후에 늦게 만나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울 지리를 아직 잘 모르기도 하여 면접을 하기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찾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본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이들의 자택이나 일터 근처에서 이루어졌다. 조사하기 전에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은 익명으로 사용됨을 밝혔다. 사례 당 면접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녹음을 하였다.

4) 조사내용

심층면접을 위한 조사내용은 국내외 관련문헌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전문가 워크숍과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생애주기별로 기본 영역을 수렴하였다. 기본 영역은 ①일반적 사항, ②입국초기-가족형성기, ③자녀 출산 및 양육기, ④노동시장(재)진입기으로 구분하였다<표 I-1 참조>.

첫째, 일반사항에서는 가족관계 및 가구소득, 입국시기 등을 질문하였고, 둘째, 입국초기-가족형성기에는 한국에서 와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기관 등을 물었다. 셋째,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임신 전·후에 필요한 서비스와 자녀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질문하였다. 넷째, 노동시장(재)진

입기에는 자녀의 취학 후에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표 I-1〉 심층면접내용의 기본 영역

일반사항	본인(남편)연령
	자녀의 연령
	함께 거주하는 사람
	결혼연도
	한국입국시기
	한국거주기간
	남편(부인)을 만나게 된 동기
	본국(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의 가족상황
입국초기-가족형성기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어려움
	한국 도착했을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도움)
	한국에서 처음 받아본 서비스(도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해당기관을 어떻게 알게 된 경위
	한국어를 처음 배운 곳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임신 전·후에 경험한 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
	출산이후, 자녀양육시기에 경험한 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
	자녀 취학 등을 위해 경험한 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
노동시장(재)진입기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수행을 위한 심층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에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로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과정의 주요 단계마다 협동과제 연구진들과의 합동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방법, 심층면접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적절성과 실효성이 검토될 수 있었다.

나. 연구의 제한점

질적 조사는 그 자체가 표본의 대표성을 가지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피면접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듣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피면접자들의 사소한 것 같은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질적 방법론은 이러한 장점에 양적 방법론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 낼 수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까지도 그들의 얘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전남의 나주와 영암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기타 지원기관을 이용한 28쌍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질적 방법론은 일상적이고 아주 사소한 얘기지만, 그것을 통해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그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 | | |
|-------------------|----|
|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능 | 13 |
| 2.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 19 |

1.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기능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및 특징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인사회서비스, 사회적 보호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가 포함된 광의의 개념이다(정경희외 2006; 강혜규외 2007).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광범위하다가 보니 이를 구성하는 요소와 영역이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의하게 나타난다(정경희외 2006).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서비스, 육체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를 위한 서비스, 자산조사에 따른 경제적 지원으로 그 구성과 영역이 규정되어 있다(정경희외 2006:39). 미국에서는 인간서비스(human services) 또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가 소득보장, 교육, 보건의료, 문화 관련 분야가 제외된 사회복지 부문의 서비스로 통용되는 반면, 영국에서는 소득보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사회정책 영역으로써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와는 구별된다(강혜규외 2007:36). 영국에서 대인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 민간, 비영리 자원단체를 통해 사회적 보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과 보호를 의미한다.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그 내용을 확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포함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다. 강혜규외(2007:39)의 정의를 빌면 “사회복지-돌봄-기초 의·식·주거 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문화 관련영역의 개입이 가능한 영역의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에 안토넨과 시필라(Attonnen and Sipilä 1996)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율성의 개념을 더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해 조직화된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능케하고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이렇게 정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서비스는 재화의 생산이나 분배와 관련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서비스라는 점이다(Bahle 2003). 둘째, 사회서비스는 대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물질적이고(김혜원의 2003:63), 전달체계 그 자체가 서비스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이봉주의 2007). 그래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 즉 인적자원의 전문성은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셋째,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에 “사회”라는 말이 포함된 것처럼, 사회서비스는 한 개인의 육체적 욕구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회적(social)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는 개인적이나 사적(private) 관계를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된다(Attonen and Sipilä 1996; Bahle 2003). 그리고 자원의 배분도 개인적 선택이나 결정이 아닌 의회, 관료제, 법률, 여론 등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김혜원의 2006), 사회서비스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가치와 규범에 따라 제공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사회서비스의 주된 목적이고, 그 공급주체가 집합적이지만, 개개인의 욕구가 그 욕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화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이봉주의 2007). 따라서 현금급여 위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대상자의 일정 기준 조건에 따라 표준화를 할 수 있지만(이현주의 2003:75), 사회서비스는 욕구 충족에 있어서 개별화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표준화하기가 어렵다(강혜규의 2007:37).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이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는 가족, 국가, 시장, 비영리 민간에 의해 제공된다. 이들 제공자는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족은 호혜적 연대감과 도덕적 의무감에서, 국가는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공식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장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른 자원주의적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Bahle 2003). 사회서비스는 사실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내용이 대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이 전달체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이봉주의 2007; 강혜규외 2007). 그리고 실제 사회서비스체계 안에서는 이들 제공자의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서비스를 “복지복합 또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mix 또는 welfare pluralism)”라고도 부른다(Bahle 2003).

사회서비스가 복지혼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이봉주의 2007:231). 즉, 과거 사회서비스의 핵심이 공적 제공이었던 것에 반해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가족, 시장, 비 시장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의 추세이다(Daly 2002). 이러한 변화의 추세 속에서 서비스 제공도 국가보다는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홍승아외 2007). 이는 탈중앙화를 통해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조하여 소규모 집단 안에서 인간관계와 책임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회서비스정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봉주의(2007)는 지적한다. 사회서비스는 한편 서비스 수요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즉,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나 현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민간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는 그 전달체계에서도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면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서비스의 질이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정경희외 2006).

나. 사회서비스의 기능 및 대상

복지국가체계에서 사회서비스는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의 사회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성은 미약하지만, 빈곤 상태에 있거나 그 욕구가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표적 효과가 높다(이

현주의 2003). 정경희외(2006)는 사회정책에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회서비스가 가지는 기능을 다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는 시민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현금서비스는 이를 수급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다른 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물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제공되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점이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그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는 그 효율성이 현금서비스보다도 높다. 즉, 사회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발생한다.

정경희외(2006)는, 사회서비스의 이러한 기능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서비스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위기(new risks)에 대한 보편적 대응, 즉, 각 생애주기에 따라 그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렇게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위와 같다면, 이 서비스의 대상은 누구인가도 중요하게 고려할 문제이다. 이현주의(2003)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변천을 3단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회서비스가 범주적 공공부조체계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미분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두 번째 단계는 범주적 공공부조에서 벗어나 일반적 공공부조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분화가 일어나는 단계이지만, 그 대상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에 제한되며, 마지막 단계는 일반적 공공부조가 실시되고 사회서비스가 분화되고 확충되어 전 계층으로 확대되며, 그 내용도 예방적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변천 단계를 볼 때,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가 사회구성원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의 가장 기본은 최저생활의 유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이현주외 2003:68). 이러한 점에서 이현주외(2003)는 공공부조는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소득보전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지만, 이것이 빈곤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적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서비스의 대상은 노인,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여성을 위한 서비스, 가족을 위한 서비스,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이들을 위한 예산도 급격히 증가한 추세이며, 관련 부처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혜규외(2007)는 고용, 교육, 문화, 보건의료, 주거, 사법행정으로 사회서비스의 개입분야를 나누어 일자리보장, 인적자본확충·기회평등, 사회적 관계참여, 신체적·정신적 건강확보, 기초적 재생산을 위한 생활보장, 일반 행정 및 서비스전달을 성취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II-1 참조>. 이 같은 사회서비스의 개입분야와 성취목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그림 II-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비경제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1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목표	개입분야		서비스내용
일자리보장	고용 교육 문화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소개 · 재취업지원▪ 직업훈련 · 재교육▪ 직업재활 · 특수교육▪ 자활 지원▪ 노인 · 장애인등일자리지원▪ 학교사회사업 · 청소년보호(쉼터·학습지원)
인적자본확충 기회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여가지원 · 문화생활▪ 가족상담 · 가족생활교육▪ 이동 지원▪ 교정 사회사업▪ 국제결혼이주자등 외국인 지원
사회적 관계 참여	교육	돌봄 보호 (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방과후 보육▪ 입양 · 가정위탁▪ 위기개입 · 학대보호▪ 수발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임신 · 출산관련서비스▪ 심리상담 · 정서적지지▪ 방문보건 · 건강지원 · 예방 · 건강교육▪ 의료재활▪ 정신보건▪ 약물 · 알콜중독
신체적·정신적 건강 확보			보건 의료
	주거	복지	
기초적재생산을 위한 생활보장	사법 행정	복지	
일반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자료: 강혜규외(2007),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0.

[그림 II-1] 사회서비스의 목표, 개입분야 및 주요내용

2.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

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최근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전환(paradigm shift)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s) (Giddens 2000; Esping-Andersen et al 2002) 또는 enabling state³⁾에 대한 담론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복합의 형태를 가진 사회서비스는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위험(new risks)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국가의 재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van Berkel and van der Aa 2005; Balhe 2003; Kautto 2002). 탈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과거 산업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위험과는 다른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위험들은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의 결과로서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직면하는 위험들이다(Talyor-Gooby 2004:2-3).

탈산업사회의 경제·사회적 변화로 나타나는 새로운 위기감은 다음과 같다(Talyor-Gooby 2004).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남성중심의 일인생계부양자모델과 달리 이중의 소득원이 생김으로써 가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할 경우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다른 계층보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더 커다란 위기감으로 나타난다. 둘째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양비도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살핌(social care)이 필요해지고 있다. 셋째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안에서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 넷째 탈산업사회에 국가가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

3) Neil Gilberts (2005), "The Enabling state?" from public to private responsibility for social protec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26.

라 새롭게 도출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그 재정적 압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서비스(private services)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과 아동을 보살피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국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사회급여나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로 국가가 복지의 직접공급자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구입하는 위치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의 역할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 베르켈과 반 데르 아(van Berkel and van der Aa 2005)는 말한다.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가족과 젠더’이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남성이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노동시장의 참여, 노동력의 유연성과 활성화(activation),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를 정책적으로 복돋고 있다. 테일러-구바이(Talyor-Gooby 2004)는 이러한 정책은 여성에게 일종의 기회도 되지만, 일면으로 여성에게 부담이 되는 점도 없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주로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에서 담당하던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보살핌 노동이 점차적으로 공적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주된 관심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기의 도출과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복지국가에서는 모든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구소득을 증대하고, 국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에 그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테일러-구바이(Talyor-Gooby)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감안하여 에스핑-앤더센(Esping-Andersen 1990)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개념만이 아니라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와 ‘유연성(flexibility)’ 개념 역시 변화하는 복지국가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위기는 취약계층일수록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빈곤으로 인해 평등한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위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의 문제, 적절한 기술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적 적응이 떨어지는 이민자들과 같은 소수자들은 새롭게 나타나는 위기에 노출되기 더욱 쉽다는 것은(Talyor-Gooby 2004) 이주자를 수용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브록크만과 피셔(Brockmann and Fisher 2001)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정책 아젠다로 크게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주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모리센과 세인즈버리(Morissen and Sainsbury 2005)는 복지국가레짐 간의 비교를 통해 이주자 가구와 내국인 가구 사이에 생활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주자들의 사회적 권리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주의 시대(Castles and Miller 2003)라고도 불리는 이 시대에 이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고, 이들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더불어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나. 복지국가와 사회서비스체제 유형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전환과 함께 사회서비스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국가가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증대하고 있는 욕구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나라의 상태이다.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화가 되는 상황은 국가마다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에스핑-앤더센(Esping-Andersen 1990)은 복지국가를 자유주의복지국가, 조합주의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로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유형들은 복지국가를 구분하는데 준거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의 준거틀이 현금 프로그램을 주위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있어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Bahle 2003; Alber 1995; Anttonen and Sipilä 1996). 알버

(Alber 1995)는 에스핑-엔더센은 social transfer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레짐을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와 계층화가 그 분석의 초점이 되고 있으나, 복지국가의 분석에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면 이것의 중심축은 중앙-지방(center-periphery)과 교회-국가(church-state)의 관계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버가 인정하듯이 국가별로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서비스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국가의 유형화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데이터(data)도 주로 아동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자를 포함한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도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Morissen and Sainsbury 2005),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국가의 유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자만을 따로 분류해서 이를 국가 간에 비교·분석하여 유형화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회서비스체제의 유형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체제의 유형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토넨과 실필라(1996)와 바아레(Bahle 2003)는 이것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아토넨과 실필라는 ① 전체 3세 미만의 아동중 이들이 보육시설에 등록한 비율, ② 전체 3-5세의 아동들중 이들이 유치원(preschool)에 참여하는 비율, ③ 65세 이상의 노인이 시설에 의해 보살핌을 제공받는 비율, ④ 65세 이상의 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을 가지고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후, 제한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사회(보살핌)서비스레짐(social service regimes)을 유형화하였다. 바아레는 알버의 틀을 빌어 가족의 역할, 교회-국가의 관계,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의 중요한 변수로 보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을 군집화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아토넨과 실필라의 유형화 틀에 맞추어 바아레가 설명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회서비스체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북유럽 유형(the Scandinavian Model)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동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며,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서비스는 보편주의적 원칙에서 제공된다. 북유럽복지국가는 루터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개별화된 가족

(individualized family)의 개념에 근간을 두고 성장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에서는 지방정부가 사회(보살핌)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다.

둘째,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가 포함된 가족주의 유형(family care model)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공공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부유층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사서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대부분이 비공식부문(informal market)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는 강력한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사회서비스체계가 매우 최근에 성장하였다(Bahle 2003:10).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는 복지혼합(welfare mix)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가 그 서비스를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와 국가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이것은 보편적 원칙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제공된다. 최근, 탈중앙화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제도화가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영국이 포함된 자산조사유형(means-tested model)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해서 앵글로색슨 자산조사 유형으로 확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이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영국의 사회서비스는 북유럽과 같이 지방정부가 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점차 잔여주의적 성격을 가진 복지복가로 전환하게 되었다(Anttonen and Sipilä 1996:96). 이 유형은 국가가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양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정책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상품화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어 있다.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사회서비스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9세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한 자선단체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프랑스가 포함된 유럽의 보충주의 모델이다. 이 보충주의 모델에서 바아레는 아토넨과 실필라와는 달리 벨기에와 프랑스

를 따라 구분한다. 그는 이러한 구분의 근거를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에서 서비스 제공의 차이에 두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모두 역사적으로 비영리부분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네덜란드는 중앙집권화 된 국가이지만, 독일은 탈중앙화 된 국가로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벨기에와 프랑스는 독일과 네덜란드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가족정책을 취하고 있는 벨기에와 프랑스는 보육과 유치원시설이 광범위하게 제공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서비스가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어 여성들이 풀타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은 보육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서 여성들도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프랑스는 카톨릭의 가족주의와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해 강력한 가족정책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데 그리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데, 이는 1905년 국가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따라 신자들에 한해 교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벨기에 모두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이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벨기에 모두 강력한 중앙집권제였으나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탈중앙화에 영향으로 서비스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경희외(2007)는 아토넨과 실필라(1996)와 바아레(Bahle 2003)의 유형화에 동아시아 유형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일본을 동아시아 가족주의유형에 첨가한다. 일본은 1990년 전후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아동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지원을 강화하였다. 노인보호는 2000년도 도입된 개호보험으로 점차 탈가족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보육은 아직도 주된 돌봄자를 여성으로 보고 있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이 낮은 편이다. 일본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은 낮은 편이고, 비영리단체와 민간공급자들이 복지혼합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는 중앙정부는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주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사회보험⁴⁾, 공공부조⁵⁾,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대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부쩍 증가하였고, 이것이 사회서비스 부문의 최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연구로는 우선 김혜원외(2006)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방안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업은 OECD 국가에 비해 과소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일자리창출과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교육 부문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지만, 그에 비해 보육, 노인요양 등의 복지부문과 공공행정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최근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의 사회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그 방식에서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노대명외(2005)는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사회적 일자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해야 할 잠재집단의 규모를 파악하고, 사회적 기업이 국가보조금을 인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적절한 임금을 보장할 전망이 불확실하

4) 사회보험은 개인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반영하고, 기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호 위험을 분산, 대비하는 보장기체이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시장의 위치에 따른 기여가 전제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폭이 크다(이현주외 2003: 6-7).

5)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기여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이현주외 2003). 의료급여와 같은 현물급여와 함께 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현물급여가 공공부조에 포함된다.

다는 점을 연구결과의 함의로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협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사회서비스분야를 여성의 일자리확대와 연계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민현주외(2007)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는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보호와 양육, 부양 등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보고,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 사회서비스 논의는 사회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과 기능을 희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아닌 복지체계에서 사회서비스, 그 자체의 중요성을 논의한 초기의 연구로는 이현주외(2003)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체계가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연구자들은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관계는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공공부조가 사회서비스에 고착되면서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기능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서비스가 공공부조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가가 빈곤과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충족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국가의 복지수준 향상과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를 분리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패러다임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경희외(2006)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자들은 2006년 기획예산처에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이 설립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사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서비스 자체의 발전을 위해 논의해야 할 쟁점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정책적 선택지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연구자들은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서 논의해야할 정책적 쟁점을 ①탈가족화 vs 재가족화라는 틀에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②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시장-국가-제3섹터의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는지 ③서비스인력 양성조건과 서비스대상의 우선 순위는 누구인지로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질 품질관리 및 인력개발과 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이봉주외(2007) 역시 정경희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사회서비스의 수요측면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간과하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가 생략된 상태에서 일자리 공급만을 늘리기 위한 사회서비스는 그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서 이들은 저숙련, 저임금의 공공취로사업과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급 위주의 사회서비스는 국가재정의 악화와 일자리의 양극화를 일으켜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이와 같은 비판 속에서 연구자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은영(2007)은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 누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비스 내용과 목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확충 분야와 거시적 원칙 제시하는 비전을 마련하여 부서 간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사회서비스가 욕구충족을 위한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구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현존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종류를 분석하고 욕구조사를 수행하여 그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혜규외(2007)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확충이 급진전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는 이와 같은 발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족구조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 지방화, 민간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여건의 변화는 현금급여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전통적 가족역할을 대체할 사회서비스의 제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가족 등만이 아니라 국제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사회서비스가 이주자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들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국한하지 않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이를 정책의 쟁점으로 부각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구성의 변화 등에 의해 개별화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I

여성결혼이민자와 사회서비스

- | | |
|-------------------------------|----|
|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특성 | 31 |
|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 41 |

1. 여성결혼이민자⁶⁾의 현황 및 특성

가. 규모 및 증가 추이

여성결혼이민자는 2007년 말 채 100,000명을 넘지 못했으나,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지 않은 2008년 5월 말 현재 103,34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전체 결혼이민자 중 88.0%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시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총 1,140,701명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17,392명으로 10.3%를 차지한다. 결혼이민자 수가 체류외국인의 약 10%를 처음 넘어선 2005년 이래⁷⁾ 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여성결혼이민자 간 숫적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약 10명 가운데 한명은 결혼이민자이고, 다시 결혼이민자들 중 열에 아홉은 여성인 셈이다<표 Ⅲ-1 참조>.

〈표 Ⅲ-1〉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2005~2008)

(단위: 명, %)

	2005	2006	2007	2008.5.31
여성 결혼이민자(C)	66,659	82,828	97,236	103,345
C/A	88.9	88.3	88.1	88.0
남성 결혼이민자	8,352	10,958	13,126	14,047
전체 결혼이민자(B)	75,011	93,786	110,362	117,392
B/A	10.0	10.3	10.4	10.3
총 체류외국인(A)	747,467	910,149	1,066,291	1,140,701

자료: 출입국관리국(2005), 법무부(2007), 법무부(200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의 관련자료 재구성).

6) 귀화자는 제외한다. 사실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즉, 귀화자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겠으나, 혼인 귀화자에 관한 성인지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귀화자 37,998명(법무부 2006, 2007)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이고 또한 이들 대다수가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이들 귀화자수는 제외한다.

7) 2003년 결혼이민자 규모는 총 체류외국인 678,687명 중 44,416명으로 6.5% 수준이다. 2004년에는 750,873명의 총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57,069명으로 7.6% 차지한다(법무부 2007).

사실 아래 <표 Ⅲ-2>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들은 '02년 이후 2005년까지 매년 30% 안팎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07년에는 2002년에 비해 약 3.2배나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2005년을 고비로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는 차츰 하향세를 보이거니와, 2008년 들어서는 2005년의 증가세와 비교하자면 거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표 Ⅲ-2〉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2008.5.31 현재, 단위: 명)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인 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17,392
증감률 (전년대비, %)	-	37.8	27.9	28.5	31.4	25.0	17.7	15.9

※ 2008년도 증감률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8년 3월호.

www.immigration.go.kr.

그럼에도 국제결혼 및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간 혼인비중 추이를 감안하고 보면, 단기간 내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속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2005년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매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절대치가 줄어드는 가운데, 2006년의 경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는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가 하면, 2007년의 경우에도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75.7%를 차지할 정도인 만큼,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금방 감소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표 Ⅲ-3>.

〈표 Ⅲ-3〉 외국인과의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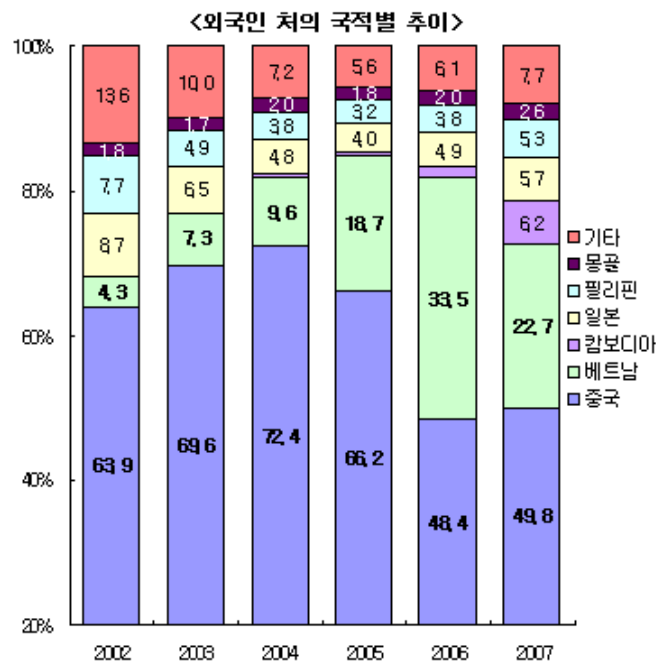
(단위: 건, %)

	2001	2003	2005	2006	2007
총 혼인건수(A)	320,063	304,932	316,375	332,752	345,592
외국인과의 혼인(B)	15,234	25,658	43,121	39,690	38,491
구성비(B/A)	4.8	8.4	13.6	11.9	11.1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C)	7,304	11,017	25,594	30,208	29,140
구성비(C/B)	47.9	42.9	59.4	76.1	75.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4의 <외국인과의 혼인>표 재구성.

나. 국적

2007년 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즉, 국적분포는 한국계 중국인 및 중국(49.8%), 베트남(22.7%), 캄보디아(6.2%), 일본(5.7%), 필리핀(5.3%) 등의 순이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한국계 중국 및 중국 출신국 여성들이 훨씬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의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2002년에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불과 4.3%에 지나지 않았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이 2006년에는 전체의 33.5%를 차지하여 ‘중국’ 국적에 필적할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더니, 2007년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Ⅲ-1 참조>.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2.

[그림 Ⅲ-1] 외국인 처의 국적별 추이(2002~2007)

2007년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2000년에 비해 거의 70배 정도 늘어난 규모로, 역시 2003년부터 새롭게 등장하여 2007년 들어서는 거의 95배

가량 늘어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표 III-4 참조>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중 특히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III-4〉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현황(2000~2007)

(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남자+ 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100.0	-3.5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14,526	49.8	-0.6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6,611	22.7	-34.7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2	357.9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1,665	5.7	12.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1,531	5.3	32.3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745	2.6	25.4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273	531	1.8	94.5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377	1.3	12.9
기 타	552	817	899	1,246	1,171	1,198	1,233	1,350	4.6	9.5

* 기타에 포함

자료: 통계청(2008.3), p. 15의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표에서 한국여자+외국남자에 관한 통계는 제외함.

다. 거주 지역

2007년 말 전체 결혼이민자 중 남성의 경우 주요 거주 지역은 서울(42.1%)–경기(29.8%)–인천(7.3%)등의 순이며, 여성은 경기(24.9%)–서울(23.2%)–경남(6.1%) 등의 순이다.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결혼이민자는 전체의 79.2%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53.8%로 크게 차이난다. 이 같은 경향은 2006년과 비교하여 매우 미세하지만 남녀 결혼이민자들의 거주 비율이 각기 반대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2006년에 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78.3%에서 79.2%로 늘어난 데 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수도권 거주비율이

55.9%에서 53.8%로 줄어들고 있다<표 Ⅲ-5>.

이로 미루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농촌과 도시지역의 국제결혼비중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비중 등에 의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2007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11.1%로 나타난 가운데, 농촌지역을 가리키는 읍·면부(13.5%)에서는 동부(7.3%)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읍·면부의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여자의 혼인비중은 무려 44.5%로, 농촌지역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으로 2007년에 혼인한 10명 중 4명 이상이 국제결혼 하였음을 나타내준다<표 Ⅲ-6>. 바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비수도권 거주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연유이다.

〈표 Ⅲ-5〉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2006/2007)

(단위: 명, %)

구 분	총(%)		남 자(%)		여 자(%)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93,786(100.0)	110,362(100.0)	10,958(100.0)	13,126(100.0)	82,828 (100)	97,236(100.0)
서울특별시	24,992(26.6)	28,108(25.5)	4,574(41.7)	5,526(42.1)	20,418(24.7)	22,582(23.2)
경기도	24,143(25.7)	28,135(25.5)	3,296(30.0)	3,918(29.8)	20,847(25.2)	24,217(24.9)
인천광역시	5,721(6.1)	6,536(5.9)	727(6.6)	955(7.3)	4,994(6.0)	5,581(5.7)
경상남도	4,822(5.2)	6,267(5.7)	248(2.3)	296(2.3)	4,574(5.5)	5,971(6.1)
경상북도	4,349(4.6)	5,487(5.0)	188(1.7)	210(1.6)	4,161(5.0)	5,277(5.4)
부산광역시	4,320(4.6)	5,018(4.5)	432(4.0)	487(3.7)	3,888(4.7)	4,531(4.7)
충청남도	4,084(4.4)	5,024(4.6)	211(1.9)	259(2.0)	3,873(4.7)	4,765(4.9)
전라남도	3,785(4.0)	4,766(4.3)	72(0.7)	89(0.7)	3,713(4.5)	4,677(4.8)
전라북도	3,667(3.9)	4,314(3.9)	139(1.3)	160(1.2)	3,528(4.3)	4,154(4.3)
충청북도	2,891(3.0)	3,425(3.1)	189(1.7)	201(1.5)	2,702(3.3)	3,224(3.3)
대구광역시	2,641(2.8)	3,268(3.0)	253(2.3)	295(2.2)	2,388(2.9)	2,973(3.1)
강원도	2,408(2.6)	2,676(2.4)	133(1.2)	132(1.0)	2,275(2.7)	2,544(2.6)
대전광역시	2,108(2.2)	2,437(2.2)	209(1.9)	248(1.9)	1,899(2.3)	2,189(2.3)
광주광역시	1,643(1.8)	2,053(1.9)	112(1.0)	148(1.1)	1,531(1.8)	1,905(2.0)
울산광역시	1,464(1.6)	1,919(1.7)	102(0.9)	125(1.0)	1,362(1.6)	1,794(1.8)
제주특별자치도	748(0.8)	929(0.8)	73(0.7)	77(0.6)	675(0.8)	852(0.9)

자료: 법무부(2007), 「출입국관리통계연보」, p. 493의 표 및 법무부(2008), 「200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 601의 표를 합하여 제작성.

〈표 Ⅲ-6〉 농촌지역(읍·면부)과 도시지역(동부)의 혼인-2007년

(단위: 건, %)

	혼인건수 (A)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B)	(B/A)	건수(C)	(C/A)	건수(D)	(D/C)
계*	345,592	29,140	11.1	7,930	2.3	3,172	40.0
동부	270,980	19,762	7.3	1,699	0.6	515	30.3
읍·면부	59,701	8,033	13.5	5,953	10.0	2,651	44.5

* 국외 및 미상 포함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7.

본 연구에서 서울과 더불어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또 다른 거주지역인 전남지역만 해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체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동시에 국제 결혼한 한국남자 중 농림어업종사자의 비중도 가장 높다<표 Ⅲ-7>.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 지역에 대한 경향성을 이해하게 하는 예이기도 하거니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 현실적 배경을 시사해주기도 한다.

〈표 Ⅲ-7〉 시도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비중 및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국제결혼 비중(2006/2007)

(단위: %)

	전체 혼인건수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의 비중**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 중 농림어업종사남성의 비중***	
	2006	2007	2006	2007
전국*	9.1	8.4	11.7	10.9
서울	8.3	7.9	0.9	0.8
부산	7.3	6.7	2.9	2.4
대구	7.7	6.3	3.8	3.8
인천	9.1	8.4	3.0	1.7
광주	7.6	6.7	4.0	3.2
대전	7.2	6.6	2.3	2.8
울산	8.3	8.0	3.9	4.0
경기	8.4	7.9	4.5	4.5
강원	9.1	9.0	23.8	24.4
충북	10.3	9.4	21.8	19.2
충남	11.0	10.7	26.8	27.7
전북	12.9	12.1	25.4	28.0
전남	15.1	13.9	37.8	33.9
경북	11.7	10.3	34.2	30.8
경남	10.8	9.3	24.4	20.8
제주	7.7	8.3	21.7	23.2

* 국외포함

**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전체 혼인건수×100

*** 농림어업종사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간 혼인건수 x100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6의 표 재작성.

라. 혼인 연령차

2007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11.3세로 한국남자와 한국여자 간 부부 경우의 2.4세에 비해 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많다. 이는 지난 2000년의 6.7세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결혼이민자 부부간 연령의 차이가 점차로 벌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표 III-8〉 한국남자와 외국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남자 + 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11.3
한국 남자 + 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2.4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8.

그런가 하면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의 재혼비율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높아진 편이다. 2007년 국제 결혼한 전체 한국남자 중 초혼 비율은 63.2%로 재혼비율 36.8%에 비해 약 1.7배 정도로 훨씬 높긴 하나, 이는 초혼 비율이 재혼비율의 2, 3배를 넘어선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추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표 III-9>.

〈표 III-9〉 외국여자와 혼인한 한국남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세)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초혼(A)	75.8	67.4	66.8	59.0	54.1	56.2	64.0	63.2
	재혼(B)	24.2	32.6	33.2	41.0	45.9	43.8	36.0	36.8
	A/B	3.1	2.1	2.0	1.4	1.2	1.3	1.8	1.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p. 18.

여기에서 앞의 혼인연령차에 관한 표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결국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외국인 처를 맞이하는 한국인 남편의 재혼비율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부부간 혼인연령차 또한 한층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마. 이혼 주이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전년에 비해 40.6%가 증가하고 있다. 총 이혼 건수에 대비한 구성비는 7.1%로, 전년 대비 2%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 증가율은 2007년의 경우 그 전년에 비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44.5%를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 부부의 이혼 증가율 33.7%에 비해 훨씬 높다.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남성결혼이민자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편이라 할 수 있겠다<표 Ⅲ-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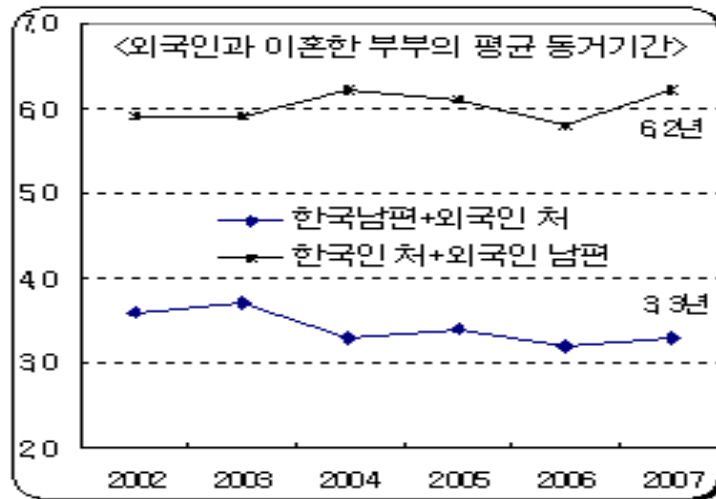
〈표 Ⅲ-10〉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 혼 건 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2007년 이혼에 이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평균 동거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90.2%를 차지한다. 이를 같은 시기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 중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는 60.3%이고 평균동거기간이 6.2년인 것에 비교할 때, 결국 이혼에 이른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기간이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보다 훨씬 짧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거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데에 기인하는 것이겠는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 91.8%에 달한다[그림 Ⅲ-2].



자료: 통계청(2008), 「2007년 이혼통계 결과」, p. 3.

[그림 Ⅲ-2] 외국인과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

한편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의 이혼을 시도별로 보면, 2006년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 중 한국인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3.2%인데, 전남 4.6%, 전북·충북 4.3%, 경북 4.1% 등 주로 농촌 중심 도 지역에서의 이혼 구성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남·북 및 경남·북 지역에서의 이혼은 전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일 정도다 <표 Ⅲ-11>. 이들 지역은 그동안 농촌의 국제결혼 추세를 주도해온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차후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시도별 이혼

(단위: 건, %)

	2005년			2006년		
	이혼 건수	한국남편+ 외국인처	구성비	이혼 건수	한국남편+ 외국인처	구성비
전국*	128,468	2,444	1.9	125,032	4,010	3.2
서울	25,300	536	2.1	24,354	791	3.2
부산	9,905	124	1.3	8,953	277	3.1
대구	5,916	69	1.2	5,490	140	2.6
인천	8,646	136	1.6	8,132	214	2.6
광주	3,127	45	1.4	2,974	85	2.9
대전	3,328	68	2.0	3,287	108	3.3
울산	2,780	42	1.5	2,825	74	2.6
경기	30,358	531	1.7	30,003	840	2.8
강원	4,105	89	2.2	3,985	108	2.7
충북	3,469	98	2.8	3,438	149	4.3
충남	4,594	118	2.6	4,647	168	3.6
전북	4,471	94	2.1	4,448	193	4.3
전남	4,394	96	2.2	4,423	202	4.6
경북	5,828	117	2.0	5,604	228	4.1
경남	7,844	135	1.7	7,603	247	3.2
제주	1,663	35	2.1	1,613	50	3.1

* 국외 포함

주: 한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주소지 기준임.

자료: 통계청(2007), 2006년 이혼통계 결과.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주요 지원정책

정부의 결혼이민여성 지원은 1990년대 말 여성 이주노동자와 성매매 외국인 여성을 돕는 데서 출발했다가 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여성으로 정책 대상을 전환하였다. 2005년 8월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그 후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생활안정대책을 중심으로 해당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을 2005년 11월 제 2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제 3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2006년 4월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관리 및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은 ①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②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③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④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⑤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⑥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⑦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7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2007년도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이 주요한 사업을 실행하였다. 다문화가족 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2세들에 대한 통합과 복지차원의 접근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교육을 지원하였다. 한편 농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 중의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상황을 반영해 농촌지역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2008년 정부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정부조직이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부처별 업무도 변화하였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된 것이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결혼이민자가족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부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이주여성긴급지원, 이주여성을 위한 폭력 관련 상담 및 쉼터,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농림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도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부처별 담당 업무가 변화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의 주관부처가 되었고,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었

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지원 관련 부처별 주요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Ⅲ-12〉 정부부처별 주요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지원 현황⁸⁾

부처	주요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1월부터 미성년자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 건강검진서비스 시범실시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종합 생활정보 제공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여성부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 이주여성쉼터 운영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교육과학기술부 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중장기계획('09~'12) 수립 • 교과부-교육청간 연계·협력 강화 •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교재,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중앙다문화교육센터) -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반, 방과후학교, 멘토링, 문화체험활동 등 지원 • 정책연구학교(10개교) 운영으로 학교 단위 다문화교육 강화 -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8)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포함되었다.

4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부처	주요 내용
법무부 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출입국·체류관리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다문화거점대학(ABT 대학: Active Brain Tower) 선정 - 정부합동고충상담회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대상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실시 - 이주민과 내국민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콘텐츠의 제작
노동부 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통역서비스 제공강화 - 사회적일자리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행정안전부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추진 -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 외국인주민 기초 실태조사 -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 - 다문화 공공서비스 현장 제정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 외국인주민 집단거주지역내 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외국인주민 지도자 육성 및 취업 교육 지원

9)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과(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및 관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0) 관련 실무자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다.

11)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및 관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2) 관련 실무자 자문을 거쳐 작성하였다.

13)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팀 내부자료 및 관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4) 노동부(2007),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자치행정과) (2008),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 계획” 및 관련 실무자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현황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수립된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6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22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결혼이민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교육이 608개(74%)로 가장 많았다. 요리강습(44.6%), 전통문화 체험(34.7%), 예절 교육(24.0%)이 뒤를 이었다. 반면 취업 교육, 법률 지원, 의료 상담은 각각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김이선 2007).

김희선(200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다문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한국어교육(74.0%)과 한국요리강습(44.6%), 전통문화체험(34.7%), 생활예절교육(24.0%)과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각종 상담(법률, 심리),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결혼이민여성의 출신문화 교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10%미만의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의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해보면, 첫째, 결혼이민여성이 가족 나아가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이들이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질문과 요구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언어와 생활적응 부분에 일방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전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상담인력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없이 상담을 진행하거나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와 같은 기관에서만 이중 언어 사용 전문상담인력 육성이 미흡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된 경우에 한국어를 다소나마 구사하는 결혼이민여성이나 해당 국가 언어를 구사하는 전문가가 전화 등으로 간단한 통역을 제공하기도 하나 몇몇 언어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

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의 정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일방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신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차이를 우리 사회가 보유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컨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술교육은 주로 제과·제빵 기술, 비즈공예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비교적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선정된 것이기는 하나, 결혼이민여성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과 서로 다른 문화를 오가며 쌓아온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교육을 받더라도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 자체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 보다는 일반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기술교육을 그대로 시행하는 수준이다(김희선 2007).

최현미과 이수연(2008)은 다문화 관련기관¹⁶⁾의 지원 사업 분석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검색어를 입력하여 나오는 기관을 조사하였다. 현재 2008년 3월에 개소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을 아직 실행하고 있지 않아 전화조사를 통해 필수 기본사업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0개소, 이주노동자센터 및 쉼터 5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2개소, 종교기관 21개소, 여성단체 34개소, 기타 의료기관, 상담소, 협의회,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 38개소 등 총 239개소가 파악되었다.

16)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관련기관은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전국의 다문화관련 기관 및 주요 지원 사업을 6개 권역 즉,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영동·영서권(강원도), 충청권(대전), 호남권, 영남권(부산·울산),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역별 차이로는 기관 수 외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각 지역별 기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98개소, 영남권 58개소, 호남권 42개소, 충청권 27개소, 영동·영서권 10개소, 제주권 4개소의 순이었다. 이들 239개소의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는<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다문화 관련기관의 지원 사업 현황

한국어 교육	- 한글교육(83.7%)
상담	- 개인(노동, 법률, 직업상담 등), 가족상담(89.1%) - 컴퓨터 제공(18%) - 통·번역(3.3%)
의료	- 의료지원(40%) - 정기적 무료진료(32.6%)
가족지원	- 아동양육 도우미(34.3%) - 가족교육 및 부부교육(22.6%) - 가족캠프(9.2%) - 출산도우미, 임신, 육아, 산모교실(9.2%)
문화, 정서지원	- 자조집단 지원 및 멘토링(32.6%) - 생활요리교실(25.9%) - 문화체험(66.1%) - 문화행사(64.4%)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	- 컴퓨터 교육(40.2%) - 다문화 강사 및 원어민 강사 양성(1.7%) -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2.9%)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 축제(64.4%) - 인식개선 캠페인(10.5%) - 다문화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조사(11.7%)
찾아가는 서비스	- 방문교육(28.5%)
종교활동	- 선교활동(7.9%)
네트워크 구축	- 국내(관공서, 정부부처, 병원, 복지기관, 기업 등), 해외 연대 활동(2.5%)
기타	- 리더쉽, 안전, 금융, 영양, 직업, 인권, 국제 언어, 상담원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운영(지구촌학교, 일요학교) - 장례식 지원 - 무료급식 및 푸드뱅크 사업 - 귀환/친정 보내기 프로그램 - 태권도/노래/국악 - 무료 이·미용/이동도서관 서비스 - 온라인 카페 운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우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예절교육, 문화체험(문화유적 탐방, 나들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상한 것 이상으로 한국어교육이 8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가족, 부부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89.1%로 매우 높는데, 이는 실제로 얼마나 전문 상담이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혼이민여성이 가족 및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서 주요 사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교육, 부부교육, 가족캠프도 결혼이민여성 대상 사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검진, 심리치료, 출산 도우미 파견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컴퓨터교육, 교양취미교육, 요리교실, 노래교실 등도 추진되고 있으며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문화축제(64.4%) 등의 문화 행사와 세미나와 연구조사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가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문교육(찾아가는 서비스, 28.5%)과 아동양육 도우미 사업(34.3%)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국인노동자센터, 종교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상담, 쉼터 제공과 무료진료 및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 소식지 발행, 조사연구, 자조집단 및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들은 현재 초기단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특히, 많은 프로그램들은 일회적이며 한글이나 민족문화체험 등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적응과 관련된 사업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중복적이므로 그 효과적인 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그동안 진행된 민간단체들의 다문화지원서비스를 조사, 분석하여 기존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가장 핵심적이며, 긴급한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컴퓨터교육(40.2%)에 치중되어 있고 전문 강사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사업(2.9%)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교육과 취업 알선, 통·번역 사업(3.3%)은 다양한 사업 중 가장 취약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참여와 취업욕구를 감안해 볼 때 이를 충족할 만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부처별 주요 지원정책 및 서비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이후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업무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2008년 부처별 사업과 계획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¹⁷⁾

1)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새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으로 주요한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지방-NGO의 유기적 연계 및 체계적 추진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법은 ①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38개소였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8년 80개소로 증가한다. 이 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육, 상담,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2008년 5월 13일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내놓았다. 즉, 입국 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

17)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만이 아니라 향후 계획도 포함되었다.

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보면, 정착 및 아동양육기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역량강화(영농기술교육, 취업교육, 정보화교육)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역량강화기에 들어서 취업까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 통합선도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의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집합형태로 언어별,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지원서비스도 역시 가족관계형성기에 제공된다.

3단계의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아동양육지원서비스는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0세-12세의 자녀가 있는 해당 가정에 제공된다. 그리고 이 단계는 취업역량 강화교육으로 영농기술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정보화교육도 실시된다. 또한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의 취업능력 향상 교육도 지원된다. 4단계는 역량 강화기로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과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등을 주요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전(全)단계는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Ⅲ-14〉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단계별		내용
1단계	입국 전 결혼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 결혼이민예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필리핀 등 2개국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 몽골, 캄보디아 등에 콜센터 운영 및 입국 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 한국인 배우자 대상 결혼준비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 입국 전 한국인 배우자에게 사전 교육추진
2단계	입국 초 가족관계 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연중) - 방문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08.1~3) - 온라인교육: 한국디지털대학교와 협약 체결(08.1~) ○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 종합 생활정보 제공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실시 -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육시설 등에 다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술교육 - 정보화교육 -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능력 지원
4단계	역량강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 통합 선도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모임결성, 이민자 사회통합지원멘토 역할 수행 -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 이민자 적합 직종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강사 양성 - 원어민 외국어강사 양성 - 통·번역사 등 이민자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인력양성과 연계 시스템 검토
전단계	다문화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08.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활동가 전국대회 ○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

2) 여성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축소된 이후 여성부의 이주여성관련 업무는 크게 3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지원센터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8개 국어로 자국어 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과 경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둘째, 이주여성쉼터에서 긴급보호, 의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표 Ⅲ-15〉 이주여성관련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 등 8개 국어 자국어 상담 - 병원·경찰·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지원 ○이주여성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서비스 지원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동으로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
--------------	--

3) 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외국인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으로 정의된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7).

그 간의 주요 외국인정책의 변화를 보면, 1993년 산업연수생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1999년에는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구주·미주지역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2004년에는 단순노무 외국 인력의 근로자의 지위 인정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2006년에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2002년 도입된 취업관리제를 확대

하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중국, 구소련 동포의 방문 및 취업범위를 확대 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정책 수립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국인정책의 변천의 흐름에서 보듯이 외국인정책의 대상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한재외동포, 그리고 그 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이중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법무부의 사업은 결혼이민자 출입국 및 체류관리,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등이다. 그리고 법무부는 ABT 대학을 선정하여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표 Ⅲ-16〉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출입국 · 체류관리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 국제결혼 희망자 사전교육(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사업) -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1345)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 다문화거점대학(ABT 대학: Active Brain Tower) 선정 - 정부합동고충상담회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주관
--------------	--

4)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4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18,778명이며 이는 2007년 대비 39.6%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비율로 보면, 초등학교 84.2%, 중학교 11.7%, 고등학교가 4%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초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7 참조>.

〈표 Ⅲ-1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08.4.1 기준)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2008),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전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16,937명으로 90.2%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3,296명, 서울 1,746명, 전남 1,83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Ⅲ-18 참조>.

〈표 Ⅲ-1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시도별 학교급별 현황

('08.4.1 기준, 단위: 명)

구분 시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A)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B)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1,813	319	127	2,259	1,446	220	80	1,746
부산	634	92	44	770	542	70	29	641
대구	403	38	15	456	369	27	5	401
인천	560	67	35	662	560	67	35	662
광주	394	28	17	439	374	25	16	415
대전	249	61	17	327	209	57	13	279
울산	220	30	14	264	204	25	13	242
경기	3,091	576	211	3,878	2,656	477	163	3,296
강원	883	95	27	1,005	849	83	24	956
충북	877	88	29	994	839	73	23	935
충남	1,235	185	56	1,476	1,162	166	52	1,380
전북	1,235	131	18	1,384	1,160	112	18	1,290
전남	1,675	136	58	1,869	1,644	136	57	1,837
경북	1,150	110	32	1,292	1,114	102	22	1,238
경남	1,239	237	54	1,530	1,212	232	46	1,490
제주	146	20	7	173	112	13	4	129
계	15,804	2,213	761	18,778	14,452	1,885	600	16,937
비율(%)	84.2	11.7	4.0	100.0	91.4	85.2	78.8	90.2

※ 모가 외국인인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2008),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 현황.

우리 사회가 점차 개방적이게 되면서 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도 역시 취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양해진 우리 사회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도 사업계획(안)은 기간 관 연계 강화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원주의 가치·개성·창의·존중,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다. 이 사업계획(안)은 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②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③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서는 첫째 관계부처와의 협력과 시도별 다문화교육 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를 위한 토대 구축으로 다문화 교육지원 관련 부처와 교육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둘째, 시도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청, 지자체, 학교, 민간 단체 등 지역 내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현장수요,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을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중앙다문화 교육센터(서울대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등을 위한 교재,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②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능력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실, 방과후 교실 등을 운영한다. 또한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한국문화 이해 및 학습을 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아정체성의 형성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가족배경 등으로 인해 자아정체성에 혼돈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담과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지원을 한다. 한편, 교과부 지

정 정책연구학교 운영(10개교)을 통해 학교 단위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③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발굴과 확산 등을 할 계획이다.

〈표 Ⅲ-19〉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사업계획(안)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육 지원 관련 부처 및 교육청과의 협의 강화 - 시·도별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학교)운영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학습 능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KSL)반, 부모와 함께하는 한글교실, 방과후 교실 운영 •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정체성(Identity)확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 일반 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다문화 관련 이해 제고 ○제도 개선 및 성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별 다문화교육 사업 평가체제 구축 - 지역별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 다문화교육 정책 중장기 방향 연구 실시
--------------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문화의 배타적이고 차별적 측면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다문화 사회적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는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지방문화원이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이주민 다문화축제 ‘2008 Migrants’ Arirang’(08. 5.11)과 이주민 지역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해 왔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아리랑 TV를 통해 방영하였다(07.12~08.4/08.5.19, 5.20). 이와 함께 내국인의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해서 다문화강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소속·산하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및 기타 이주민이 된다. 결혼이민자 또는 가족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 관련 사업은 관광산업본부의 국내여행경비 지원, 한국관광공사의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문화 관광체험기회 제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다문화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 국립국어원의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국립중앙박물관의 엄마아빠 문화배우기,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 도서관 조성 등이 있다<부록 1 참조>.

〈표 Ⅲ-20〉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다문화 사업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8.3~'09.6) ○다문화정책 연구를 위한 지속적인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실시 ○이주민대상한국어·문화이해교육 시범사업 실시('08.4~'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지방 문화원의 연계 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역할분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국어원: 교과과정·교재개발, 교원 수급 총괄 • 국어문화원: 한국어·문화교육 강사 양성·연수, 교육실시 • 지방문화원: 참여프로그램 운영, 교육 실시 ○이주민과 내국인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다문화축제 ‘2008년 Migrants’ Arirang’ 개최 -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개최 - 다문화 청년캠프 운영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콘텐츠의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강사 등 다문화 매개 인력 양성 사업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정책팀 내부자료.

6) 노동부¹⁸⁾

여성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들의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그 동안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문화·교육·복지서비스의 한정에 있으나,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결혼이민자 취업 알선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결혼이민자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한다.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혼이민자의 구직등록은 1,606건이고, 이중 취업은 4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표 III-21 참조>. 2007년 9월 현재 F2 비자를 가진 국민의 배우자 등의 1,480명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여 291명이 취업하였다. 2005년 209명의 구직등록 중 50명이 취업하였고, 2006년 783명의 구직등록 중 171명이 취업을 하였다. 이를 보면 해가 갈수록 구직등록을 하는 결혼이민자도 증가할 뿐 만 아니라 취업을 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노동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 (2007.11)을 토대 작성한 것이다.

〈표 Ⅲ-21〉 고용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알선 실적

〈2008년 1~6월누계〉				
시도명	구직등록건수	구직신청건수	알선건수	취업건수
16개시도합계	1,606	1,819	7,970	447
서울	258	294	922	66
부산	73	82	133	16
대구	64	67	176	19
인천	122	145	833	36
광주	28	31	58	6
대전	45	48	130	14
울산	13	14	47	5
경기	704	805	4,547	191
강원	22	24	15	4
충북	75	86	374	22
충남	41	44	318	16
전북	37	43	65	12
전남	18	19	21	9
경북	38	43	130	9
경남	56	62	197	20
제주	12	12	4	2

자료: 노동부 내부자료.

노동부의 통역제공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25개소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7년 35개소로 확대되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및 통역서비스가 제공은 되고 있으나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구직등록을 하는 결혼이민자는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결혼이민자의 1%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언어,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정보와 취업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와의 사업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여

성결혼이민자를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이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통해 이들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표 Ⅲ-22〉 결혼이민자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고용지원센터 이용 제고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에 적합한 일자리 적극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알선 ○통역서비스 제공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언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06년 부터 운영 중인 통역시범센터(35개소)의 지원언어 다양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주로 제공되는 언어서비스가 영어, 중국어 등에 편중되어 있어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등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사회적 일자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를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이들이 다수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08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 -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여성결혼이민자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도 포함
--------------	--

자료: 노동부 (2007),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방안.

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의 자치행정과는 매년 급증하는 외국인을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2008년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방행정본부의 계획은 여성결혼이민자만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 동안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문화수용을 확산하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왔다.

2008년은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주민 무료진료를 추진하는 것 등의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제19조와 ‘외국인 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의 제14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 행사(매년 5월 20일)’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의 성격상 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부모를 초청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내국인과 혼인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모국(친정)을 방문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부부이다. 그리고 친정부모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선정 시 ① 4촌 이내의 자매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여성, ② 한국어 교육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자(남편), ③ 통·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여성, 남편과 사별 후 자녀와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있는 여성과 같은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특이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등이 우선 대상자가 된다.

〈표 Ⅲ-23〉 2008년 이주민 정착지원 활성화 계획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p><상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업무추진 계획 시달('08.2) - 지자체 업무담당자 순회 소양교육 확대('08.3)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추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외국인주민 기초 실태조사 ○결혼이민자 정착 우수사례 발표회 <p><하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다문화공생 해외 선진지 견학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 ○다문화 공공서비스 현장 제정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 자치행정과 (2008), 이주민 정착지원 추진 계획.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과 정부(지자체)·민간기구 등의 외국인주민 지원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사회통합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외국인주민 실태조사를 2006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 실태조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1달간)까지 시군구별로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자격 등 법적요건에 관계없이 관내 거주자를 상대로 전수조사 하였다<부록 2, 3 참조>.

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앞의 부처별 주요 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보다는 급변하는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생애주기별 위험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는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와 삶의 조건들을 파악함으로써 자기 이해와 자아 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된다. 여성의 생애주기는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발달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접근에서의 생애주기는 1) 1단계는 20-24세의 연령에 속하는 여성으로서 취업준비 및 취업단계를 말하며, 2) 2단계는 25-34세의 결혼, 출산, 육아의 생애사건에 직면한 시기로 사회적, 가족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이 없는 여성은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퇴장한다. 3) 3단계는 35세 이후의 여성으로서, 육아가 종료된 후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기타 사회활동 요구가 증대하는 시기이다. 결국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경험들은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나영선, 이수경 2000).

김가을(2007)은 여성의 혼인과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하였는데, 30대미만인 미혼청년기와 기혼청년기, 막내자녀의 학령기 연령이 거의 종결

되는 30-44세의 자녀양육기, 그리고 45-64세의 중·고령기로 나누었으나 노동시장 행위와 관련해서는 미혼,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양육 완료기의 세 단계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출산력과 같은 여성 고유의 생애사건으로 인해 직업경력단절이 초래되기 쉬운 상황에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 변화 양상, 직업경력단절 양상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국으로의 이주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큰 변화를 경험하며 직업경력단절 양상이 더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들 역시 내국인 여성들도 별반 차이가 없는 취업,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생애주기가 발전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단계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이민자로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하여 1) 1단계로 입국초기의 가족관계형성기, 2) 2단계로 임신·출산기, 3) 3단계를 취학 전후로 구분한 아동 양육기, 4) 4단계는 노동시장(재)진입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모든 단계에 제공되어야하는 서비스를 전(全)단계로 따로 구분하였다<표 Ⅲ-24 참조>. 이렇게 구분된 생애주기별 단계는 다음 장에서 심층면접을 한 내용 분석을 위한 주요 틀로 사용될 것이다.

〈표 Ⅲ-24〉 부처별 생애주기별 주요 서비스

단계	생애주기	서비스내용	부처
1단계	입국초기 - 가족관계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필리핀 등 2개국에 국제결혼 이민관을 파견해 상담·사전정보제공,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활동 강화 등추진 ○ 몽골,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콜센터 운영 및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80개소)에서 결혼이민여성 입국전 한 국인 배우자에게 사전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교육 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여성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2단계	임신·출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1~2개월 앞둔 출산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6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서비스내용	부처
3단계	아 동 양 육 기	취 학 전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 보육시설 등의 다문화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지정	보건복지 가족부
			○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한글교육 프 로그램 개발 및 유치원 등 보급 - 유아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과학 기술부
		취 학 후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 다문화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 가족부
			○ 한국어반, 부모와 함께 하는 한글 교실, 방과후 교실 운영 ○ 방문교사제, 대학생 멘토링 ○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 등 지원 ○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 다문화교육 관련 교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 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반학생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 구성·운영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상담 등 지원	교육과학 기술부
4단계	노 동 시 장 (재)진 입 기	○ 영농기술교육 ○ 정보화교육 ○ 직장예절, 면접기술 및 구직등록, 기술교육 등 취업능력 향상 교육 ○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 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 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 고용-복지연계서비스제공 ○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알선 ○ 통역서비스 제공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노동부	
전(全)단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남편교육·상담 기능 ○ 결혼이민자·배우자·시부모·부부관계·부모자녀 등 가족관 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증진 지원-무료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미성년자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 다국어판 생활·정책 정보 매거진을 연4회 발간 - 해외공단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포하여 외국현이 지 및 입국 시 부터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출신국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결 성, 출신국별 초기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 멘토 역할 수행 ○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운영	보건복지 가족부

단계	생애주기	서비스내용	부처
전(全)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센터」 운영 ○ 여성쉼터: 긴급보호, 의료·법률 지원서비스 	여성부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지역생활문화 축제 ○ 다문화가정 국내여행 경비지원(관광산업본부) ○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문화관광 체험기회 제공(한국관광공사) ○ 방과후 학교를 이용, 다문화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엄마·아빠 문화배우기: 몽골, 베트남의 문화체험(국립중앙박물관) ○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국립국어원) ○ 작은 도서관 조성(국립중앙도서관) ○ 청소년예술제: 아프리카 청소년 합창단 공연 및 세계 각국의전래 동요 소개(국립중앙극장) ○ 이주민대상민족교실(국립민속박물관) ○ 찾아가는 국악원: 국립국악원 연주단 방문 공연(국립국악원) ○ 이주민에게 전통설화 소재 공연의 관람 기회 및 할인 혜택제공(국립국악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산하 기관

IV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

1. 일반적 사항	69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73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85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125

1. 일반적 사항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우자의 사회서비스 경험과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리적이거나 교통 편의성으로 인해 농촌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서울을 도시지역의 사례로 선정하였고, 농촌지역으로는 농촌남성과의 결혼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에서는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¹⁹⁾의 협조와 피면접자 부부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영암과 나주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의 선정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언급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이러한 선정조건을 맞추어 면접대상자가 된 이들은 서울지역에서 총 13쌍의 부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총 15쌍의 부부이다<표 IV-1 참조>. 참고로 아래 표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서울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3명), 일본(5명), 카자흐스탄(2명), 필리핀(1명), 베트남(1명), 인도네시아(1명)이고, 중국출신 중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가 모두 모국어가 아니다. 이들 중 7명이 한국에 거주한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으며, 취학기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은 7명이다. 그리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은 5명이고, 만3년 8개월이 된 사람이 1명²⁰⁾으로 이들은 모두 취학 전의 자녀를 두고 있다. 13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중 12명이 모두 본국에서 직업을 가졌으나, 현재는 그 중 6명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배우자보다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13 사례 중 1 사례만이 여성

19) 본 면접은 관련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 5월-6월 사이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4장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기 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0) 사례 1-1-9 경우 남편과 거주기간을 응답하는 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피면접자가 거주기간을 만으로 하였는지, 횡수로 하였는지에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사례 1-1-9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들에서 발견된다.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고, 5 사례는 부부가 학력이 같으며, 나머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2 사례만이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연령 차이가 무리할 정도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IV-1〉 서울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사례 번호	이름	출신국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본국 직업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1-1-1	왕차린	중국 (조선족)	여	1998년	11년	통역사	통역 프리랜서	대재	39	딸2 (10,8세)
1-1-2	하홍린	중국	여	2002년	6년	회사원	자영업	대졸 (야)	33	아들2 (6,4세)
1-1-3	유미코	일본	여	2000년	8년	간호 조무사	주부	고졸	40	딸2 (8,7세)
1-1-4	나세디 키나	카자흐 스탄	여	2000년	8년	교사	아동 양육 도우미	대졸	40	(7세)
1-1-5 ²¹⁾	나카시 마미카	일본	여	1994년	14년	무직	통역	대졸	37	아들2 (13,10세)
1-1-6	안젤 리카	필리핀	여	1996년	13년	백화점 점원	주부	초 대졸	42	딸2 (12,11세)
1-1-7	응엔 티엔	베트남	여	2002년	6년	농사	주부	중졸	29	아들2 (5,4세)
1-1-8	미사토	일본	여	1995년	10년	회사원	아동양 육도우 미	초 대졸	38	(9,7,4세)
1-1-9	자미라	키르기 스탄	여	2003년	만 3년 8개월	교사	주부	대졸	36	(4세) 전처의 딸2명
1-1-10	마이코	일본	여	1999년	13년	회사원	주부	초 대졸	38	(10,8,7,4, 1세)
1-1-11	류린난	중국	여	1998년	13년	생산직	주부	고졸	44	(8세)
1-1-12	마키	일본	여	1992년	15년	공무원	일본어 강사	대졸	53	만3세
1-1-13	따디	인도네 시아	여	2002년	6년	회사원	주부	대졸	32	아들1 (5세)

21) 1-1-5와 1-2-5의 경우 부부가 결혼연도와 한국거주기간이 다르게 응답하였다. 면접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남성배우자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말이 더 신뢰할 만 하여, 여성의 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Ⅳ-2〉 서울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남성배우자)

사례 번호	이름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1-2-1	송철민	남	1997년	10년	자영업	초 대 졸	46	딸2(10,8세)
1-2-2	최동철	남	2002년	7년	자영업	대 졸	43	아들2(6,4세)
1-2-3	이진철	남	2001년	7년	회사원	고 졸	43	딸2(8,7세)
1-2-4	김지범	남	2000년	8년	건축업	중 졸	47	(7세)
1-2-5	조성환	남	2003년	5년	노무	중 졸	42	아들2 (13,10세)
1-2-6	원종혁	남	1995년	기억 안남	제조업	중 졸	49	딸2 (12,11세)
1-2-7	이종길	남	2002년	6년	인쇄업	고 졸	36	아들2(5,4세)
1-2-8	김기복	남	1995년	10년	제조업	고 졸	43	(9,7,4세)
1-2-9	손철혁	남	2003년	5년	무직	고 졸	50	(4세), 전처의 딸 2명
1-2-10	강동근	남	1995년	13년	사업	고 졸	44	(10,8,7,4,1세)
1-2-11	서범석	남	1998년	13년	자영업	고 졸	50	(8세)
1-2-12	정우영	남	1992년	15년	가사 활동	대 졸	57	만3세
1-2-13	민기범	남	2002년	6년	무직	대 졸	39	아들1(5세)

전라남도의 15 사례 중에 영암에서 12 사례를 면접하였고, 3 사례는 나주에서 면접을 하였다. 영암과 나주에서 면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몽골(3명), 필리핀(3명), 중국(2명), 일본(1명), 베트남(5명), 태국(1명)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시간은 10년을 넘는 경우가 없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비교가 되었다. 15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8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5년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15명의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 11명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12명이 전업주부이다. 전라남도의 15 사례 중 6 사례가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 사례가 부부가 학력이 같고, 나머지는 7 사례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다. 그리고 전라남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서울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학력이 낮은 경향이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가 20년이 넘는 경우가 3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중 연령 차이가 25년이 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연령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경우는 5 사

레이고, 10년 이하는 7 사례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나주와 영암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간의 연령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의 영암과 나주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서울의 여성결혼이민자들 보다 짧은 경향을 보이는데, 전라남도의 피면접자 중 10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한 여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들도 취학 기 보다는 취학 전에 자녀를 둔 가정이 많다.

〈표 IV-3〉 전남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사례 번호	이름	출신국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본국 직업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²²⁾
2-1-1	티나	필리핀	여	1998년	9년	생산직	원어민 강사	대 중퇴	37	딸4 (9,7,6세, 3개월)
2-1-2	온드라	몽골	여	2006년	3년	회사 매니저	농업	대졸	32	아들1 (2세)
2-1-3	오양가	몽골	여	2005년	3년	광고 매니저	주부	대졸	33	아들1 (2세)
2-1-4	텅기스마	몽골	여	2005년	3년	마트점원	주부	중졸	31	딸1(3세)
2-1-5	위선	중국	여	2002년	6년	서비스업	주부	고졸	34	1남1녀 (남5,여4) 임신7개월
2-1-6	쿠라카마이	일본	여	2007년	6년	생산직	주부	중졸	39	아들2 (5,3세)
2-1-7	부티밍	베트남	여	2005년	3년	유통업	주부	고 중퇴	23	딸1(3세)
2-1-8	말리카	태국	여	1999년	9년	생산직	주부	중졸	30	딸2 (5,4세)
2-1-9	리아	필리핀	여	2000년	8년	점원	주부	고졸	32	1남1녀 (남8,여3)
2-1-10	황티하	베트남	여	2001년	7년	무직	주부	고졸	29	아들1 (7세)
2-1-11	황련위	중국	여	1999년	9년	무직	농업	중졸	30	1남1녀 (아들9, 딸8)
2-1-12	카렌	필리핀	여	2000년	8년	무직	주부	대졸	38	아들1(3세)
2-1-13	팜티엔	베트남	여	2006년	2년	미용사, 점원	주부	초졸 (5년)	27	아들1 (10개월)
2-1-14	하티빈	베트남	여	2005년	3년	생산직	주부	초졸 (5년)	22	아들1(3세)
2-1-15	주티안	베트남	여	2006년	2년	무직	주부	초대졸	24	딸1(2세)

22) 배우자간에 자녀의 연령차가 나는 것은 연령을 세는 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Ⅳ-4〉 전남지역 심층면접 대상자(여성결혼이민자 배우자)

사례 번호	이름	성별	결혼 연도	거주 기간	직업	학력	연령	자녀수
2-2-1	김규범	남	1999년	9년	농업	고졸	46	딸4 (9,7,6세,5개월)
2-2-2	안민철	남	2005년	3년	농업	고졸	39	아들1(12개월)
2-2-3	이강필	남	2005년	3년	농업	중졸	50	아들1(3세)
2-2-4	임병길	남	2005년	3년	농업	고졸	35	딸1(3세)
2-2-5	원성필	남	2002년	6년	조선업	고 중퇴	36	1남1녀 (남5세,여4세) 임신6-7개월
2-2-6	이상훈	남	2003년	6년	농업	고졸	39	아들2(5,3세)
2-2-7	최시환	남	2005년	3년	조선업	고졸	48	딸1(3세)
2-2-8	김태근	남	1999년	9년	조선업	고졸	41	딸2(5,4세)
2-2-9	오태호	남	2000년	8년	회사원	고졸	43	1남1녀 (남8세,여3세)
2-2-10	유창현	남	2001년	7년	조선업	고 중퇴	45	아들1(7세)
2-2-11	김진호	남	1999년	9년	농업	중졸	47	1남1녀 (아들9세,딸8세)
2-2-12	한유상	남	2000년	8년	농업	초졸	47	아들1(3세)
2-2-13	길수찬	남	2006년	2년	농업	고졸	50	아들1(2세)
2-2-14	서우진	남	2005년	3년	건축업	고졸	46	아들1(3세)
2-2-15	김호철	남	2006년	2년	농업	고졸	40	딸1(15개월)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가. 접근 시기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서울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거주지역인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기는 극히 최근의 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접근 시기를 밝힌 경우, 가장 이른 시기래 봤자 2006년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실제로 1997년에 입국한 뒤 중국에서의 직장 경험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구직활동을 벌이며 현재도 대학에 다니면서

통역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대단히 적극적인 정착노력을 기울인 조선족 출신 여성이 처음으로 이주여성센터 존재를 알게 된 것도 국내 거주한지 10년째인 2007년의 일이다<1-1-1, 서울, 아내, 왕차린>.

Q: 복지관은 어떻게 아셨나요?

A: 여기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데 잘 다니세요.

Q: 아 가족이 복지관을 다니셔서. 다니신지 꽤 되셨나요? 한국어교실을?

A: 한 3개월 다녔는데요.

Q: 그게 언젠가요?

A: 그게 2006년도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Q: 그러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런 도움 같은 거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관이 있다던가, 어려운 점 있었을 때 도움 받았던 거.

A: 그런 거 없어요...(중략)...친정 언니한테 얘기하고 그거 밖에 없었어요. 혼자 알아보고 와서 취직하러 다니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어 교사 모집하는 거 몰랐어요...정보가 취약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회에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Q: 그럼 언제부터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공공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어요?

A: 저는요, OO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이라고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교육받을 장소, 쪽 리스트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하고 가까운 게 복지관이더라고요. 복지관 클릭해서 들어 갔더니 이민, 이주여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떠요. 들어가 봤더니 어 이렇게 있었네. 알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Q: 그게 몇 년도였어요?

A: 작년(2007)이요.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놀란 게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왜 몰랐나...(후략)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이에 비해 전남 지역에서 본 심층 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근래에 들어서 이주여성센터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지역에 비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찍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럿 있다. 1999년 입국한 이후 4년이 지나고서야 즉,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접근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사회서비스 접근 경험을 지닌 사례 <2-1-11, 전남, 아내, 황련위>가 있는가 하면, 2006년 들어서는 심지어 ‘입국 다음날’ <2-2-13, 전남, 남편, 길수찬>이나 ‘입국 후 일주일 뒤’ <2-1-15, 전남, 아내, 주티안>에 바로 접근하였다는 사례도 있다.

Q: 군이라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기관 같은데서 한국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와서 지금처럼 아이들한테 방문수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A: 저도 처음에는 몰랐고요. 한 4년 정도(2003)됐는가, 시집와가지고요 (2-1-11, 전남, 아내, 황련위)²³⁾.

Q: 부인께서는 (입국한지)얼마만큼 있다가 센터에 나오게 됐나요?

A: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4월30일에 와가지고 5월1일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묘하게 그 날이 바로 월요일이라 바로 찾아 갔습니다 (2-2-13, 전남, 남편, 길수찬)²⁴⁾.

Q: 이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베트남에서 처음 왔는데 일주일 후에 시숙님하고 남편하고... 예, 센터에 데려왔어요 (2-1-15, 전남, 아내, 주티안)²⁵⁾.

서울과 전남 지역 피면접자 간에 보이는 이 같은 차이는 실제 이들의 거주 기간 차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서울과 전남 지역 간에 상이한 경향을 보여준다

23) 1999년 입국

24) 2006년 입국

25) 2006년 입국

<표 IV-5>. 최단 만 3년 8개월부터 최장 15년에 걸친 거주기간 분포를 보인 서울지역 피면접자들은 13명 중 9명이 6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데 반해, 불과 2년에서 최장 9년까지의 거주기간을 보이는 전남의 피면접자들은 15명 중 7명이 국내에 거주한지 3년 이하에 지나지 않을 정도다.

〈표 IV-5〉 심층면접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분포

(단위: 명)

	서울	전남
3년 이하	-	7
~6년 이하	4	2
~9년 이하	2	6
~12년 이하	2	-
~15년 이하	5	-
계	13	15

이처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기간이 훨씬 짧은 전남 지역 피면접자들이 사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보다 빠른 것으로 보이는 위의 면접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거주기간의 장단 여부가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용이도와 그리 관련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말하자면 국내에 오래 거주 했다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정보망으로부터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하겠다. 다른 하나는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중앙 정부차원의 관심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005년 시기 이래로, 특히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제결혼비중을 보인 전남 지역과 같은 농촌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그 존재감을 보다 뚜렷이 해가는 가운데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중요한 사회서비스 수요층으로 주시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이다. ‘입국 다음날’이나 ‘입국 후 일주일 뒤’와 같은 사회서비스 접근이 가능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나. 접근 경로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방식의 공·사 채널을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6 참조>.

〈표 IV-6〉 심층면접 대상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접근 경로

	서울	전남
공적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무소 - 구청 주관 행사 - 방문교사 - 구청 소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사무소·시설의 직접적인 연락 - 방문교사 - 시설의 홍보물
사적 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 친구나 선배 - 남편 - 시댁가족 - 타 여성결혼이민자 - 교회 - 인터넷 - 기타 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 친구나 선배 - 남편 - 타 여성결혼이민자 - 기타 지인
매스컴		- TV

공적 채널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면·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주여성센터와 같은 시설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소식지 등을 들 수 있겠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사회서비스 정보를 인지하고 직접 접하게 되었다는 사례<2-1-3, 전남, 아내, 오양가/ 2-2-2, 전남, 남편, 안민철>들이 많다. 서울 지역에서도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 알게 된 사례<1-1-11, 서울, 아내, 류린난>가 눈에 띄긴 하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공적 채널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 생활상의 차이에 기인하겠기로, 즉 직접적인 주민 대면의 기회나 폭이 서울에 비해 보다 밀도 있기 마련인 전남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취하는 연락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사회서비스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공적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는 대도시생활

의 특성상 그 정도의 긴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Q: 그런 교육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OO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OO군청에서도 연락이 와요. 편지도 와요.

Q: 편지가 어디에서 와요?

A: OO결혼이민자센터에서 와요. 그래서 알고 배워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Q: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A: 처음에는 모르다가 면사무소 가서 듣기도 하고 OO군청교육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팜플릿이 오기도 하고... (2-2-2, 전남, 남편, 안민철).

Q: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알게되는가?

A: 구청소식지...(1-1-12, 서울, 아내, 마키).

Q: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 보았다면 그 기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A: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동사무소를 통해 OO결혼이민자센터를 안 것 같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행정기관이나 시설로부터의 소식지나 홍보물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였음을 밝힌 남편들이 다수 있으며 이는 서울이나 전남 지역 모두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 경우 공공 소식지나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 남편이 부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에 있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언급할 사적 채널의 여러 유형 가운데 남편으로 거론된 사례 중에도 공공 소식지나 홍보물→남편→부인 등의 경로였음을 확인케 하는 경우<2-1-13, 전남, 아내, 팜티엔/ 2-2-13, 전남, 남편, 길수찬>가 많다.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남편은 공적 채널을 매개하는 주요한 사적 채널 중

하나인 셈이다.

Q: 센터에서 공부도 하고, 요리교실도 한다, 노래교실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어디에서 한다는 말을 누가 가르쳐줘요?

A: 예, 저는 신랑이 다 가르쳐줬어요. 남편이 이야기 많이...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Q: 지금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게 된 건가요?

A: 신문, OO신문을 보면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국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번 OO신문이 나오지만, 세 번에 한 번 끝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주여성 내용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접하게 됐죠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한편 본 연구에서 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출신국의 친구나 선배들이야말로 중요한 사회서비스정보 제공자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데<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특히 서울에 비해 전남에서는 이 경우에도 역시 남편이 중요한 매개자로서 역할을 취하고 있다<2-1-13, 전남, 아내, 팜티엔>.

Q: 거기서 한글교육 한다는 정보는 어디서 알게 되었나요?

A: 그냥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Q: 친구는 어떤 친구가요?

A: 필리핀 친구...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필리핀 친구들 만나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Q: 그 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누가 처음에 데리고 왔어요?

A: OO아빠, 베트남여자 소개 했어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그밖에 지역에 따라 사적 채널상의 특징적인 차이를 드러낸 예로서는 서울에서 ‘인터넷’을 지목한 사례<1-1-13, 서울, 아내, 따디/ 1-2-2, 서울, 남편, 최동철>가 눈에 띄거니와, 여기서도 또한 매개자로서의 남편 역할이 확인된다.

Q: 최근에는 결혼이민자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 지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많이 알 수 있어요?

A: 네. 주로 인터넷에서 구청 사이트 가서 본다거나 건강센터 가서 본다거나. 좀 쉽게 알아요. 요즘엔 (1-1-13, 서울, 아내, 따디).

A: 전부 제 손으로 다 하니깐 남에 대한 의지는 많이 없었어요. 저 스스로 많이 도와준 거 밖에는 없었어요.

Q: 그런 정보는 어떻게 다 알게 되신 거예요?

A: 인터넷으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그리고 또 제 전공도 있고...(중략)...일단은 집사람이 말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만 되니까... 일단 복지관이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의를 해봐요. 거기서 이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전화상으로. 저희가 먼저 묻죠. 한국어 교육만 있느냐, 홈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쪽으로 가라고 제가 알려주죠. 무료요리 실습도 있고 시간이 있으면 다, 외국여성이 복지관에서 참 배울게 많아요. 다양하니깐,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한편 전남 지역에서 매스컴을 통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였음을 언급한 사례<2-2-14, 전남, 남편, 서우진>도 남편이 TV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역시 남편이 중간전달의 역할을 맡고 있다.

Q: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런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A: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회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여섯시에 일어나 회사 가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일곱 시 씻고 나면 뭐 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우연히 티브이에서 지나가는 말로 OO에서 외국인 주부 교육을 한다는 것을 언뜻 듣고....

Q: 티브이를 통해서요?

A: 예, 그 다음날 시청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소개 받았던 것 같아요. 몇 달 걸렸어요 (2-2-14, 전남, 남편, 서우진).

이상의 면담결과로 보건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서비스 정보를 인지하게 된 경위라든가 정보 제공자 등 접근 경로로는 다양한 유형의 공적 및 사적 채널이 동원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중간 매개자로서의 남편 역할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이는 공·사적 채널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어, 공적채널→남편→부인과 같거나 또는 사적 채널→남편→부인/남편→사적채널→부인 등의 경로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모양새가 많다. 또한 서울에 비해 전남지역에서 특히 이 같은 남편 역할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는 아무래도 전술한 바 있듯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이라든가 지역 사회 내 존재감의 차이 등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서울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보니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정보 인식력이 취약한 만큼, 전남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이 부인의 사회서비스 접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인 데다 덧붙여 무엇보다 자신의 아내들이 표 나지 않게 조속히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탓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다음에 보게 될 사회서비스 접근 동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다. 접근 동기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게 된 동기는 ‘의사소통’이라든가 ‘일상생활 적응’ 또는 ‘자녀교육’ 등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밝혀,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동기부여가 특별히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가령 10여 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결혼 전 경력을 살려 입국 후에도 사회활동을 해보려는 노력을 늦추지 않았던 서울 지역의 한 여성결혼이민자도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고서야 그것도 ‘우연히’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알게 되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되는 사례들

도 남편의 입을 빌자면 그나마 사실은 오랜 기간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 결과이기도 하다<1-2-1, 서울, 남편, 송철민/ 2-2-5, 전남, 남편, 원성필>. 따라서 이들의 우연한 접근은 자발적 노력의 소산인 셈이다.

OO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이라고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복지관이 있더라고요...(중략)...복지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민, 이주여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떠요. 들어가 봤더니 어 이런 게 있었네. 알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Q: 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으세요?

A: 그건 저는 관심을 안 가졌고 집사람이 본인이 자꾸 여기에 가가지고 이걸 알았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또 알게 되고 그러는 거지 저는 좀 많이 안 가졌어요, 집사람 스스로가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Q: 부인이 여길 어떻게 알고 다니게 된 거예요?

A: 이 사람이 여기 저기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 이런데서 좀 관심 있게 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저기하니깐 뭐 좀 배워봐라, 배워봐라 이것 저것 찾다가 여기 센터 발견해서... (2-2-5, 전남, 남편, 원성필).

그렇지만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어 구사에 별 무리가 없어 입국 이후 사회적응을 크게 걱정하지 않기 마련인 조선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조차도 언어생활상의 차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와중에서²⁶⁾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도 이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만으로 사회서비스 체계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동기 부여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할 바는 아님이

26) 심지어 전남지역의 한 사례(2-1-5)를 보면, 비록 조선족 출신이긴 하나 조선학교를 다니지 않은 데다 부모마저 별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각한 언어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2-1-5).

분명하다. 게다가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학력이나 결혼 전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고 보면, 일정 기간의 사회적응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서비스 요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향후 이처럼 자발적 동기 하에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실질적이고도 빠르게 포착해내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사회서비스에 접하게 되는 사례<2-2-8, 전남, 남편, 김태근>도 발견된다. 말하자면 비자발적 동기로 사회서비스에 접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경우인데, 입국하자마자 신속하게 이 같은 사회서비스에 접할 수 있었던 전남지역의 몇몇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2-2-13, 전남, 남편, 길수찬/2-1-15, 전남, 아내, 주티안>는 모두 이 같은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어떻게 이런 경우에 있어 남편의 역할은 상당히 결정적이다.

Q: OO로 이사 와서 아내가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A: 문화교육도 많아 받고, 말을 엄청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Q: 그런 기관을 어떻게 알고 가셨나요?

A: OO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가라고 했지요 (2-2-8, 전남, 남편, 김태근).

Q: 부인께서는 (입국한지) 얼마만큼 있다가 센터에 나오게 됐나요?

A: 저는 자량이 아니지만 4월30일에 와가지고 5월1일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묘하게 그 날이 바로 월요일이라 바로 찾아 갔습니다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Q: 이 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A: 베트남에서 처음 왔는데 일주일 후에 시숙님하고 남편하고.... 예, 센터에 데려왔어요 (2-1-15, 전남, 아내, 주티안).

사실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체적인 동기를 지니고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있어서 남편의 관심과 권유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로지 남편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국땅에 발을 내디뎠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입국 직후 남편의 존재는 사실상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나 진배없을 것이다.

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의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게 된 시기는 대략 2005년을 전후한 무렵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서울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면사무소라든가 시설 등의 공적 채널에 의한 직접적 연락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도농 간의 생활환경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달리 보자면 대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오히려 사회서비스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정보 전달 체계나 수단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 과정에서 우선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수혜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직접적 자각과 인지에 의한 자발적 접근임에야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결혼 및 입국을 전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소정의 절차마다 그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을 소상히 알려주어 국내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예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의 또 다른 장본인으로 사회서비스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름 아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다. 서울에서든 전남에서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은 아내가 사회서비스에 접근하기까지 다양한 공·사 채널을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로서,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 동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결혼을 전후하여 남편 대상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서비스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가 요구되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남편들의 사회서비스 요구도 함께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에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심층면접에서 결혼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결혼한 이후 입국절차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밝히거나 부인들 못지않은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토로하는 남편들이 있는가 하면, 의견상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이 매우 화목해 보이는 부부 조차도 부인과의 심각한 인식차이를 드러내는 남편의 사례도 발견된다. 이러한 남편들도 결국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수요층이라 할 만 하다. 따라서 당사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요구는 물론이고 남편의 요구까지 아우른 사회서비스라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접근도 제고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가.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

1) 전체 사회서비스 내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입국하여 현재까지 경험한 사회서비스의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와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IV-7>에서 보듯이 입국초기에 외국인 등록 등 출입국관련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한국어와 예절 교육을 다양한 기관을 통해 경험하며,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와 방문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입국 초기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좀 더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경험하지만, 대체로 임신·출산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경험한다.

사회서비스 내용은 한국어교육, 산전·후 관리와 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보편적이며, 아동양육기에는 보육비 지원과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경험한다. 직업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다양하지는 않으며, 전(全)단계에 걸쳐 한국문화체험, 여가활동프로그램, 상담서비스, 가족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기관으로는 교회, 동사무소, 구청, 지자체, 학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건소, 복지관이 해당되며,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지원방법은 초기에는 정보제공과 관련기관 안내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집합교육의 형태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임신·출산기와 아동양육기에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많고, 점차 기관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표 IV-7〉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내용(전체)

단계	생애주기	경험한 사회서비스	목적	지원기관	지원방법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에 대한 예절	가족간 의사소통,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사회참여	교회, 복지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동사무소, 지자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집합교육
		행정적 도움: 국적취득, 비자	외국인 등록, 국적취득 절차 이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2단계	임신·출산기	산전관리: 보건소(검진, 철분제나 영양제, 산모교육)	산모 및 태아의 건강관리	보건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관방문, 방문서비스
		예방접종서비스, 영양제 제공, 육아정보 제공	다문화가족 모자의 건강증진		
		산후관리: 보건소(육아교육), 행정기관(물품, 양육비 지원), 센터(산모도우미 서비스 연결), 선 경험자와 연결	다문화가족 출산후 보살핌 노동의 제공		
		산후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단계	생애주기		경험한 사회서비스	목적	지원기관	지원방법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다 문 화 가 정 의 자녀 보육지원	구청	
			아동양육도우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 민여성과 자녀 에게 한국어 교 육, 양육방법 교 육, 상담	결 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찾 아 가 는 방문서비스
		취학후	문화체험 및 역사탐 방 기회 제공	부족한 문화체 험기회 제공 및 역사 교육	결 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	야외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 교육 지원	결 혼이민자가 족 지 원 센 터, 학교	학교, 기관 방문
			상담 및 부모교육	아동의 학교 적 응을 돕고 학부 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결 혼이민자가 족 지 원 센 터, 복지관	기관방문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직업교육: 정보화교 육, 통역사 양성교 육, 원어민교사 양 성 교육, 아이돌보 미	결 혼이민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	결 혼이민자가 족 지 원 센 터, 구청	기관방문	
		직업소개			기관방문	
전(全)단계			음식, 전통문화(예 절, 무용 등), 축 제 참여, 유적지 탐방	교양 함양	교회, 복지관, 결 혼이민자가 족 지 원 센 터, 지자체	집합교육
			취미생활: 노래, 종 이접기, 악세사 리 만 들기 등	여가활용		
			가족문제 상담, 부 부 교육, 캠프 참 여	가족생활적응		방문서비스, 기관방문
			행정적 도움: 국적 취 득, 비자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취득		

2) 지역별 차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를 서울과 전남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⁷⁾ 아래 표에서 보듯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장 많이 경험한 사회서비스로는 입국초기의 ‘한국어교육’과 취학전·후 아동양육기의 ‘방문아동양육지원’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건소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 한국문화이해교육이나 현장체험을 비교적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다른 생애주기 보다도 아동양육기에 보육비 지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서울지역)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횟수)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8)/ 집합교육, 방문교육 포함
2단계	임신 · 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4)/ 보건소 찾아가는 임신,출산지원(2)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8) 아동양육지원(3)/보육비지원 이주여성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2)/ 역사탐방 등 찾아가는 서비스(1)/ 한글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6)/ 학습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학교생활지도 등 방과후 프로그램(3)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2)/ 컴퓨터 아동양육도우미 교육(1)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4) 다문화체험(3)/ 현장체험 부모교육(2) 복지관 아동 학습 프로그램(2) 출입국 관리소 이민자 모임(1) 남편교육(1) 통역에 관한 강의(1) 부부상담서비스(1) 종교단체(5)/ 교회, 종교*(한글, 생활예절, 임신출산지원, 아기학교) 일본인회(1) 기타

* 특정종교를 통하여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3개월 동안 교회에서 한글이나 생활예절 등을 배움.

27) 남편의 경우 아내가 경험한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서울(13명)과 전남(15명)의 여성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남편의 인터뷰 내용은 참고로 하였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입국초기의 ‘한국어교육’과 전단계에 걸쳐서 축제, 캠프, 탐방, 요리교실 등 ‘다문화체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에서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을 비교적 많이 받았고, 남편교육과 방문아동양육지원, 한국문화이해교육, 컴퓨터교육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여성결혼이민자가 입국하여 경험한 사회서비스(전남지역)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횟수)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14)/ 방문, 집합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9)/ 보건소 육아양육교육(2) 출산 지원 수당(1)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1)/ 산모도우미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4) 아동양육비 지원(2)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6) 찾아가는 서비스(1) 방과후 학교(1)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4)/ 컴퓨터 원어민 강사 교육(1)
전(全)단계			다문화체험(12)/ 축제, 캠프, 도자기, 유적지, 요리 한국문화이해교육(6)/ 생활예절 등 남편교육(7) 자녀양육 교육(1) 상담서비스(1) 종교(1)/ 입국 초 정서지원 기타

서울과 전남지역을 비교해 볼 때, 입국 초기에 한국어 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은 집합교육 또는 방문을 통하여 대부분의 가정이 경험하였으나 서울의 경우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기회와 서비스기관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입국 초기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

회가 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지역의 경우 거주기간이 서울의 여성결혼이민자들보다 짧은 점을 볼 때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서비스가 확대되어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임신·출산기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보건소를 이용하여 영양제나 예방접종 서비스를 훨씬 많이 경험하였다. 전남 지역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全)단계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이 축제, 가족캠프, 유적지 탐방 등 다문화체험행사나 남편교육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나 군단위로 단체 행사나 남편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학 전후를 포함한 아동양육기에 있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한 것은, 서울지역이 농촌지역 보다 서비스기관 이용과 정보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연령이 낮아 임신·출산기 서비스에 비해 아동양육기 서비스는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3) 부부간 차이

<표 IV-10>과 <표 IV-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경험한 서비스 내용을 서울·전남의 여성(28명)과 서울·전남의 남성(28명)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의 합을 나타내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응답한 내용 중 가장 많이 경험한 사회서비스로는, 입국초기에 ‘한국어교육’과 전(全)단계를 거쳐 생활예절 등 ‘한국문화이해교육’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에서 ‘영양제 지원과 예방접종’을 받은 것, 아동양육기에 ‘방문아동양육지원’을 받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컴퓨터교육’, ‘아동양육비지원’의 순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여성)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1단계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22)
2단계	임신 · 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13)/ 보건소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3) 육아 양육 교육(2)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 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12) 아동양육지원(5)/ 보육비지원 이주여성자녀를 위한 한국문화체험행사(2)/ 역사탐방 찾아가는 서 비스(1)/ 한글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12)/ 학습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학교생활지도 방과후 학교(4) 찾아가는 서비스(1)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6)/ 컴퓨터 아동양육도우미 교육(1) 원어민 강사 교육(1)
전(후)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19) 다문화체험(15)/ 현장체험 복지관 아동 학습 프로그램(2) 출입국 관리소 이민자 모임(1) 남편교육(1) 부부상담(1) 종교단체(5)/ 교회, 종교(한글, 생활예절, 임신출산지원, 아기학교) 일본인회(1) 기타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접 경험한 서비스와 그들의 배우자가 인지한 서비스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들은 아내가 경험한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경험도가 낮은 요인이 된다. 사회서비스 기관에 방문한 경험이 없거나, 아내가 혼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Q: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하기 전, 보건소나 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A: 음.....

(중략)

9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A: 나는 그런 것은 잘 모른다.

Q: 그럼, 아내 혼자 갔어요?

A: 혼자 다녔어요....내가 일하다 보니까....(중략) 집사람은 아이 때문에 주사 맞히러(예방접종) 다녔을 거예요 (2-2-3, 전남, 남편, 이강필).

Q: 둘째 아이가 어린데 출산 후에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A: 서비스?

Q: 지금 현재 아이들은 예방접종 같은 것은 어디를 다니세요?

A: 보건소를 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Q: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좋은 점, 부족한 점 그런 것 있을까요?

A: 이런 것은 집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나는 데려가 본 적이 없어서요 (2-2-9, 전남, 남편, 오태호).

〈표 IV-11〉 배우자(및 본인)가 경험한 사회서비스(남성)

단계	생애주기		사회서비스
1단계	입국초기-가족관계 형성기		한국어교육(20)
2단계	임신·출산기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7)/ 보건소 찾아가는 임신, 출산지원(3) 출산 지원 수당(1)
3단계	아동양육기	취학전	방문아동양육지원(9) 아동교육지원(3)/ 무상지원
		취학후	방문아동양육지원(4)/ 학습도우미 방과후 학교(2)
4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취업역량강화(5)/ 컴퓨터
전(全)단계			한국문화이해교육(9) 남편교육(7) 부모교육(3) 부부상담서비스(1) 통역에 관한 강의(1) 문화체험(1)/ 비빔밥 콘서트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1) 출입국 관리소(1)/ 대화방 종교(1)/ 입국 초 정서지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 보건소의 영양제 지원 및 예방접종, 방문아동양육지원, 문화이해교육 등 대다수의 여성이 많이 경험한 서비스에서 부부간의 응답 차이가 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상호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또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상대방의 일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남편들이 직접 경험한 ‘남편교육’ 부분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지역의 남편의 경우 도나 군, 읍 등에서 국제결혼을 한 남편을 대상으로 주최한 특강이나 교육을 받으려 간 경험들이 있었으며,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아 여성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2-2-6, 전남, 남편>과 같이 남편교육에 대해 ‘남편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또한 잘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도 나타났다.

A: 거의 남편들이 잘못해서 이혼할 확률이 많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에도 거의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해요.

Q: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A: 글썄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전문인.... 전문지식? 결혼이민자 가정의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등.. (중략)

Q: 그럼, 소양교육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A: 남자들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진짜 바빠서 안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데도 안 간단 말이에요. 교육이 또 지루하잖아요. 앉아서 받으려면....(2-2-6, 전남, 남편, 이상훈).

다문화체험행사 중 비빔밥 콘서트는 다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비빔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듣는 행사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였는데, 아내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남편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가족 또는 부부가 참여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보인다.

Q: 남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 또렷하게 생각해 본 건 없는데요. 그런게 나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픈 생각이 있어요....어느 복지재단인가? 거기서 비빔밥 콘서트? 그런거, 여러 나라 사람 만났다는 의미에서 비빔밥 먹으면서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나 애들이나 집사람이나 부모님이나. 근데 행사 할 때는 좋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잊어지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자주, 하여간 그런 상대방 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의 전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임신·출산기에 보건소의 의료서비스와 방문서비스, 아동양육기의 방문아동양육도우미서비스 경험에 비해 입국초기와 노동시장(재)진입기의 서비스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초기야 말로 사회적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시기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호주의 경우 이민자가 국내에 도착한 시점에 통합된 정착서비스제도(IHSS)를 통해 첫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⁸⁾ 물론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의 사정과는 달리 가족단위의 이민자나 난민을 위한 서비스라 좀 더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효과나 문제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초기에 중개업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점차 생활적응에 필요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마련하고 필요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요청된다.

노동시장(재)진입기의 경우, 취업훈련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교육 정도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취업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첫째,

28) 공항에서 이민자 맞아들이기, 적절한 숙소 찾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공급, 이민자들을 호주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기, 소득지원관련 신청하고 일자리 찾도록 지원하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상담받기 등을 지원한다(무지개 청소년센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본국에서 무직이었던 경우는 전체 28명 중 5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던 여성이라는 점, 둘째, 본국에서의 이전 직업이 회사원, 통역사, 교사, 공무원, 매니저, 미용사 등인 점, 셋째, 취업 욕구가 강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과 취업연계를 위해 좀 더 다양한 취업서비스가 요청된다. 현재 이들 결혼이민자들의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실력이나 가족의 돌봄노동의 부담을 감안할 때, 취업하게 되는 시점은 단지 늦춰지고 있을 뿐, 향후 취업진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결혼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의 안정성 유지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은 물론 부부교육과 상담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지역별 차이에서는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보건소 이용, 문화체험, 남편교육의 경우 전남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좀 더 많이 경험한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취학 전후 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 좀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연령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성별 차이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이주여성 남편의 경우 육아 양육교육, 자녀와의 문화체험, 찾아가는 한글교육 등 배우자가 경험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이주여성이 남편이 남편대상교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모르는 점이었다. 현재 남편 교육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특강 외에도 결혼이민자가 족지원센터에서 남편의 다문화이해 또는 가족생활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예가 있다. 또한 최근 배우자와 가족 대상의 사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부와 법무부에서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참가자 평가 결과, 결혼이민자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법과 제도 설명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피해여성의 사례와 위장결혼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남편들이 불편하게 느꼈다는 평가가 있었다. 남편대상의 사전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참여도를 낮추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경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입국한 이후 그들이 경험한 사회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하였다. 즉, 입국초기, 임신 및 출산 전·후, 취학 전·후를 포함한 아동 양육기, 노동시장 재진입기 별로 구분하였다. 낯선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다양하고 긴박한 필요를 어떤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1) 입국초기의 경험

여성결혼이민자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경로는 총 28쌍 중 개인적인 지인의 소개가 10쌍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통한 결혼이 9쌍,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7쌍, 연애로 결혼한 경우가 3쌍에 해당되었다. 종교를 통해 결혼을 한 경우 대부분 일본과 필리핀 여성이었으며(6쌍), 서울에는 일본 여성 3쌍, 전남에는 필리핀 여성 3쌍이 모두 종교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이 모두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반면,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결혼초기부터 금전적인 이유나 기대와 동떨어진 현실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이 배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의 경로는 국적별로 서로 비교가 되는데 전남의 경우,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진 결혼 5쌍 중 베트남이 4쌍을 차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았는데, 서울의 경우 남편이 아내 보다 평균 7살이 높은 반면, 전남의 경우 평균 13살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여성이 가장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 전남의 베트남 여성 5명은 남편과 평균 21살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이 나이 차가 가장 적었으며 평균 5살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와 배경으로 한국에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에 결혼에 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중개업체나 종교, 개인적 소개 등 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난 여성들은 자국의 남성에 대한 실망과 함께

다른 장점을 가진 외국남성에 대한 일정한 기대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연애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결혼한 여성들은 가족과 배우자로부터 좀 더 이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어느 경우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국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점이다. 문화적 차이로 시댁관계의 어려움, 입에 맞지 않는 음식, 생활방식의 차이, 국적 취득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가) 언어 및 문화적 차이

가장 먼저 말이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를 매개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혼자 배우기에는 한국어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누가 말을 거는 것도 두렵고 불안하다.

말이 안 통해서.. 말은 하고 싶은데 한국말은 못하니까 속상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영어단어를 서로 단어로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그 영어단어를 한국어로 다시 설명해주면 다시 그걸 익혔어요 (2-1-1, 전남, 아내, 티나).

혼자서 공부했어요. 한국어 공부 너무 어려워요. 답답해요. 많이 답답해요. 맨날 싸워, 많이 싸워요. 신랑하고 많이 싸워. 말이 안 통하니까...(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이웃에 아는 사람이 없고 한국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혼자 있을 때 누가 벨을 누르면 제일 두려웠고 막막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말도 안 통하고,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어장벽은 더욱 부부관계의 장애요인이 된다.

말이 통해야 살아먹지요. 말이 안 통하는데....머. 어머니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힘들었어요. 그 일본여자들 눈치가 뵈하잖아요. 눈치만 빨라서. 어휴... 말을 들어먹어야지, 말을. 아니, 물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아는데도 모르는 척해요. 에휴 속 터져. 왜 몰라. 난 말도 안 해요.. 이젠 말하기도 싫어... 처음에는 한마다도 못했지요. 밥도 몰랐는데 머. 힘들었어요. 한국년하고 살아야지. 어휴... (1-2-5, 서울, 남편, 조성환).

다문화가 공존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문화를 이해받고 생활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다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여 이에 반대하거나 내 방식대로 생활하려면 갈등이 야기된다. 입국초기에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어렵다.

와이프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문화가 틀리니깐 문화적 차이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 수위가 있고 따라 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와이프가. 왜냐면 자기도 몇 십년동안 자기 나라 양식대로 살아왔었는데 문화적인 차이라는 건 쉽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7년, 8년 살았으면서도... (중략) 그런 거 때문에 조금씩 말다툼하고 그런 거죠 (1-2-3, 서울, 남편, 이진철).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며, 특히 여성으로서 가정 내 부부역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힘들고, 한국의 집단주의 사고나 가부장적 문화에 불만을 갖기도 한다.

네 저보다는 와이프가 더 힘들었겠죠. 일본사람들 사고방식은 개인주의인데 저도 일본을 매년 가지만... 가보면 부모자식형제 다 따로따로예요. 개개인이예요. 생각, 사고방식이 가족이란 걸 인정은 하지만 한국하고는 틀려요. 차이점이 많아요. 부모님이랑 살면서 와이프가 그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본은 아니예요. 나는 이 만큼 했는데 너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도움을 받을 라고 그러냐. 이런 사고방식 이에요 (1-2-3, 서울, 남편, 이진철).

중국에서는.... 아니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아무 불만 없이 둘이 행복해요. 그 집 부모님도 주위에 가면요, 명절 때도 가면 시아버님하고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TV봐요. 완전히 반대예요. 한국하고. 제가 사는 데가 북쪽이 거튼요. 상해에도 여자 파워가 세다고 해요. 거기는 원래 여자들 파워가 세서 시키는 대로 남자가 다해요. 가사도 다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결혼이민여성의 일상생활 중 역시 식생활의 어려움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음식문화의 차이로 식사를 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한국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의 경우 한국음식에 맞추다 보니 훨씬 불편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서 제일 힘들었고 매운 김치맛과 청국장 냄새와 본국에서 못 보던 된장, 고추장 등 각종 양념 종류가 많아서 혼돈되었고 순대 등 맛이 이상한 것이 많아서 힘이 들었어요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음식도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다. 된장국 같은 경우에 여기는 멸치 국물 내 해 먹으니 까 처음에 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김치가 이상하게 맛이 조금 틀리데요, 이상하대요. 다른 건 다 못 먹겠대요 (2-1-11, 전남, 아내, 황련위).

국제결혼을 하여 생활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음식이 맞지 않는 거였어요 (1-2-11, 서울, 남편, 서범석).

음식문화의 차이로 기본적인 식생활이 불편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가족갈등이 된다. 부부가 상대방의 문화를 먼저 인정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경우 서로의 음식문화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다. 한국의 음식문화는 간단하지 않고 부담스럽다.

시아머니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할머니들 음식은 독특한 냄새가 나잖아요? 갓 김치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처음에는 같이 못 먹죠.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양파 김치 같은 것, 너무 냄새가 고약해 징그러워서 같이 못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생활습관 음식문화 이걸 많이 이해를 못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음식문화가 다양하거든요. 풍족하게 먹고 자라요. 여기는 매일 먹는 게 김치잖아요. 그거에 대해 불만스럽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밀반찬이 나오잖아요. 먹고 나면 또 냉장고에 넣고,... 시부모님 밥을 항상 차려 줘야한다는 거 자체. 제사, 그거 많이 불편해 했어요. 중국에도 제사란 게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성대하고 웅대하게 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밥 몇 가지만 놓고 과일 놓고 그냥 종이 태우고 끝이에요, 향 몇 개 피우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나) 일상생활에서의 갈등 및 불편함

남편의 직업이나 건강, 소득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듣지 못하고 급속한

결혼을 진행한 경우는 입국 후 사실을 알게 된 후 낙담과 배신감으로 부부간의 친밀성 형성에 장애를 겪기도 한다.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2-2-1, 전남, 남편, 김규범>의 사례에서 나타는 것과 같이 가족관계 상의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고부간 갈등이다.

관계가 중국며느리는 집에서 일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애기도 중요하지만 어른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근데 여기는 시어머니, 일안해요. 제가 다 해야 되니깐 힘들잖아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처음에는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죽을 거 같았어요. 어머니가 매일 매일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일본년이라고 하고... 나두 욕하는 건 알아듣거든요. 일본년...화...냥...년.. 이런 말. 죽고 싶었어요(...눈물...) 너..무 힘들었어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시댁사람들은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야 만족해하며 심할 때는 종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한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어머니는 아내가 밖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밖에 출입하는 것을 싫어했다. 시어머니들이 노인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오잖아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전처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더욱 불편하고 갈등이 되기 쉽다. 형제간 우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속상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부부간 싸움이 되기도 한다.

전처 아이들이 있는데 언어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너무 힘이 들고 13평 작은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항상 있어서 많이 힘든 상태이다... 동생에게 엄마가 잘 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는 것 같고 동생에게 정답게 대해주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나 같은 경우는 동생들 도와주려고 보증도 많이 서주고 돈도 많이 대출해줬는데 와이프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직장생활하고 자기들이 버는데 왜 도움을 받느냐,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윗사람이 도와주는 것을 형제들끼리 도와주고 친척들끼리 도와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거 이해시킬 때 많이

싸우죠 (1-2-3, 서울, 남편, 이진철).

그 외에도 날씨나 주거생활의 차이도 불편하고 적응해 가야하는 생활의 일 부분이다.

그 때는 겨울이잖아요? 두꺼운 잠바를 안 입고 왔어요. 그냥 얇은 옷을 입고 와서 공 항에 와서 ‘아 거짓말했구만, 날씨가 춥다고 했는데 안 춥네’ 했는데(당연히 공항 안이 니까) 밖에 나가니까 추워서 덜덜 떨었어요. 아이고, 추워.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얇 은 옷만 입다가 두꺼운 옷을 입고 내복을 입으니까 (2-1-9, 전남, 아내, 리아).

본국에서는 침대 생활을 했는데 바닥에 앉고 자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결혼이민여성을 하위계층으로 보는 주위의 편견, 입국초기의 도움의 부재, 남편의 아내 활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생활은 기대 에 많이 못 미치고, 답답하고,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한다. 사회의 편견과 이들 가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1-2-5, 서울, 남편, 원성필>, <1-2-13, 서울, 남편, 민기범>와 같이 남편이 더욱 민감하게 경험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 주위에 결혼이민자가족들 사이가 안 좋은 많은 경우를 보면 몽골이든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아내의 나라를 하인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2-2-2, 전남, 남 편, 안민철).

아이, 도움받기는 뭘 받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거지. 전에 여기 센터인가 갔는데 못 다니게 했어요. 내가. 아, 그냥... 집에 있어도 다 배워요. 지금 봐요 다 배우고 잘하자 나요. 돈도 벌고. 그래도 여자는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1-2-5, 서울, 남 편, 원성필).

아무래도 그 저 사회적인 인식이 저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베트남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했다는니, 그런 식의 편견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 단일민족이라서.... 그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2-13, 서 울, 남편, 민기범).

그 동안 결혼이민여성들의 고충은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여전히 결혼이민 여성과 남편의 마음 속에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생활상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 오해와 갈등, 행정절차 상의 편의를 위한 대책과 공식적인 지원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

(2) 가족형성기의 도움

한편, 가족형성기에 처가를 도와주거나 한국어를 속히 익히도록 신경 써 주고 아내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등 남편의 배려와 격려, 감싸줌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가족의 따뜻한 지지와 더불어 복지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경험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기도 한다.

처갓집의 형편이 안 좋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도 처갓집을 다녀와서 많이 아내가 이해된 부분도 있었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제가 베트남 어머니 집 지어줬어요... 있는 돈 다 썼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지어 줬다고 해요. 하하...아마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전에는 비오면, 다 세고 했는데... (1-2-7, 서울, 남편, 이종길).

베트남 어머니 돈 좀 줬어요. 그리고 오백만원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집 없어서 맨날 고생해요. 이제는 걱정 없어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남편이 부인의 언어습득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것이 한국어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보람이 된다.

뜻을 설명해 주고 발음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될 때까지 20-30번 계속했다. 와이프도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아내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내의 편의를 위해 분가도 하고 아내 편에 서서 감싸안으려고 노력하지만, 대신 부모와는 멀어지기도 한다.

만약에 집사람이 말레이시아 분이려면 말레이시아 문화라든가, 많이 알게끔 최대한 그 쪽밖에 조언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남편들이 그쪽에 많이 시간투자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낯설거든요. 생소하거든요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분가했어요. 집사람 위주로 배려를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도 집사람을 많이 감쌌어요. 말도 안 되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니까, 그 사람을 배척을 하고 부모를 감싸았으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거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오히려 많이 반대로 나가니까 부모님하고 사이가 많이 멀어졌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도 중요하지만, 한국생활에서는 시부모님과 형제, 이웃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도움이 많이 된다.

거의 관계가 좋아요. 시부모님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나쁘게 할 수가 없고, 잘했다잘했다, 나가면 우리 며느리 착해 이러시니깐...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제 쪽 입장에서 보면 와이프가 조금 고집이 있다. 그래서 아버님이 풀어준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칭찬을 해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한다, 잘 한다’ 그렇게 말을 해 주어야... 이웃들도 도움을 쉽게 생각하면은. 농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하는 방법 등 도움을 조금씩 주시지요... 칭찬을 곁들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많이 도와 주셨어요. 처음에 6개월 동안 우리 둘째 형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청소, 빨래 다 가르쳐 줬어요. 둘째 형님이 집에서 살림 사는 것, 다 가르쳐 주셨어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3) 입국초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국초기에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국어 교육이다. 현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시민단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진행 중이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지원센터도 없었잖아요. 배우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집에서 그냥... 그때는 시민대학 그런 것 있었어요. 그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로 가르쳤는데 저는 영어 안 통하니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시민대학 다니고 여기 동네 동사무소에서 할머니들 위해서 한국어 가르치는 것 있었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복지관은 2006년도에 한 3개월 다녔어요. 외국인은 저 혼자였는데 수준이 안 맞았어요. 한국어 배운 곳은 동사무소, 지역복지관, 지원센터...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언어 소통 부족으로 ○○구 ○○ 센터에서 한글학교 통해서 한글 배우게 되었다. 친구들 소개로 알게 되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대학교에서 한글만 배웠어요. 한국말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 필요해요. 말도 필요하고 발음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직접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어린 자녀가 있거나 지리를 모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기관까지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직접 가정으로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올해는 집으로 선생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배우든지 집으로 오셔서 배우든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말 배우는 시기에 아이를 위해서 아내가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2-2-3, 전남, 남편, 이강필).

집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셔서 많이 배워요.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군청에서도 연락이 와요. 편지도 와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와요. 그래서 알고 배워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한글교실이 아직은 초급, 중급, 고급 등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초보적인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들 여성들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비자발급을 받는 것과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절차를 밟거나, 자녀의 숙제를 돌보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나 자녀의 증세를 설명하거나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제공되고 있는

교육수준이나 질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정보를 몰라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어교육기관이나 기간,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차차 익히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부인이 ○○센터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어요. 학생들이 많아서 꼼꼼히 배우지 못하고 시간에 비해 양이 많아서 예습을 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거긴 처음에는 분기별로 지나면 못 들어가는데 었거든요. 지금 다니는 데는 수시로 자리가 있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도 규정대로 시간 지나면 안 받아주고 그런 데가 아니라 언제나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사회서비스 현황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대부분 응답하였다. 지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복지관이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왔을 때도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한글을 배우거나 참여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부러워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2) 임신·출산기

(1) 임신·출산의 경험

이주의 상황에서 자녀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이는 한국에서 유일한 ‘자기사람’이며,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확실한 끈이다. 자녀는 한국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적응하면서 살도록 독려해 주는 존재이며, 한국사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리라 기대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외국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시기다.

자녀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가족이 손

꿈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임신이 빨리 되지 않으면 혹시 불임에 대한 염려를 하기도 한다.

임신이 좀 어려워요. 아이가 생겨도 자연유산하고, 몇 번 했어요. 한 3-4번 정도, 9개월 정도에는 아이를 유산시켰어요. 아이 심장 안 좋아요. 아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아주 어렵게 큰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힘들었어요 (2-1-8, 전남, 아내, 말리카).

결혼 초기에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지고 임신 중에 아직 맞지 않는 한국음식을 먹기가 힘들어 고향음식이 더욱 그리워질 때이다.

음... 큰 딸 임신 했을 때, 필리핀 가고 싶고, 음식 못 먹어서... 고생 했어요. 먹고 싶었는데 그냥 생각만 하면서, 참았어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임신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임신했을 때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서 진짜 한국음식 진짜 뭐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못 먹겠더라구요. 베트남음식만 찾아요. 도대체 못 살겠어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다행히 쉽게 임신이 되면 가족의 축하를 한 몸에 받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입덧의 고통과 임신·출산교육의 부재로 출산과정의 두려움을 경험한다. 출산으로 가족이 기뻐하고 도와주는 것이 고맙다. 출산 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시기이다.

애기 요즘 많이 생기고, 애기 처음에 임신할 때 너무 불안했었는데, 외국사람 위한 거 없었고, 산부인과 가면 일반 젓먹이는 거 교육을 안 받아서 분유 먹었어요. 애기 키우는 법은 책보고, 일본책을 읽어 주고 그래도 틀린 거 있잖아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1-1-13, 서울, 아내, 따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이 국 끓여주고 한 3-4일 동안... (2-1-8, 전남, 아내, 말리카).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어머니 집으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맨날 와요. 시어머니 고마워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특히 산후조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낯선 땅에서 친정의 도움은 고사하고 시부모나 친척도 없이 홀로 해산하고 산후조리를 해야 할 경우 정서적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때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아직 말도 말 못하는데 우리 엄마도 안 계시니깐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니깐 제가 애기 나기 전에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좀 도움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애기 낳고 우리 시어머니 내일 여행 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처음 애기 나면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 밥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안계시니까 집에 가서 중국집요리 시켰어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2) 임신·출산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임신전의 산전관리로는 보건소에서 임신 중, 건강검진과 철분제 제공 등 산모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 필요한 정보와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보건소를 다니면서 영양제를 공급받고, 출산에 대한 예비지식과 출산후도우미의 정보를 통해 무사히 자녀를 출산하기도 한다. 또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건소 서비스가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된다. 임신·출산기에 전남 지역의 경우 서울지역보다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한다.

보건소에서 날마다 철분제 주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예방주사도 맞았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우리 시골에 이것 배 농사 하니까 보건소에서 좀 다 해주고 아니면 돈 안 받아서 주사 맞춰주는 것 있잖아요. 그거요 아니었으면 시내 아니면 다른 데에서 살았으면 그건 비싸요 (2-1-2, 전남, 아내, 온드라).

또 병원에 갈 때 보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병원에 갖다 주면 3만원 초음파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봐 준다고 하여 그렇게도 했다. 임신, 출산교육도 ○○읍으로 다니면서 배웠어요. 정말 좋았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교육을 받았어요. 젓 주고 아기 어떻게 키우나 가르쳐 주셨어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보건소에서 애들 마사지도 배웠어요 (2-1-5, 전남, 아내, 위선).

출산이후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맞추러 갔었는데 기본적인 절차만으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1-1-12, 서울, 아내, 마키).

보건소의 의료진들이 좀 불친절해서 언짢은 경험도 하는데, <2-2-3, 전남, 남편, 이강필>은 마치 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Q: 임신을 하거나 임신을 하기 전, 보건소나 타 기관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A: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불친절하더라고요. 그것이 속상했어요...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가끔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Q: 똑 같이 돈을 내고 있는데...

A: 네. 똑같이 돈을 내고 있는데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외국인이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참고 말았는데, 속이 무척 상하더라... (2-2-3, 전남, 남편, 이강필).

출산 및 산후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소의 육아교육, 행정기관의 물품 등 지원, 센터의 산모도우미 서비스 연결, 출산도우미 파견 또는 자금지원, 선 경험자의 멘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 아동양육 도우미.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하고, 목요일 나 그 친구 좋아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애기 낳고, 산모도우미라 해가지고 그 도움 받아 봤어요. 집에서 받았어요 (2-1-14, 전남, 아내, 하티빈).

면사무소에서 출산도우미 자금 지원을 받았고요. 저는 주민등록이 시골로 되어있지 않아서 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받지 못했고 아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일손 도우미 수당(한 달 정도 일손을 쓰라고 도움)을 받았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국가에서 제공하는 출산 후 지원제도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었다. 물품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역시 전남지역의 경우 지원이 다양하다.

면사무소에서 애기 낳을 때 기저귀도 주고 애기 로션도 주고 했어요 (2-1-2, 전남, 아내, 온드라).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 받아 보았어요 (2-2-4, 전남, 남편, 임병길).

둘째 아이는 낳고 많이 줬어요. 30만원 상품권 주었다가 기저귀 같은 선물 한 박스를 주었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임신하고 애기 낳았을 때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와서 애기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봐서 돈을 받았어요 (2-1-4, 전남, 아내, 텡기스마).

출산 이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산후조리이다. 출산도우미는 한국으로의 결혼이민생활을 먼저 경험한 같은 출신 국가의 결혼이민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출산도우미로 활동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결혼이민여성에게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몸조리 같은 것도 여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센터에서 같은 나라 친구한테 도우미 아줌마 좀 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해 줬어요 (2-1-9, 전남, 아내, 리아).

산모도우미 베트남 사람이 와서 밥하고 애기 목욕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20일 동안 받았어요. 좋았어요 (2-1-14, 전남, 아내, 하티빈).

센터에서 만난 이주여성 아이를 먼저 갖고 키우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을 보고 배우고 많이 느끼고 한 것 같아요 (2-2-7, 전남, 남편, 최시환).

입국초기를 지나 임신·출산기가 되면 보건소와 지자체의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었고,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의 어린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출산과 산후관리를 위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산후관리와 자

녀양육지원에 있어서 먼저 결혼이민생활을 경험한 가족과의 연계로 경험을 공유하여 스스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3) 아동양육기: 취학전·후기의 경험

자녀 출산은 남편과 시댁에 아내와 며느리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일 뿐 미숙한 엄마로서 육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시부모와 자녀양육에 관한 견해가 다르거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육아의 부담은 더욱 크다. 자녀교육에 관심은 많으나, 보육시설, 문화센터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시설의 교육은 어느 정도고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아직도 감이 안와요. 애를 시키려면 동사무소로 보내야 되는지, 체육센터, 문화센터로 가야 되는지, 이 프로그램의 질의 차이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몰랐고 주위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구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자체개념이 없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한편, 그들의 기쁨이자 소망이었던 자녀들은 성장할수록 어머니나라의 문화의 차이와 어머니의 미숙한 한국어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잦게 된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미숙이 오히려 자녀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며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문화적, 언어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여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가 능통한 남편조차 자녀의 교육에 무관심할 경우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네에. 너무 속상합니다. 말을 하자고 해도 안하고 집에서... 친구 집에만 있고. 말도 안하고. 애들한테는 성질만 내고. 나는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서도 불안하고. 말이 안 통해서 화만 내고 술만 먹고. 문화도 다르고... 화만 냈어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 미카).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죠? 자주 그래요 큰애가. 처음에 올 때는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하라 그러죠... 엄마 때문에 잘못 된 거니까 애는 제대로 했는데. 엄마 쓰는 게 틀려서 스티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 해달라고해요. 아빠

가 시간 있으면 잘해줘요. 근데 일하면 애기랑 많은 시간이 없잖아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교육도, 엇그제도 그래서 말다툼했는데, 애들이 뭐 안 되면 다 당신 뉘아서 그래. 그 말을 딱 던지니깐 너무 상처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교육을 하든가 교육은 하나도 안하고 신경도 안 쓰면서 하는 사람한테 잘못되면 다 너 탓이야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초등학교의 사전지식 없이 학교를 보내게 되므로 자녀의 준비물을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며, 자녀의 남다른 외모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 부적응하며 성적이 부진할 때의 마음 쓰라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신의 모국어 사용과 꾸준히 언어교육을 시킨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계화에 걸 맞는 국제교육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어 오르기도 한다.

애가 처음 취학할 때 힘들어 했거든요. 첫 번째요. 교과서 챙겨줄 때, 짝궁교과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애가 복도에서 벌섰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학교 갔을 때 상처받아요. 엄마 때문에 나 벌섰잖아. 다른 애들은 다 짝궁 있는데 왜 나만 안 가져왔어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저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제 걱정도 되고 애기, 엄마도 되니까 많이 배워야돼. 나중에 애기 크면 요렇게 엄마 애기 말하잖아. 엄마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리고 엄마 말하고 싶을 때 애기가 알아들어야 돼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저는 자주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니깐 우리 애기도 중국말 한국말보다 더 잘해요. 둘째 애도 중국말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첫째는 진짜 정말 잘해요, 하고 싶은 대로 나와요. 근데 한국말은 아직까지 그 정도 아니예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3) 아동양육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아동양육기에 받은 대표적인 혜택은 아이 보육시설이용 비용의 지원이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양육자인 어머니의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아이의 한국어 학습을 고려해 이용시기가 이른 편이고 따라서 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다. 피면접자 중 <1-1-2, 서울, 아내, 하홍린>,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등과 같이 보육비 지원에 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면접자가 많았다.

애들 둘 유치원 보육비 받았어요. 둘째는 무료이고 첫째도 많이 빼줬어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어린이집. 첫째는 세살 때. 둘째는 두 살에 보냈어요. 엄마가 한국어가 잘 안되니까 애들 빨리 배우게 하려고 어린이집에 같이 보내게 됐어요. 지원받아서 한 명당 5만원 내요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큰 아이 어린이집에 18개월부터 보냈어요. 둘째를 임신해서 (2-1-8, 전남, 아내, 말리카).

정부혜택을 많이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2-2-6, 전남, 남편, 이상훈).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냥 저소득층 가정이라 지원 받아요. 또 정부에서 바우처 제도 지원 받아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아동양육서비스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이고 이에 대한 기대 또한 컸다. 1주일에 두 번 2시간씩 방문지도사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아동양육법에 대한 교육, 요리지도, 한국어 지도 등의 내용을 진행하며 아동을 대상으로는 학습지도, 한국어지도, 학교생활지도 등을 진행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지도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받아본 서비스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방문서비스,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 부모교육, 한국요리, 한국어, 아동학습지도와 학교생활지도 (1-1-8, 서울, 아내, 미사토).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양육 방법을 배우고... 그동안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다 물어볼 수 있고 자녀와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랐는데... 조금 친숙해 지려고 하니 끝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이웃과 대화를 할 수 없었는데 속 깊은 대화를 하고 부부상담도 해주셔서 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아내의 얼굴도 많이 환해져서 가정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선생님이 책 같은 것도 가져다주고 중간 중간 아이들에게 책을 가져와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계속 하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잘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아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 양육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방문아동양육지원 서비스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소 해소된다. 그러나 아동양육 도우미의 경우 도우미의 전문성, 5개월 정도의 짧은 서비스 기간, 비체계적인 교육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도움은 많이 됐는데 다른 나라 말을 5개월 만에 다 배울 수 있다는 생각하고 그 나라 문화나 풍습을 5개월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2-2-2, 전남, 남편, 안민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양육법에 대한 지도가 유용하였지만 지나치게 아이가 선생님께 의존적으로 될까봐 걱정이 된다 (1-2-12, 서울, 남편, 정우영).

초등학생 큰 아이는 방과 후 학습을 받고 있어요. 공부방. 학습부분 도움을 받을 목적이에요... (중략)... 그런데 방과 후 공부방이 없는 날에는 혼자 집에 와서 멍뚱뚱하게 지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이랑 놀고 주말에 야외 참여하고 있습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아이의 예방접종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2-1-3, 전남, 아내, 오양가>는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 예방주사 맞출 때 보건소에 가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잘 도와줘요. 아이 예방접종 일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족 전체의 체험 프로그램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문화체험과 가족 나들이할 여유가 없는 다문화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역사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가족 전체

가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센터에서 가족 전체가 영화 보는 거 좋아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자연생태박물관 애들하고 같이 갔었다 (2-2-5, 전남, 남편, 원성필).

역사탐방에 참여하였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아동의 취학기에는 어느 부모나, 아이의 학습능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커진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아이의 학습 지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아이의 학습능력이 뒤처진다거나 결혼이민여성 스스로 아이 지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큰 딸은 학원 보냈어요. 둘째 딸은 ○○복지관 다니면서 국어, 수학 배워요.... 방문교사가 집에 와서 학교공부 떨어지는 것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아이의 취학은 부모에게나 아이 자신에게나 큰 변화이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첫 애가 학교 들어가더니 1학년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아동심리상담을 두 번 받았어요. 무료로. 요번 달에 ○○복지관 만(있고). 우리 복지관은 없어요. 최근에 이거 있는지 알게 됐어요. 외국인은 없고 한국인, 외국인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였고 일본인 대상, 지금 ○○복지관 부부교육에 들어갔는데도 참가 못 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식사당번 하는 거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있어요. 부모님 교육 학생교육 (2-1-1, 전남, 아내, 티나).

취학전·후 아동양육기의 사회서비스 경험은 결혼이민여성 자녀의 연령상으로도 아직 취학후보다는 취학전 사회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서비스 중 보육비 지원과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가족전체가 참여하는 체험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취

학 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방문교사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있고 부모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경험하고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4) 노동시장(재)진입기

(1) 노동시장(재)진입기의 경험

우리 사회에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급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제결혼시기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가장 많으며, 12세 이하의 비중이 92%(2006.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볼 때 취학전기의 영유아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을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보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서서히 노동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친정어머니 와 있으니깐 언니한테 물어보고 힘들면 언니한테 얘기하고 그거 밖에 없었어요. 혼자 알아보고 와서 취직하러 다니고..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어 교사 모집하는 거 몰랐어요. ○○대학교의 그분한테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가 취약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회에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1-1-1, 서울, 아내, 왕차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그들은 자국에서 고학력으로 회사원, 통역사, 교사, 공무원, 매니저, 미용사 등의 직장생활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직장을 얻기는 매우 힘이 들며,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 노동이나 파트타임도 찾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한다. 통역사의 경우 무료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적어도 교통비 지원이라고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민연금 들어가는 것 밖에 없고 현 상태에서는 노후를 생각하고 계획할 여유가 없어요. 집에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요즘은 거의 다 무료봉사예요.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복지관에서 번역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요. 재혼자녀분한테. 무료봉사다 보니깐 일단 저희는 일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근데 봉사는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시간대에 자녀보육도 문제고, 남편이 돈도 안 벌고 봉사만 한다는 눈치고, 일본어는 교통비는 나오거든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한, 두 가지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의 체계가 부족하여 피교육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강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며, 기관에서 강사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여 이주여성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교육과 통역사교육 서비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학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진학을 성취하기도 한다. 이주여성 남편들 중에는 아내의 취업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활에도 좋고, 가계에 더 도움이 되므로 적합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한다.

남편도 아내의 취업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양육으로 현재는 어렵지만 그래도 활동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2-2-9, 전남, 남편, 오태호>의 경우는 처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맞벌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Q: 혹시 부인의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A: 취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또 말린다고 해서 그게 또 굳이 집에다 가둬 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거 같고, 근데 집사람한테 하라니까 대신 하라고 하는데 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돈을 떠나서 사람이 집에만 있는 다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Q: 혼자 있는 것 보다 차라리 나가서 뭘 배우든지...

A: 배우든지 다만 한 10만원을 벌더라도 나가서 활동하는 게 좋죠 (2-2-5, 전남, 남편, 원성필).

Q: 왜 아내가 취업하기를 생각하셨나요?

A: 나 같은 경우는 물론 처가 쪽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처가 쪽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혼자 벌어서는 벅차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만 도움이 되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Q: 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A: 작은 아이가 유치원 정도 들어가야지... 하루에 10시간씩은 못하죠. 잠깐 잠깐 아르바이트 형태로....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2-2-9, 전남, 남편, 오태호).

(3) 노동시장(재)진입기의 사회서비스 경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육아양육의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취업을 하고 싶어 하나, 아직 취업지원이나 정보제공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조사대상자 중 극히 일부의 여성만 정보화관련 교육서비스와 통역사 양성 교육 등 직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이민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인터넷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통로로서 중요하다.

한글 교육은 교회에서 5개월 받고, ○○구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 받았어요 (1-1-6, 서울, 아내, 안젤리카).

○○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엑셀)이라고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복지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민, 이주여성 프로그램이 있다고 떠요. 들어가 봤더니 어, 이런 게 있었네. 알고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정보화 교육도 2008년. 지금 복지관 다니는 거는 정보화 교육이니깐 복지관에서 정보화 교육받고 한국문화교육, 한글교육 고급과정하고 있거든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모국어 구사능력을 활용하는 통역사 양성 프로그램과 원어민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여성의 장점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원어민교사양성 교육의 경우 농촌지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에서 원어민 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필요성과 취업을 결혼이주여성들의 욕

구가 부합된 유망한 직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사 교육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원어민 강사 되기 위해서 교육받았어요 (2-1-12, 전남, 아내, 카렌).

한국에서의 생활을 미리 경험한 결혼이민여성이 다문화가정에 아이돌보미로 파견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수혜 결혼이민여성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파견되는 결혼이민여성은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이상과 같이 노동(재)진입기의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직업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주여성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거나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직업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사회서비스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비 지원이 시급하다. 아직까지는 자녀양육이나 가족 내 보호부담으로 인해 취업을 늦춰왔으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맞벌이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노동(재)진입기의 시기도 앞당겨 지리라 예측된다. 이 시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5) 전(全)단계

(1) 전(全)단계의 경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과 예절 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되지만 언어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자연스럽고 능숙한 한국

어는 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습득을 위한 환경조성과 개인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설명하는 능력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기관을 찾아가 배우고, 개인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는 수밖에 없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절반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남편이 무직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농촌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도 많으며, 결혼 초에 학력 등을 숙인 것이 드러나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한다. 남편이 장애인거나 알코올 중독일 경우, 심지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결혼의 갈등이 심화된다.

돈도 안 갖다 주고, 애들한테 화만 내고, 애들도 속 썩이고, 작년 11월부터 놀다가 4월 달 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또, 놀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일도 안하고, 담배만 피고, 속상해요. 흑흑.....(호느낌...) (중략) 네에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화나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애들 챙겨줘야 해요.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 싫은데...또 같이 있으면 싸워요. 화나요. 애들 공부도 안 가르쳐 줘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남편과 싸움은 주로 물질로, 돈, 경제 또 성격차이 때문에, 또 남편이 술 많이 마셔서 그러니까...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잘 몰라요.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나왔나.. 한글도 다. 그러니까. 아는데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은행도 학교도 애들 공부도 다..다...다..내가 해요. 내가 거짓말요? 남편이 거짓말 한 거예요. 공부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했어요, 그래서...마음 아파요 (1-1-5, 서울, 아내, 나카시마미카).

우리남편도 가끔씩 화나면. 손 지검을 해요. 네, 요즘은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좀 우리남편도 참고 있는 편인데, 여자 약간, 우리남편 태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이 미리, 약한 사람이나 여자한테 그런 거 안 해야. 참고 있어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원가족이 어려운 경우 송금에 대한 부담과 노부모의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으나 많은 비용 때문에 고국을 방문하지 못해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2년 동안, 80, 90만원 만, 엄마 약 먹어, 많이 아파요. 기침 나와, 당뇨 있어요. 몸이 많

이 아파요. 엄마 약해요. 베트남에 2005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지금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1-1-7, 서울, 아내, 응엔티엔).

여성들은 이주 초기에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만큼, 언어습득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관계의 폭을 넓히기 힘들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사회
적 지지 중 친구 갖기는 매우 중요한 것에 비해 이주여성들은 시어머니와의
동거 등 가정 내 형편, 낮은 자존감, 한국 학부모의 특성 등으로 이웃과의 교
제가 어렵고, 한국인 친구가 부재하다.

글쎄요. 친한 친구요? 없어요. 아이 친구 엄마들과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같이 좋은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
아요. 더군다나 저희는 시모가 집에 계셔서 자모들끼리 왕래하기가 조심스러워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엄마들끼리 같은 지역에서 친했던 엄마들, 그분들끼리만 친하거든요. 그런 게 좀 힘들기
도 해요. 자기네들끼리 따로 또 만나고, 저도 중국에서 왔다 얘기 안 할 때는 한국분인지
알고 친하게 지내다가, 중국에서 왔어요. 온지 10년 됐어요. 그 다음은 만남 자기네끼리
만 하고 연락, 거리감 두더라고요. 아직 그게 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2) 전(全)단계의 사회서비스 경험

전(全)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남편들이 경험하는 사회서비스는
한국문화 등 다문화체험서비스, 취미교실, 상담 및 통역서비스를 경험한다.

결혼이민여성이 낯설어 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었다. 결혼
생활에서 겪게 되는 한국의 웃어른에 대한 예절, 한국음식 조리법에 대한 결
혼이민여성의 요구와 참여도가 높았다. 특히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적지 탐방행사 등 가족이 참여하는 문
화행사는 이들에게 유익한 경험이다. 전남지역에 부부교육 등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 보인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문화 춤추는 것 부채춤 소고춤, 배웠어요. 센터 같
은 곳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니 한국어가 많이 좋아졌어요. 쓰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리도 많이 배웠어요. 종이접기, 풍선 만들기, 염색, 연날리기 (2-1-9, 전남, 아내, 리아).

가을에 1년에 한번씩 1일 코스로 2년 동안 2회 다녀왔어요. 우리문화에 대해서 주로 유적지를 다녀왔어요. 우리 가족들 데리고 어디 잘 못 가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다닌 것 좋아요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부부교육을 몇 번 받았고요. 받는 사람만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참여해서 부부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장소가 되고 정보도 알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캠프 가서 남편하고 아내교육 하고 그 다음에 편지 있잖아요. 남편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남편 편지 보냈어요. 방에 갔다가. 따로따로니까. 서로 편지도 주고받았는데 우리 남편 편지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2-1-1, 전남, 아내, 티나).

결혼이민여성의 여가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가족 나들이 등 연계하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한국어 배우고, 고급 올라가요. 미술도 배우고 무용도 있고 뽐뜨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공연이나 동네에서 몇 번 갔었어요 (1-1-2, 서울, 아내, 하흥린).

그때 컴퓨터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그리고 악세사리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한글도 좀 배우고 끝날 무렵 되면 데리고 놀러도 가고 그러대요 (2-1-11, 전남, 아내, 황련위).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등의 원인으로 결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부부사이의 문제와 생활상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등을 상담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 시누이한테 많이 얻어 맞았어요. 내가 지원센터 전화해서 상담 받았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예, 2개월. 아이가 학교 들어가더니 1학년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첫째가. 이번에 제가 ○○복지관에서 아동심리 상담을 두 번 받았어요. 무료로. 요번 달에 ○○복지관 만.... (1-1-1, 서울, 아내, 왕차린).

만약에 가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부부클리닉, 상담, 상담 가서 얘기하면 이혼 까지 가는 부부가 거기 가서 얘기해요... 감정 조절하는 그런 것.... 가정폭력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센터에 와서 한국말 통역 많이 받은 것 같아요 (2-2-15, 전남, 남편, 김호철).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처음에 막막하던 생활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좀 더 나은 생활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에 선생님도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으니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 많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도 나이 연세 많이 있어서 힘드시니깐, 많이 이해하니까 날 거 같아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시댁과는 거의 관계가 좋아요. 시부모님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나쁘게 할 수가 없고, ‘잘했다 잘했다’, 나가면 ‘우리 며느리 착해’ 이러시니깐...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시어머니 다른 시어머니랑 틀려요. 우리 시어머니 틀려요, 잘 해줘요. 안 힘들어요. 제가 힘든 거 시골이어서 힘들고, 제가 장사하고 싶고, 회사에 가고 싶어요. 농사 햇빛 안 좋아요. 힘들어요. 안 좋아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또한, 남편과 가족의 지지로 힘을 얻을 때 생활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한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로 아내의 장점을 최대한 신장시키며, 당당한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받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남편은 한국의 여성보다 더 좋은 아내를 선택하였다고 자부하며, 행복한 결혼임을 인정하기도 한다.²⁹⁾

그래야만이 사회에서 나가는데 좀 아무지게 갈 수 있죠. 너무 모르면 안 되거든요. 남

29) 인용문에서 보듯이 남편의 지지적인 태도는 전남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남편들에게서 많이 보고되었다.

자건 여자건 너무 모르면 안돼요. 이때까지는 병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품안에서 다 해왔지만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가 무르면 안돼요. 아무저 가야해요. 거둔다는 자체는 애기엄마를 탄탄하게 키운다, 독립시킨다는 뜻 이예요... 혼자 차를 타는 방법, 버스 탈 수 있는 방법, 사회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공기관에 가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내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베트남에서 온 아가씨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여자들 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뭐가 좋은가 하면요, 살림도 잘 하고, 빨래 이런 것도 잘 해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다 잘해요. 잘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1-2-7, 서울, 남편, 이종길).

국제결혼을 하여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다. 오로지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내에게 늘 고맙다 (1-2-10, 서울, 남편, 강동근).

이상에서 보듯이, 전(全)단계에 걸쳐 결혼이민여성들과 가족은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서비스도 좋지만, 외부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프나 부부교육을 통해 감동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연장으로 가족참여 행사나 부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소감을 들어볼 때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미래를 꿈꾸며, 남편과 가족이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경험을 생애주기의 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입국초기에 비해 임신·출산기와 자녀양육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점과, 취학 전보다는 취학 후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상담서비스가 적고, 노동(재)진입기의 사회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는 보건소의 임신전·후 서비스와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보육비 지원, 방문자녀양육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가족 전체

가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미 알려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서의 어려움은 이번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각 단계마다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남편이나 가족의 배려와 도움이 있는 경우 그 어느 서비스보다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직 이웃이나 지역에서의 도움을 경험한 경우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의 편견에 대해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점차 취학을 하고 성장하게 되는 경우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직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학교 시스템의 다문화화 과정이 미비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일반 아동과 교사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멘토 서비스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필요시에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상담원이나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가 요청된다.

노동(재)진입기의 직업교육이나 취업연계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 6월 경기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알선 등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만의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취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3년 취업서비스법을 개정하였다. 취업권 미획득자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거류증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 중국인 배우자에게도 일정기간 동안의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무지개청소년센터·한국청소년연구원, 2008).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가.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정보제공 및 한국어 교육 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사회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구사 능력의 어려움이나 생활방식과 행정제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보가 취약한 거 같아요. 저희들은. 정보를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회에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다른 분이 했을 때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으로 나눠주더라고요. 원래는 딱 새로 신청해서 의무적으로 한권씩 주면 그 안에 아무래도 보게 되잖아요. 모르면 남편이 설명도 해 줄 것이고, 그 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기관에 나가야만, 또 자주 안 나가면 정보 주지도 않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참가하러 갔을 때만 주는 거고 그거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시집왔다면 다 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갖고 있으면 그 때는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마음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번역문으로, 그 나라 영어, 중국어... 딱 결혼하면 이거는 봐야 될 부분이라고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나눠서. 나온 건 있는데 그걸 교육 받는 사람만 주거든요. 집에서 못 가져가는 분도 있고 그 교육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서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몰라요. 책자 못 받았기 때문에 정보는 영원히 닫혀 있는 거잖아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국 초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대한 혜택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

해서는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정보들을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국초기 결혼이민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언어의 장벽이다. 새로운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멤버십을 형성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수요나 욕구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어의 문제이므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지원 서비스가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필요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어 수업이 각국의 언어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구사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주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으면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애로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 거기는 애들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놀이방 같은 거 없어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험하기도 해요. 자원봉사자분들 오세요. 공간이 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번 오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유치원 일찍 안 보내니까 데리고 와요. (중략). 한국어 교실, 그 나라말로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현재 한국어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시민단체, 구청, 군청, 동사무소,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게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상황에 따라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

한 기관에서 폭넓게 한국어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교육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없을 만큼 충분히 한국어를 습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서도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보다 원활히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 1주일에 한번만 배워서 시간이 부족했다. (아이도 함께 받고 있어서)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배우러 다니고 싶지만 돈도 시간도 여유도 없어서 사이버 어학같은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한국어 교육 기간이 너무 짧고 학교 같은 곳에 다니면서 배우면 좋겠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대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가르치는 강사의 수준이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의 환경은 그 중요성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군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은 한 분이고 여러 나라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이 말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여 선생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위의 사례 <2-1-3, 전남, 아내, 오양가>는 교사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이는 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수와 학생 수의 비율이 적정선에서 조율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현재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지적은 남편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인데,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교사를 충원하는 현행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운영 체계로 인해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육 강사가 자원봉사가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현행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은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면접 사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언어의 습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사회서비스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기간의 확대, 교육 강사의 자질 개선 및 강의 환경 향상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들이 어려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이동수단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어 습득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서비스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주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혼자서 먼 거리를 이동하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남편들이 아내의 이동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들은 일 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교육기관까지 아내를 통학시키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주여성가족대상교육의 경우는 방문교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골농촌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방문해서 교육을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이 있어서 보내고 싶어도 내가 다 이동을 시켜야 하니까 교육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난감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센터 차편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셔틀버스나 그런 것이 있으면 남편들이 편하게 혼자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텐데 (2-2-15, 전남, 남편, 김호철).

아내들은 한국어 교육의 내용이나 질과 관련된 서비스의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아내의 생활과 이동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들은 교육의 질 못지않게 교육을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절차에 관한 서비스가 개선되기

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결혼으로 비롯된 성별 입장의 차이임과 동시에 접근성의 여부에 따른 지역 간의 차이이다. 이런 접근성과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방문교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의 초기 기간에 출신국의 언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에게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아내와 남편 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말과 전통교육이 가정 낮설게 느껴졌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줄 통역사가 필요하다. OO에 먼저 온 일본사람 통해서 통역 받음. 주로 비행간염접종 등 비자, 연수비자에서 동거비자로 바꾸기.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려주는 것 등의 행정적인 도움, 운전면허 바꾸기 서류, 번역, 서류 공증 등...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처음에 왔을 때 통역으로 어디 가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어디를 가야지 가정에서 살림 같은 거 살 때 쇼핑 같은 거 할 때 어디 가서 사야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무슨 정책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잖아. 우리도 그냥 우리도 여기서 살다가 2년 있으면 국적을 딸 수 있는 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이민자들도 처음 왔을 때 어디가면 배울 수 있고 어떤 거 살려면 어디를 가야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근처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뭘 해준다는 것 몰랐어요. 보건소도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몰랐어요 (2-1-5, 전남, 아내, 위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로 비자 발급이나 예방접종,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을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에

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남편에 비해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에 관심을 적게 가져서라기보다 이주의 초기단계에서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 각종 행정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일차적인 문제로 여기게 된다.

아내가 처음 입국했을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지만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몽골어 통역을 해 줄 사람이 군에라도 한 분 정도는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가 몽골여성과 결혼을 하면 아내를 통역사라도 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본인이 너무 처음에 힘들었기 때문에 (2-2-2, 전남, 남편, 안민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실제로 수혜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OO동에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개강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신청하십시오. 꼭 이래요. 정보가 제때 알려져야 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 하는데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죠 (1-2-2, 서울, 남편, 최동철).

2) 한국문화 및 배우자 국가의 문화 교육 지원: 음식, 전통문화, 명절

최근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문화와 많은 차이를 가지는 문화권에서 생활한 여성들의 이주가 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만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리감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들이 지금껏 익혀온 생활습관이나 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자칫 생소하거나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문화를 익힌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나 내용이 아니며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체득되어 몸에 체현되는 몸과 무의식의 습관이므로 자칫 사소해 보이는 생활 방식이나 관습도 문화적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갖게 된다. 특히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면접에 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외국사람 한국에 오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처음에 여기 올 때 사회생활부터 문화 이런 거 가르쳐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요. 왜냐면 이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문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깐 우리나라는 시어머니하고 여기 시어머니하고 많이 틀려요...(중략)... 처음에 올 때 한국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부터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한테 먼저 그 나라 외국인한테 먼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게, 언어보다 (1-1-2, 서울, 아내, 하홍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요리해서 항상 부모님이 오면 인사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남존여비사상.... 명절 때 추석 때 형님 다 오시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큰며느리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하겠대요. 진짜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위의 <1-1-2, 서울, 아내, 하홍린>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남성들이 가사 노동을 책임지며 시부모와의 관계도 간소한 편인데 반해 한국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시부모 봉양과 가사노동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2-1-10, 전남, 아내, 황티하>의 경우도 한국의 남존여비사상 때문에 자신이 맡은 큰며느리 자리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가부장적 가치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사적공간에서의 노동을 전담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성별에 따라 노동의 종류와 공간이 분리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런 한국의 문화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차이를 앞두고 한국의 문화만을 강조하며 여성으로써의 성별 노동에 충실할 것만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양성평등사회나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숙

해지기 위한 노력이 한국에 이주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또 가부장적 문화에 기반 한 성별 노동 분업이 계속 지켜가야 할 한국의 문화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지금까지 익혀온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한 차이를 관용적인 시선으로 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가정 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을 더욱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한국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배울 것만을 강요하기보다는 배우자인 남편들 역시 부인의 나라나 문화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서비스는 한국음식이나 전통문화, 한국의 명절에 관한 풍속들, 손윗사람을 대하는 한국의 예절 등 한국의 문화 전반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알리는데 집중되어 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배우자인 남편도 부인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편대상 교육에 부인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남편들에게 부인의 나라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의지나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 역시 남편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선생님이 베트남말도 남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베트남 문화도 여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좋겠어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상대방 나라의 교육이라든가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상대방의 문화, 예절 언어를 절대적으로 배워야 부인을 이해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민자 남편들에 대한 교육과 대화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남편들을 위한 교육이나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해요. 아내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키우기 위해 공부한다던가 하는 교육, 인사말, 국가에 대한 정보 책자나 그런 것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2-2-7, 전남, 남편, 최시환).

아내나라 문화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어요 (2-2-8, 전남, 남편, 김태근).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 앞서 한국문화, 나아가 서로의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피면접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의 예절, 명절과 같은 한국의 전통들, 한국의 음식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적인 문화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언어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화 교육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평가에 걸맞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환되고 있으며, 행정, 금융 등의 공공기관 서비스 역시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며 필수사항인 것이다. 인터넷은 정보 획득의 수준에서 볼 때 그 양과 질, 그리고 속도 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대다수 사회서비스가 인터넷상으로 게시, 예약,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볼 때, 정보화 교육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컴퓨터, 인터넷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컴퓨터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 많이 있잖아요. 학교 안 가도 집에서 인터넷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2-1-7, 전남, 아내, 부티밍).

컴퓨터 배우고 싶어요 (2-1-14, 전남, 아내, 하티빈).

결혼이민여성들은 어린 자녀 때문에 혹은 지리에 어둡거나 이동방법을 잘 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잘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정보의 취득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취득하여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상담 및 부부교육

공간의 급격한 이동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들이 바뀐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주를 결심하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 동안 익혀왔던 모든 문화와 생활 습관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로가 익혀왔던 문화와 풍습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와 배려의 마음 없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하거나 남성의 가치관에 따를 것만을 종용하는 것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장애가 된다.

한국문화, 일단은 그 가정에 사니까 문화충돌 생기기 때문에 문화교육부터 있어야 되고 한국은 이런 거다, 그걸 제가 부딪치면서 느낀 거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이 싸웠었고 일 년 동안, 일단 남편교육도 필요해요. 남편이 일단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배려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해요. 문화차이를. 남편들은 그걸 인정 못해요. 니가 타국에 와서 니가 적응해야 될 부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얘기 하지마. 여긴 한국 땅이야. 한국식으로 니가 적응해서 살아. 그 적응하는 동안은 천천히 가야하는데 완전히 확 바뀌기를 원해요. 남편들은 그게 힘들어요. 남편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부인이 왔으면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교육,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문화도 천천히 얘기해줘야지 그런 각오가 없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이처럼 다문화가족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과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문화에 대한 교육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남편 역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익힐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상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결혼에 따른 문화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사전 교육서비스나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면접자들의 응답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국제결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과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외국사람 부부교육 같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같은 외국 사람한테도 남편한테도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교육받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교육받으면 생각 바꾸면 틀려요. 그러면 상대방 많이 이해해주면 좀 틀리잖아요 (1-1-2, 서울, 아내, 하홍린).

국제결혼을 하니깐 미리 국제결혼 좀 어려운거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부부사이 아까 얘기한 감정조절, 가정폭력 상담하는 프로그램 (1-1-3, 서울, 아내, 유미코).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준비교육이 필요하다. 아빠가 되는 준비, 남편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1-2-10, 서울, 남편, 강동근).

위의 사례 <1-1-1, 서울, 아내, 왕차린>, <1-1-2, 서울, 아내, 하홍린>, <1-1-3, 서울, 아내, 유미코>, <1-2-10, 서울, 남편, 강동근>은 모두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준비교육, 특히 부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고 나서 겪기 쉬운 다양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교육이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무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문화 가족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편교육은 부인하고 살기 전에 수속 밟을 때 먼저 의무사항으로 서류 순서를 넣어야 할 거 같아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아울러 개인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결혼이민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의 경험담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중요하다. 다문화가정은 국경을 넘는 가족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아내와 남편이라는 입장의 차이 외에도 국내결혼과는 다르게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 국제결혼에 따른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이 어느 한 성별에게만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부부클리닉, 상담, 상담 가서 얘기하면 이혼까지 가는 부부가 거기 가서 얘기해요. 그렇게 감정코치라고 하나?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그리고 애기 키우는 것도 그렇고, 자녀관계, 요즘 똑같이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1-1-3, 서울, 아내, 유미코).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상담사 분이나 상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같은 처지, 먼저 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서로요. 그런데 적극적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부와 가족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족과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의 방식의 틀에 박힌 교육 보다는 다문화가족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체험 등의 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게끔 둘이 같이 끄덕끄덕하고 그거 끝나면 같이 집에 가서 공감대 형성하고 저번에 비빔밥콘서트 같은 거 많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다문화축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2-2-14, 전남, 남편, 서우진).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은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낯선 공간이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생활상의 작은 문제들도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버스표는 어디에서 사야하는지, 관공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등 한국인에게는 너무도 익숙해서 ‘정보’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까지도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된다. 이렇게 생활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이주 초기에 교육한다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의 차이로 힘들어 할 결혼이주여성의 고민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말 배우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상담을 해준 선생님이 상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관한 생활문화 같은 거요. 쓰레기를 버릴 때라든지 애가 학교 갈 때 어린이 집에 갈 때 뭐 어떻게 해 줘야 된지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중략). 처음에 한국 돈 계산을 잘못하잖아요. 혼자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그게 불편했어요 (2-1-7, 전남, 아내, 부티밍).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런 생활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편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서비스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남편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들 역시 버거움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사례 <1-2-2, 서울, 남편, 최동철>은 이런 교육들이 만약의 경우 이주여성 홀로 한국에서 생활할 상황이 오더라도 자립할 수 있을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금씩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하나부터 100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동사무소를 가든 구청을 가든 버스 지하철 타는 방법 표 사는 방법 모든 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방법 밖에 없어요.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그런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차표 사는 법, 동네 관공서 어디 있는지, 도서관 어디 있는지, 그런 시설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을 꾸리지만 간혹 가다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재혼하든 계속 살아가더라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1-2-2, 서울, 남편, 최동철).

또한 국적취득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불만이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밟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적 변경 우리나라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여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은 2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해요. 대사관이 서울에 있잖아요. 왔다 갔다 버스비가 얼마예요? 간단하고 쉽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번역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주도에 사는 언니 비행기 타고 한 다섯 번 쯤 왔다 갔다 했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안 한다고 포기했대요. 돈 20만원 내고... 출입국에 몇 번가고 돈 20만원 낸대요. 늦어서 못 가면 또 돈 내고. 한 아는 언니는 출입국에 벌금이 300만원 들었어요. 서류가 대사관에 왔는데 시간이 늦어버려서 한국 돈으로 출입국에 벌금 300만원 냈어요.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에 있는데 내가 서울 가까이 살고 있으면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시간이 있으면 생각해요 (2-1-8, 전남, 아내, 말리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국적 바꿨어요. 남편이 알아서 해와서 했어요. 서류를 잘 몰라서 서울까지 가야돼요. 베트남대사관까지 직접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모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갔다 왔다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신청한지 6개월 뒤에 국적 취득했어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국적 변경 시 서류 번역하고 베트남 대사관 가고 하는데 다해서 95만원인가 들었어요. 내가 다 했죠 (1-2-7, 서울, 남편, 이종길).

국적취득을 위해 우리가 서울대사관까지 가야 돼요. 대사관까지 못 가더라도 ○○도 청에서라도 해주면 좋겠다. 국적취득 대상자의 남편통장에 1000만원이 있어야 하고... (2-2-3, 전남, 남편, 이강필).

현재의 국적 취득 절차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서류를 모두 갖추어 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신청이 처리되는 기간도 적지 않게 소요된다. 이에 절차의 간소화와 국적 취득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또 국제결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소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서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영상홍보물의 제작과 같이 행정안내의 방법도 좀 더 다양화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복잡한 행정절차

를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국적 변경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라는 거 따라가면서 한 거뿐이고 책자 같은 거 없었어요. 우리가 민방위 교육 받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는 소집을 해서 구청강당이나 거기서 영상물 보여주고 책이나 딱 주면 책들은 없어지거나 어디 팽개쳐 놓잖아요. 영상홍보물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국적취득을 신청해 봤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서류철 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다.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있는 경우는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게 해 주고 빨리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류 처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 서류처리를 남편이 가서 해야 한다. 우리 이주가정에는 남편들이 정신연령이 좀 떨어지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계신다. 그런 분들은 국적취득을 위한 서류처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단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적취득을 못하고 또 남편이 서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는 안타깝다.... 결혼 정보회사 같은데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해주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2-2-2, 전남, 남편, 안민철).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떠나온 본국의 가족과의 재상봉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초청 기간의 문제나 초청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이외에도 초청에 소요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초청한 가족의 체류기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연장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일손이 많이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처가 식구들을 초청해도 3개월 정도 밖에 못 있으니깐 일손도 없고 처가댁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서로 아쉬워요. 초청 기간을 오래해 주었으면 좋겠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친정식구 초청하는 거요. 초청하면 3년까지 돈 벌게 해줘요. 가족은 괜찮은데 친척들은 6~7개월 걸리니까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2-2-5, 전남, 남편, 원성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적취득과 함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엄마의 이름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라는 것이 밝혀져 아이가 받게 될지도 모를 편견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이런 불안감은 아내와 남편 모두 경험하는 것이다.

아이가 학교 다니기 때문에 나 이름도 한국으로 바꾸고 싶어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학적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 한국 사람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바꾸려고요 (2-2-7, 전남, 남편, 최시환).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배우자는 이주와 국제결혼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이 겪고 있는 경험을 앞서 경험한 누군가의 조언은 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는 점에서 몇 번의 일방적인 교육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앞서 결혼이주를 경험한 여성들과의 연계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문제의 해결방법을 듣는 것은 이주 초기의 여성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통 이주 초기의 여성이민자들은 주로 남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전적으로 참가하게 되는 남편들 역시 자신 이외에 제 3의 조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서로의 문화나 의견에 대한 차이가 둘 만의 관계가 아닌 경험자의 관계를 통해 조율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이다.

혼자만의 얘기를 하면 주입식이라 하고 처음엔 잘 안 받아들여거든요. 그니까 주위사람들 같이 협력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친구들 오히려 얘기를 하다보면 더 빠르죠... (중략) ... 동네 같은 또래 친구 사귀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함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처럼 경험자와의 관계를 통해 도움을 얻는 방식은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일뿐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남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심층면접에서 결혼이민자의 남편들은

국제결혼 경험자의 조언을 통해 국제결혼에 대한 적절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런 점에서 국제결혼을 미리 경험한 가정과 교류하는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된다면 많은 결혼이민자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나와 있던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산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정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죠 (2-2-13, 전남, 남편, 길수찬).

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요구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배우자가 처한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같게 혹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사고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어떤 요구가 더 중요하게 의미화 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이 고민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이주 초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 초기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존재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경우 언어의 취약함 등으로 인해 이후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될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점이다. 이에 대한 요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들에게서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언어의 장벽 역시 이주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지점 중 하나이다.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나누고 새로운 한국사회의 일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강사의 자질 개선, 통역 서비스의 제공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주 초기의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충돌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충돌을 줄이고 한국문화에 좀 더 쉽게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서비스들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대개 한국의 음식과 전통들, 명절, 손윗사람에 대한 예의범절 등을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습득할 것만을 강조함으로써 상호적인 방식의 문화 교류를 어렵게 한다. 특히 가부장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사회의 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의 문화교육이 행해질 필요가 있기에, 이런 점에서 남편들을 대상으로 아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접에서도 아내들은 남편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남편들 역시 아내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아내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정이 겪게 되는 특유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이라는 지리적 접근성의 취약함이다. 그 외에 농번기 등 농촌 특유의 노동 사이클로 인한 문제, 노인들이 많아 양육보조자 없이 육아를 여성 1인이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 정보 접근도의 취약함 등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가족들도 충분히 이용할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리적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 역시 확대될 필요

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결혼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상담하거나 교육 받기를 원한다는 요구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남편들의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주 초기 국제결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주 경험자와의 연계가 제공된다면 많은 결혼이민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여성결혼이민자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이에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나. 임신 및 출산전·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정보제공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많은 불안에 시달리기 쉽다. 이런 여성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서비스의 확대와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의 언어로 된 관련 책자를 센터나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애기 처음에 임신할 때 너무 불안했었는데, 외국사람 위한 거 없었고, 산부인과가면 일단 젓먹이는 거 교육을 안 받아서 분유 먹였어요. 애기 키우는 법은 일본책을 읽어 주고 그래도 틀린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그런 교육은 없었어요 (1-1-3, 서울, 아내, 유미코).

고향에 러시아말로 된 임신정보를 부탁해서 임신해서 필요한 것 받아보고 했어요. 나중에 임신하면 그런 책도 필요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타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대한 불안을 상담을 통해서 줄이면 좋겠고 의료적인 혜택도 받아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싶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면접에 응한 여성들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같게 나타났다. 많은 국제결혼 가정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움 점을 감안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또 임신전·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임신전·후에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산모관리, 예비부모교육 등이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산모관리를 받았는데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신생아에 대한 교육과 예비부모로서의 마음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한국의 병원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임산부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아이에게 좋은 영양 음식이 무언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2-1-15, 전남, 아내, 주티안).

생애주기별 아이들의 특징과 의료적 대처방법과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산모교육과 도우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신 전·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힘이 들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태교와 지속적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1-2-12, 서울, 남편, 정우영).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경우에는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신기간 중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먼 타국에서 이주한 상태이므로 남편 외에는 마땅한 도움을 청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 이런 아내의 힘들음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는 남편들은 그러한 아내의 고생을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입덧으로 힘들어 할 때 자국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국음식과 조기검진에 대한 보험서비스가 필요하다 (1-1-12, 서울, 아내, 마키).

첫 아이 임신할 때 항수병으로 고생했어요. 전혀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2-2-9, 전남, 남편, 오태호).

입덧을 심하게 해서 그럴 때는 중국음식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임신해서 음식 쪽에서 좀 고생을 했어요 (2-2-14, 전남, 남편, 서우진).

2) 산후관리: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친정이 먼 타국이고 마음 편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출산과 출산이후 산후조리과정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시어머니 등 가족이 산후조리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시어머니는 연로하신 경우가 많아 산후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임신 전·후 받아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의 존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면접에서도 산후도우미를 통해 산후조리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남녀 공통으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문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생활에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산모교육과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태교를 함께 해주는 것, 산후조리가 필요함. 출산으로 인해 큰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는 도움이 집중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갓난아기를 전적으로 돌봐주기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가 필요하다. 일가친척이 없고 남편은 출근하고 혼자 아이를 봐야하기 때문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함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출산도우미, 산후도우미 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1-12, 전남, 아내, 카렌).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 같은 거 좀 해줬으면 좋죠 (1-2-7, 서울, 남편, 이종길).

산후조리를 무료로 받았으면 좋겠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산모교육과 도우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신 전·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힘이 들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이때 농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고 이동거리도 길어 산후도우미가 방문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농사일과 다른 아이들 돌보는 일 등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산후도우미의 파견 외에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원 입소 등의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산후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읍에서 오다 보니...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읍 소재지를 벗어나면 거의 산후조리가 아니고 다시 밭에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데는 산후조리사를 파견하는 것보다는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도움을 받으면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오시면 일해 주는데 뭐라도 대접을 해줘야 하고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부담이 되죠.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못 받는다 (2-2-1, 전남, 남편, 김규범).

산후조리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 신청했어요. 산후도우미가 집으로 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애기 막 낳고 한 달 정도는 병원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지금도 애들이 힘들게 하니까 안쓰러운데 (2-2-5, 전남, 남편, 원성필).

3) 예방접종 및 정보제공: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알림서비스), 육아 정보 제공

아이의 예방접종은 대개 보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의 발달시기와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접종해야 하는 시기가 달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접종시기가 다가오면 휴대전화나 우편물을 통해 일괄적으로 예고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방접종의 시기를 잘 잊어버려서 알림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문자나 엽서). 요즘은 산후도우미서비스도 있다고 들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임신 중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등에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임신 전·후 서비스가 너무 미약하다. 서비스 날짜 알려주는 홍보가 부족하여 그나마 있는 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다. 홍보가 부족하여 보건소에서 영구치의 홈메우기 등도 못 받았다. 아는 사람끼리만 서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홍보가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아이의 시기별 접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한편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이의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여 아이를 양육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 절에서 언급되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보건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에 한계가 있으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언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나 포스터 등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아이 나이에 맞는 이유식 정보가 필요하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예방접종 일자 등의 육아보건정보가 복잡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다 (1-1-12, 서울, 아내, 마키).

아기 이유식하고 고기, 과일 어떤 게 좋은가, 과자 어떤 게 좋은가 알려주세요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보건소에 갔을 때도 애기 마사지 때문에 가면 마사지 해주고 끝이지 그 뒤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어떤 걸 무료로 해 준다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보건소에 갔으면 보건소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뭐 종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안내문이라도 줬으면 나는 못 알아먹어도 못 읽어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보여주면 어떤 어떤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요 (2-1-4, 전남, 아내, 텅기스마).

아이가 아픈 경우 부모는 당황하게 되는데 특히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정도가 더 심하다. 이 때 남편 외에 상담을 청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임신 후에는 애들 때문에 가요. 애기는 아플 때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애기 키울 때 이렇게 해야 돼, 다 이거 가르쳐 유아에 대해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같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아니지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 바로 연락하고 (2-1-4, 전남, 아내, 텅기스마).

4) 통역서비스 제공 및 지원서비스

자녀를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정작 제공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찾은 외국인 여성들 중에는 서툰 한국어로 인해 아이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받을 때 영어와 일어통역사 필요하다. 아기가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될 지 알려주는 통역사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보통은 이러한 소통의 문제 때문에 남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남편을 동반해서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남편들 역시 통역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아내가 자신이 동행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중첩되어 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일일이 통역을 다 했죠. 매번 갈 때마다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주여성들에게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무엇이 필요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약간 불친절하더라고요. 통역요원을 배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2-2-3, 전남, 남편, 이강필).

임신해서 병원 간다거나 이런 게 자원봉사라든지 많이 해결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먼저 오신 분들이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이런 점에서 볼 때 의료시설에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국제결혼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한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다면,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서 야기된 문제일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이용이 꺼려진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처럼 제공받는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응답자의 의견은 현재 한국사회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결혼 가정의 의존도와 기대를 반증한다.

혈압 때문에 보건소 갔는데 왜 또 보건소 오는지 자주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면 언제든지 와도 친절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보건소 직원들의 다소 딱딱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12, 서울, 남편, 정우영).

보건소는 아무래도 믿음이 덜 가고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아서 임신한 상태에서는 많이 가지 못했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혜택을 주는 것 체계가 많이 부족하다. 질적으로 많이 낮아서 어려움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 (2-2-6, 전남, 남편, 이상훈).

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다. 더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낯선 타국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므로 더욱 많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임신, 출산 전·후 사회서비스들이 이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출산을 전후한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꼽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의 부족과 언어의 문제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자국의 언어로 된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폭넓게 비치하고 태교, 산전 운동, 출산 후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입덧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을 위해 임신 기간 중 자국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을 하고 나서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들이 대두하게 된다. 산모는 적절한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이를 위한 이유식,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들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산후조리의 경우 보통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타국에서 이주해 온 결혼이민여성들이 친정의 도움을 받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어머니는 연로하신 경우가 많아 마땅히 산후조리를 해줄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출산을 전후로 알아야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산후조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에 대한 필요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문 산후도우미 제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산후도우미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의 육아와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와 언어의

부족으로 인해 발달시기에 맞게 아이 양육법을 배우거나, 예방접종 등 의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엄마에게 지워지는 현실에서, 아직 의사소통에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보의 부족이나 이해도의 낮음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남편이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다. 남편들은 자신이 겪는 불편함 외에도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내 역시 혼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통적으로 통역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덧붙여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고압적인 태도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기대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과 국제결혼가정의 구성원들이 산전, 산후의 사회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아동양육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엄마 교육: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육아정보, 아이 지도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임신과 출산을 거쳐 자녀양육기에 들어서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아이에게 무게중심을 맞추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이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지만 가부장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엄마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직 한국어나 한국의 육아 시스템을 능숙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로 인해 혹여 아이의 양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녀양육기에 접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아이의 발달시기에 맞는 운동이나 식단은 무엇인지, 생활 습관은 어떻게 잡아주어야 하는지, 혹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요즘에 강의 들으러 가면 5세 이전에 발달 다 됐으니깐 그때가 중요하다하는데 이미 그때 늦었잖아요. 그런 부분 몰랐어요.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지. 첫 애는 그랬는데 지금 교육을 하도 많이 받으려 다니니깐 후회되는 거예요. 엄마교육은 없었어요. ...(중략)... 보육시설 구립도 갔었고, 사립도 갔었는데 처음에는 구립이 뭐야? 이것도 몰랐고 주위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구립이 어떻고 사립이 어떻고,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보육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다,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치원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차별점도 교육해줬으면 좋겠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사례 <1-1-1, 서울, 아내, 왕차린>은 아이의 발달시기에 따른 육아법을 미리 알지 못하고 첫 아이의 양육시기를 넘겨버려 안타까웠으며, 한국의 엄마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양육 시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엄마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면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신체적 발달을 위한 영양식이나 운동법이 필요하다 (1-2-12, 서울, 남편, 정우영).

언어발달이나 음식 같은 것(이유식, 편식, 음식습관) 등이 부족하다. ...(중략)... 반찬, 육아문제 그런 것들은 그냥 조언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2-2-7, 전남, 남편, 최시환).

특히 자녀 양육기에 들어선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아이의 언어습득 능력에 관한 것이다. 보통 이 시기에 아이는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이 양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아이가 제대로 한국어를 익히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해서 많이 걱정이 되요. 발음이 좀 이상할까봐 걱정이 돼요 (2-1-3, 전남, 아내, 오양가).

언어 교육 시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수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아이의 언어가 떨어질 시 엄마교육과 아이교육 병행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한국어 더 배워야 해요. 애기 이제는 어린이집 다니잖아요. 이제는 내년에 학교 들어가잖아요. 문장 그런 거 만드는 거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자신 있고 이렇게 좀 더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 들어요. 이제는 애기 가리키면서 내가 너무 뭐랄까 자신이 너무 없어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

사례 <2-1-3, 전남, 아내, 오양가>,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2-1-10, 전남, 아내, 황티하>는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아이의 한국어 발음이나 언어구사 능력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이주의 모든 시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녀양육기에 접어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이가 습득할 언어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언어 구사능력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자녀의 성장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욕구나 필요는 새로운 차원으로 전화되며, 특히 아이 양육기는 아이의 언어발달에 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한국어교육서비스는 아이와 엄마 양쪽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주시기를 고려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덧붙여 아이 양육이 부모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 아동의 한국교육시스템에 대한 적응이나 아이 교육의 책임이 반드시 어머니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인 아버지들도 자신들의 자녀가 한국인을 어머니로 둔 다른 어린이들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

2)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한국어 교육): 기간 연장, 시간 조정,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까운 곳 이용가능토록 조정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며, 그 만큼 기대 또한 큰 서비스이다.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녀의 한국어 이해·구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에서도 한국어 학습지원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구사력은 취학 후 학습 능력이나 학교 적응과도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언어 및 문화교육,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학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업에 대한 이해력, 자신감을 상실해서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아이들이 언어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또래의 나이 때에 비해서 언어능력이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방문선생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1-1, 전남, 아내, 티나).

한국사람 자녀 양육 교육열이 높는데 자녀 양육 방법 모르고 책을 사주고 싶어도 어떤 책을 사주어야 될지 막막해서 자녀 양육 서비스와 자녀와 깊은 대화하기 위해서 한글 공부 서비스가 필요하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아이들은 발달 초기에 주된 양육자와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 그러나 엄마가 외국인인 경우 아이들의 어휘 구사력이나 단어 습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한국인인 남편이 아이의 언어 모델 역할을 대신 수행해야 한다. 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성별에 따라 공사 노동 분리가 확고한 한국사회에서 생계책임자와 아이의 언어 교육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편들에게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

특히 필요한 게 동화책 읽어주기. 애들이 크다보면 책을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책을 접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 주더라도 같은 책밖에 못 읽어주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전부다 제가 애들 책 많이 읽어주고 지금도 글자는 제가 가르

쳐줘요. 생계도 유지해야 하고 애들 교육도 살피야하고 그래요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이런 점에서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피면접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가 결혼이민자가 가정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특히 기간이 짧아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방문 학습지원 서비스는 5개월간 제공되며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에 두 시간씩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를 습득하기에 5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아 기간연장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〇〇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방문아동양육 서비스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더 학습도우미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못 받은 점이 단점이다 (1-1-8, 서울, 아내, 미사토).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쉴면 좋겠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수혜자인 결혼이민여성과 그 배우자는 모두 아동양육도우미제도의 시행 자체에는 만족감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 당사자로부터 제도의 보완점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지도사 선생님도 5명의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큰 아이와 막내의 연령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분으로 부족하다. 연령을 구분하여 서비스구분이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양육도우미 제도가 일정한 요일 일정한 시간에 얽매어 있어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동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꼭 엄마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저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같이 활동을 해주지 못해 아이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1-1-11 서울, 아내, 류린난).

아동양육서비스가 저한테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건데 애들한테 선생님이 직접 공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시간은 엄마한테 해주고 1시간은 애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2-1-6, 전남, 아내, 쿠라키마이).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중심으로 지리적 취약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동양육서비스는 대개 서비스 제공기관의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제공되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담당하는 지역자체가 넓고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관할은 다르지만 인접한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용이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구분 없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

방문교육 프로그램 있어도 힘들 것 같다.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도 거리도 있고 아이들 시간과도 안 맞고.. 아이들하고도 소통하는데도 엄마아빠가 매를 들고 하기도 힘 드는데... 그런 점에서 찾아오시는 게 미안하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는 OO센터하고는 1시간씩 멀지만 OO센터하고는 5~10분 거리다. 지역에 구분이 없어져,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면 서로 좋을 것 같다 (2-2-1, 전남, 남편, 김규범).

3)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 및 보육시설 확충

면접결과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비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농촌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서는 육아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엄마의 한국어 실력이 능숙하지 않아 아이가 말을 잘 배우지 못할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아주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 집 등의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어서 보육비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 관련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 대부분 저소득가정으로서 비용지원 같은 거 해줬으면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엄마가 한국말 발음이 부족하니까 애기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정확한 발음 배웠으면 좋겠어요 (2-1-7, 전남, 아내, 부티밍).

내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다보니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다. 비용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아이가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더욱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내와 남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은 보육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결혼이민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도 서술했듯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지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각종 사회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지리적 취약성의 문제 외에도, 도시와는 다른 노동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역시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 면접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남편들을 중심으로 보육기관의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제기되었다.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대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그러나 농촌의 농번기에는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돌아오는 시간과 한참 일할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 중도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농촌지역의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농번기 철에도 늦게까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늦게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아침에 아홉시 반에 가서 집에 오면 다섯 시 정도 되요. 한참 들에서 일할 시기잖아요. 그런 점이 불편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주말 같은 경우는 농촌일손이 바쁠 때는 집이 거의 전쟁터죠.. 큰아이들이 봐 준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막내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 쉬는 날, 주말 같은 경우, 쉬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골에 바쁠 때는 안전하게 잠깐이라도 봐 주는 곳이 필요해요 (2-2-1, 전남, 남편, 김규범).

동시에 보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 많은 서비스 기관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도심과 떨어진 농촌 지역일수록

서비스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져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적 차이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적당한 거리마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보육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시골이다 보니 인근에는 많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 믿고 아이를 맡길 만한 기관 같은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쉽게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곳 있으면 좋겠다 (2-2-2, 전남, 남편, 안민철).

가까운 어린이집까지 20~25분 차로 걸린다.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2-2-3, 전남, 남편, 이강필).

4) 문화체험 및 역사교육

한 나라의 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누적, 축적되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 초기 자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현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데, 면접 결과 자녀 양육기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기에 문화체험 및 역사 교육에 대한 필요가 특히 부각되는 까닭은 아이의 교육에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필요함을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를 지도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부분은 언어 교육과 동시에 역사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엄마의 지도하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시기별로 적절한 수준의 역사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교육 특히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한국 엄마는 당연히 알고 있는 역사와 인물을 알려주는 공부가 있어야 한다. 엄마를 위한 역사탐방의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그러나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생활의 긴급한 요구가 아닌 문화체험이나 여행을 즐길 시간 및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계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들의 면접에서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생활상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부부여행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1-2-7, 서울, 남편, 이종길).

차가 없어서 아이들을 나들이에 보내고 싶다. 아내와 오붓하게 둘이서 여행하고 싶다 (1-2-10, 서울, 남편, 강동근).

이런 점에서 다문화 가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및 역사체험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을 통한 문화체험이나 역사 교육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이다. 또 이는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의 향상과 더불어 엄마와 아이사이, 부부 및 가족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5)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직까지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생김새나 피부색에서 보통의 한국인과 차이가 나는 경우, 같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외모를 가진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자신의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혹시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아이들 사이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적 서비스나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닌데, 피부색이나 인종, 문화의 차이에 대해 인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 사회 전체적인 인식을 새롭게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문화서비스가 많지만 따로 묶어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열등감이 느껴진다. 서비스 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받지만 국제가정의 장점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국제가정도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일반사람에게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의 좋은 점을 따로 알려줬음 좋겠다. 엄마는 모르지만 각 나라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인의 우수한 혈통과 엄마 나라의 따뜻한 교류가 있다면 혼혈이라는 느낌보다 ‘뛰어난, 특별한 나다’라는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 (1-1-12, 서울, 아내, 마키).

6)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노동과 임금을 받아오는 공적인 노동이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대개의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사적인 영역의 노동을 전담하며, 특히 아이의 양육과 교육의 부분에서 일차적인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을 절감하게 되는데, 따라서 양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회서비스가 보다 충분히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선 아이의 신체발달단계에 따른 식단이나 운동요법, 생활 습관 교육 등 양육에 관한 정보와 한국의 보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많은 피면접자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스템과 각종 육아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자녀양육기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의 언어구사능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보통 이 시기에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언어를 익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여성은 자신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아이의 언어 습득 모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아이의 한국어 발음이나 언어구사 능력이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뒤쳐질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는 방문학습지원 서비스와 아동양육도우미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보충하고 아이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점에

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학습지원 서비스의 경우 특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반면 기간이 5개월로 짧아 기간연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아동양육서비스 역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연령을 구분하는 서비스, 융통성 있는 시간 활용,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의 제공 등 개선되기를 바라는 다양한 요청사항들이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완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언어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선택하는 대안은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다. 보육 시설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배우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가 단독으로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라도 보육 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보육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아이의 학습과 언어 발달 능력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지원 확충 요구는 모든 지역의 피면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피면접자들을 중심으로 지리적 취약성의 문제와 농번기 등 농촌의 상황을 배려하는 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현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와 시설들은 보통 도시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역적 차이를 배려하고,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폭넓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가족의 삶의 방식을 고려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가족 내에서 이러한 역사 체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역사탐방이나 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가 느끼는 자존감의 향상 외에

도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 아동취학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다문화가족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래의 사회갈등 위험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자녀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많은 다문화가족의 엄마들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절실하게 가지고 있다. 아동취학기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지원되고 있는 현행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자녀가 아닌 학부모대상의 교육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및 부모교육

아이는 취학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 시기의 결혼이민가족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긍정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지에 관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이 아직 부족한 한국 사회에서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의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육아 문제에서도 힘들었을 때 저는 유료로 하는 상담실 갔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심리상담실. 근데 너무 비싸서 한 2개월? 애가 처음 취학할 때 힘들어 했거든요. 첫 번째요. 교과서 챙겨줄 때, 짝꿍교과서 있는지 물렸어요. 근데 애가 복도에서 벌선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근데 제가 외국에서 와서 모르잖아요. 그것도 엄마로서는 알아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중략)... 아이들이 일단은 지식적인 것 보다 생활적응하고 사회관계, 대인관계에서... 우리 애들이 마음이 좀 약하고 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애들도 좀 남자들이 짓궂게 그러면 힘들어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거다. 그러면 애기를 해줘도 힘들어하고, 지식적인 것보다 대인관계인 거 같아요. 애들이 힘들어할 때 와서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누가 힘들게 해. 중국에 살 땐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고민돼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주면 좋겠다 (1-2-8, 서울, 남편, 김기복).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 역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자녀의 취학에 대한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 구사능력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이용과 아이의 학교생활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아이의 학교생활과 연령에 맞추어 학부모가 알아야 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떻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그게 부모로써의 역할이 이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준비물들을 이렇게 이렇게 때마다, 학기 때마다 챙겨야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거를 교육을,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령대에 맞추어서 아동 취학기 연령대에 맞추어서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알림장을 확인하고 숙제 지도하는 것. 도서관 도우미 등 자원봉사 안전지킴이 등 자모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미리 아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 엄마는 소외가 되기 쉽다. 엄마가 소외되면 아이도 소외될 경우가 있다 (1-1-10, 서울, 아내, 마이코).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각종 소식지와 알림장을 챙기거나 숙제를 지도하는 등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1-1-1, 서울, 아내, 왕차린>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떻게 챙겨줘야 하는지를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의 초등학교는 자모회 등 학부모들의 모임 역시 활성화되어 있는데 <1-1-10, 서울, 아내, 마이코>는 이런 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엄마가 소외되기 쉽고, 아이 역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남편들도 결혼이민자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양육은 부부 공동의 책임이지만 보통의 경우 아내가 일상적인 아이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아내가 학교에서 쓰

이는 언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아이의 학업 성취에 지장을 주는 등 각종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에서이다.

초등학교 반을 만들어 학교에서 나온 소식지, 알림장, 안내장 가정통신문들을 예를 들어 ‘관찰’ 이런 말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함께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초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를 위하여 기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2-2-9, 전남, 남편, 오태호).

이런 점에서 취학기 아동을 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특히 엄마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는 걱정과, 한국의 교육 현실에 어두운 엄마 아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학업성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자신들 역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보내야 했기에 다문화가족의 어머니들은 스스로의 문제가 자식에게 되물림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이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취학기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어 실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과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육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녀 국어를 보아 주려면 먼저 국어의 의미를 알고 엄마가 한국어에 익숙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자식들 학교를 보내놓고 한국어 배워야겠다 많이 느껴요. 우리 큰 아들이 1학년이니까... 우리 큰 아이 키울 때는 한국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앉혀놓고 교육방송을 보게 했어요. 나는 도움을 못 주니까 그냥 텔레비전만 보게 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교육방송이니까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구나 (2-1-9, 전남, 아내, 리아).

2) 아동 학습지원: 규칙 및 예절 교육, 책 읽어주는 서비스, 불편한 통학, 방학 중의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폐교에 대한 염려

아동 학습지원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잘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어를 방문지도 선생님이 대신 가르쳐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가정형편상 시키지 못하는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방문지도사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엄마들은 보면 학습지라든지 다른 선생님도 불러가지고 공부도 벌써부터 시키는데 본인은 애들한테 그렇게 못해주니까 그 거라도 있었으면 (2-1-5, 전남, 아내, 위선).

저는 말 많이 안 해요. 말을 잘못해서 선생님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집에 와서 가르쳐 주고 (2-1-13, 전남, 아내, 팜티엔).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도 컸다. 이 역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엄마를 대신해 학습을 지도하고 부족한 한국어능력을 보충해주며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잘 모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엄마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1-8, 서울, 아내, 미사토).

방과후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다. 영어와 수학.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을 좀 알아야지 중학교에 가서 잘 배울 것 같다. 시골이다 보니 따로 학원 보낼 여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된다 (2-2-11, 전남, 남편, 김진호).

한국사회는 아직 결혼이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학교적응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다. 이제 막 취학하기 시작한 다문화가족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학업성취도가 뒤쳐졌을 경우 이를 중등학교 단계에서 만회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

렵고 보다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초기 학업성취도의 저하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집단적인 저학력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미래의 한국사회가 떠맡아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한편 학업의 성취를 신장시키는 방식의 교육 외에도 아이의 사회성 증진과 예절에 관한 기본 교육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학교에서도 웃어른은 어떻게 하나 예절교육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2-1-5, 전남, 아내, 위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통학거리가 멀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았다.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해 취학아동의 수가 계속 줄고 있는 현실에서 폐교에 대한 염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km 떨어진 정류장까지 내가 트럭으로 실어다 줘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군내버스 타고 학교에 가죠. 차가 다니는 길에다가 내 놓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죠. 차비도 꼬박꼬박 줘야 하고.... 학교에 가서 노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등하교 시간이 불편하니까 그런 점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중략)...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그나마 더 멀리 가야되는데 하고 걱정이다. 현재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버스 1시간을 타고 읍내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2-2-1, 전남, 남편, 김규범).

3) 각국의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홍보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다문화가족이 가진 자원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장점은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국가에 대한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운영된다면 단지 ‘수혜 받는’ 입장으로써의 다문화 가족의 이미지를 벗어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시선이 새롭게 구성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현하고 있는 새로운 능력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경험은 결혼이민자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인식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하는데 기회잖아요. 다른 문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택할 수 없는 길인데, 여러 일본, 베트남, 러시아 애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잖아요. 자꾸 모임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라.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좋을 거 같아요 (1-2-1, 서울, 남편, 송철민).

지금 대한민국에 영어 열풍이 불듯이 언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자기 들끼리 모여서 같은 또래끼리 할 수 있는 중국어가 한편으론 열풍인데 중국어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대화함 언어가 자동적으로 안 잊어먹고.... 주위의 단체가 있으면 동시에 2개의 언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애들끼리 국적별로 또래집단을 묶으면 좋겠다 (1-2-2, 서울, 남편, 최동철).

앞서 서술했듯이 결혼이민여성은 자녀의 취학 전 국적변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국적변경과 함께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여 자신이 외국인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엄마가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에서 혹시 받게 될지도 모를 차별과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이다.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소수의 피해의식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오히려 이는 한국 사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지표이며, 심지어 그러한 편견이 적극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장할 정도로 깊어졌다는 의미로 여겨져야 한다.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몫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알리기 위한 긍정적 의미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부 및 다문화가정 아이라고 편견 두지 않게 폭넓은 홍보로 이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불이익 당하지 않게 귀화와 엄마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1-1-9, 서울, 아내, 자미라).

다문화가정이라고 아이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다문화 아이들도 한 가족이라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2-9, 서울, 남편, 손철혁).

학교에 보내더라도 우리엄마 외국 사람이라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따돌림 당할 까봐서... 다문화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서 다 똑같이 평범한 아이들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해요 (2-2-10, 전남, 남편, 유창현).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자녀취학기에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실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에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와 멘토링 제도 등의 강화가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요구는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아이의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자녀에 대한 방문 학습 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강한 나라이며 교육을 시키는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높은 교육열을 가지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아 자녀의 취학에 따른 교육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많은 국제결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

황에서 사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보충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기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경우 교육과정이 심화될수록 그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좋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자칫 집단적인 저학력 집단을 구성할지도 모를 문제를 예비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교육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실제 면접에서도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해 아이의 학습을 도와주지 못하거나,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여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일 등을 겪었다는 응답들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아이의 학습을 제대로 지도하리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연령에 맞게 학부모가 알아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교육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동취학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여기에는 엄마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자녀들의 언어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한국의 교육 현실에 어두운 엄마의 영향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뒤쳐질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 절에 서술된 응답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는 공통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의 습득은 그 시기별로 목적과 의미를 달리 할 뿐, 이주의 전 시기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각 시기별 목적에 걸맞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덧붙여 학업에 관련된 것 이외에도 결혼이민자들이 지도하기 어려운 한국의 예의범절이나, 아이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다문화가정은 이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과 타 국가에 대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그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의 불완전한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못한 다양한 자원을 가진 새로운 구성원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어색함과 편견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언어를 구사하고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결혼이민자 가족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역사회 공동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

1) 정보화 교육: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 강사의 전문성, 프로그램 체계화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 교육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가 필요하다. 또한 강의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준별로 단계를 나누는 것 역시 필요하다.

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주민, 그분들이 받는데 힘든 게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깐. 그럴 경우 저희 같은 보조강사가 중국이면 중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먼저 온 분들이 보조강사로 통역을 해주면서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해요. 나라별로 보조강사를 세우고, 시간, 레벨도 나누고 그럼 더 좋겠다 생각해요. OO대는 있다고 하던데 다른 복지관은... (중략) OO대 통역사 프로그램도 실전에 많이 도움 됐는데 그래도 통역할 때 예절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기본적인 거 배웠으면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화강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현재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봉사자의 의욕과는 별개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수강생인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문화 교육 받을 때 물어보면 실제로 해결이 안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시행을 하면서 자기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정보화 교육에서 한글교육은 괜찮아요. ...(중략)... 통역사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는데, 중국어 강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의 기법보다도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노트북이라든가, 사용법. 노트북 저장해서 어떻게 내가 강의 파일을 만들고 이런 걸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취직하려면 먼저 강의 파일부터 가져와봐라 하는데 가서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안 짜고 이런 건 안 해봤거든요.... 정보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OO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친절하게는 하는데 체계가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1-1-1, 서울, 아내, 왕차린).

2) 취업,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컸다.

취업을 어디서 알아보고 해야 되는 지도 잘 몰랐어요. 선별 있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OO에서도 무슨 교육 있다 해서 신청은 했어요. 이게 과연 믿을만한 건지. 내가 배워서 쓸모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기관에서 자기 목표를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모르겠고 지금도 그래요.... 정보가 부족해요. 사회복지과는 무료로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복지관에서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1366 그건 홍보를 많이 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 통역사도 모집, 전화상담사 모집했는데 그 소식도 몰랐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일도 하고 싶고 일본어 가르치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소개해 줬으면 (1-1-3, 서울, 아내, 유미코).

직업교육과 취업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식당일 등의 막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은 너무 비싸거나 자주 개설되지 않아 결혼이민여성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직업을 미용사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직업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1-4, 서울, 아내, 나세디키나).

직업교육 시켜주세요. 간병인교육, 도우미 같은 것 (2-1-9, 전남, 아내, 리아).

이런 점에서 남편이 아내의 취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외국인인데다가 특별한 기술도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사용하는 고된 노동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아내가 취업을 하면 식당일 밖에 더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기에는... 더군다나 어떤 자격증 따기도 힘들고... (2-2-10, 전남, 남편, 유창현).

3) 보육지원 및 방과후 학습 지원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을 받고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육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을 받는 동안이나, 취업에 성공하여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1-1-1, 서울, 아내, 왕차린>은 젊어서 통역사로 일한 경험도 있고, 경험을 살려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방치상태에 이른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깊다. <2-2-5, 전남, 남편, 원성필>은 역시 아내가 취업을 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많은 한국여성들이 그러하듯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자녀 양육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취업, 애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2-2-5, 전남, 남편, 원성필).

자녀보육, 일해야 되니까 애들 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시청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도 소득이 낮아야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애들끼리 방치상태예요. 집에서 학원으로

뱅뱅 돌리자니 애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방과후 교회도 있는데 접수하고 일 년 기다리래요. 10만원씩 받고 하는데도, 학교에서 방과후는 거의 다 한 시간 썩이잖아요. 특기적성,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리하다보면 오는 길에 아이들이 몇 명 없으니깐 더 걱정돼요. 차라리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애들이 오는 흐름 따라서 오니까 그래서 저도 안 시키고 있어요 (1-1-1, 서울, 아내, 왕차린).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의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구사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자원봉사자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강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다양한 시스템을 익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접근성 있는 공간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는 단기적인 허드렛일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특별한 숙련기술이 없는 여성들은 취업에 앞서 직업교육을 받기를 원하게 된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은 자주 개설되지 않거나 교육비가 비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남편들은 아내의 취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결혼이민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많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이 양육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이 그러하듯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아이 양육의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숙련 인력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직장에 나가
기 위해서는, 또 궁극적으로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노동하기 위
해서는 일하는 동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기본적으
로 전제되어야 한다.

V

다인종 · 다민족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미국과 캐나다 사례

1.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사회 177
2.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국제적 비교 분석 179

1. 결혼이주자와 다문화 사회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이주노동자나 다른 외국인 이주민과 달리 한국에 정주하여 가족을 구성하고 영주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주뿐만 아니라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다른 이주민과는 전혀 다른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갖게 했다. 한경구·한건수(2006)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이주자의 등장은 한국정부나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한국사회에 실질적 이민자들이 늘어나게 된 국제결혼의 급증은 기존의 이주민 정책을 본질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다인종·다문화와 이로 인해 형성된 '다문화현상'은 서구의 고전적 이민과 그에 따른 다민족사회의 형성과는 차이가 있다(엄한진, 2006). 그러나 한국사회가 다민족화 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이행, 즉 다문화사회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 정치적 아젠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21세기 신자유주의 국제경쟁시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의 다인종·다민족화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심이다(김혜순, 2006). 서구의 다인종, 다민족국가도 1970년 이후 변화하는 국제 이주 및 이민 환경에 맞추어 이민정책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국면인데, 역사·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다른 한국도 이들과 동일한 환경, 즉 다인종·다민족 사회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 장은 북아메리카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발달 과정과 경험이 한국 결혼 이주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 주소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전망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실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전통적 이민국가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이민정착 정책과 사회서비스가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현 한국 실정과는 달리

북아메리카의 이민역사에서는 결혼 이주자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특별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욕구는 이민자를 위한 전반적 사회서비스 안에서 전달되고 있다. 그 대신,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논쟁이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다문화를 포용한 통합주의 이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도화하는 방법론에 집중 되어 있다. 특히 1970년 이후 대다수의 이민자, 결혼 이주자, 임시 노동자, 난민들이 문화·인종·언어가 다른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이주하자 기존 이민서비스 전달체계가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다.

북미의 사례가 본 연구의 주제에 시사해 주는 안목과 관련성은 한국의 결혼 이주자들이 최근 북아메리카의 이주자들처럼 다민족·다인종·다문화를 대표하는 소수자라는 점이다. 이민자가 새로운 국가로 이주해 왔을 때 언어, 고용, 주거, 육아, 교육, 보건, 상담, 법적 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벽과 맞닥뜨리게 되며, 이런 장벽에 대해 다수의 연구들은 기존 사회서비스의 문화적 접근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Bergin 1988; Dolyle & Visano 1987; Leung 2000; Ma 1996; Nguyen 1991; Reitz 1995).

이 장에서 3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북아메리카의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난 30여 년 동안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유럽과 호주에서 실행된 타민족·타인종 이민자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토대로 이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기존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의 장벽과 한계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동화주의적 사회서비스에 도전하면서, 소수민족 이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자조그룹(mutual aid association)과 소수민족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Ethnic Organizations)의 출현과 확장의 배경을 설명한다. 둘째, 미국의 이민자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면서, 날로 가속화하는 다민족·다인종 이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동화주의 정책에서 다문화 통합주의로의 이민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의 유형들을 비교하고 특성을 검토한다. 끝으로,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북미의 경험이 한국의 결혼이주자를 위한 정책 기조와 전달체계 접근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2.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국제적 비교 분석

1995년 Reitz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발간된 400여개의 논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타민족·타인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인프라를 국제적 안목에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Reitz는 이민자들은 그 누구보다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건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400편의 논문 중 다수의 연구가 문화적·언어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언어 장벽,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의 문화적 상이성
-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인지도와 감수성의 부족
- 재정상의 장벽

한편 이와 같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문화적·언어적 문제를 사회서비스의 주요 장벽으로 지적했던 반면 또 다른 연구자들은 이를 인종차별주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Henry외(2005)는 사회서비스 내의 인종차별주의의 징후로,

-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차별 배타하며,
- 주류문화와 백인우월 중심의 가치에 의거한 상담 활동,
- 이민자 활동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폄하,
- 소수민족주도의 지원시설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
-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민자 대표성의 결여,
- 사회서비스의 단일문화적 제공방식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회서비스의 인종차별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인종차별주의와 보편주의에서 찾았다. 북아메리카의 경우 비록 사회정의, 평등, 공평성과 같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물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도 여전히 소수민족에 대해 부정적인 혹은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류 사회서비스 전달체제는 소수민족 대상자들을 기존의 표준적(standardized)인 서비스 방식과 개입을 전제로 하는 자유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를 표방함으로써 소수자인 이민자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과 문화적 특성을 간과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Banting & Kymlicka 2006; Bommes and Geddes 2000; Carens 2000).

Reitz 가 검토한 400여개의 논문들은 기존의 일반 사회서비스 체계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기존의 일반 사회서비스 기관들이다문화적 조직 모델을 소개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요구가 구조적, 정책적, 프로그램 및 조직 운영에 통합되어 제고되기 보다는 임시변통 식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Henry의 2005: 224), 실질적이라기보다는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그네들의 언어,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임파워먼트를 돕는 자조모임이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자조단체는 소수민족 주도의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여 이민지원기관들로 성장하면서 이민자 집단에게 언어와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가. 소수민족주도(Ethnic Organizations)의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의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기관 역할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1983년에 발표된 Moodley의 논문은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과 지위 향상을 지원하는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의 역할은 복지국가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중요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Moodley는 이들 기관들이 수행하는 기능 대부분이 일반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이고, 소수의 빈곤층, 노년층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이민자들이 소수민족 주도의 기관(ethnic-specific agency)에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

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Moodley의 흥미로운 예측은 시기상조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논문도 다수 있다. 이 논문들은 기존 사회서비스기관의 단일문화적 패러다임이 다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는 한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들의 역할은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언어지원, 접근 용이한 이민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search Center 2002; Chow 1999).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이 주체가 되어 제공되는 한인 생활 상담소 등이 좋은 예시다.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기를 드는 대표적인 연구가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미국, 영국 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Jenkins(1988)의 연구이다. Jenkins는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 기관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원기관에서부터 조직력이 약하여 자조모임의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단체까지 다양하다고 보고 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에도 힘쓰는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새로운 이민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혹은 “브로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Cheetham은 1988년 발표한 논문에서 “소수 민족 이민자들에게는 이들의 서비스가 최상 혹은 최상에 가까운 서비스 모델”(p. 147)이라고 논평했고 Jenkins(1988: 275)는 사회복지 전달 방식의 “숨은 비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의 5개국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별 차이도 발견하였다. 호주, 이스라엘,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노동력 확보와 인구증가를 목적으로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이 추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주도의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이민사회서비스를 맡아 하도록 하는 연방 법이 1975년에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난민들이 1975년 미국에 도착한 당시, 난민 정착 지원정책 입안자들은 이들의 미국생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이 담당하도록 재정지원을 해 줌으로써 다문화를 이민정착정책에 기조로 삼았고(Finnan & Cooperstein 1983; Lewin and Associations 1986; Gold 1992),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수도

10년이 지난 1980년대 후반 1,200개로 버섯처럼 증가했다(Hein 1995). 이렇게 성장한 비영리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그 지역 사회의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들 네트워크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경우는 사회서비스제공 영역과 소수민족 단체 간의 연계가 그다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는 이민자가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사회서비스 내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이 두 나라의 오랜 전통에 기인한다(Cheetham 1988:108). 소수민족 단체들로 대변되는 다양성의 강조는 단일 민족국가의 잠정 합의된 국가 이데올로기를 위협한다는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동화주의와 보편적 서비스를 초기에 추진했던 캐나다와 호주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식의 접근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점차적으로 소수민족 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의 역할과 도전

한편 Casey는 소수민족주중심의 인프라 지원이 결국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주변화(ghetto)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존재의 당위성은 실업, 저임금·3D직종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민자들의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 양질의 서비스를 비영어권 이민자에게 제공하느냐를 기초로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 단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원부족, 인력부족,” 그리고 “열악한 환경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Casey 1988:262). 특히 재정 확보의 단기성은 “불안정”과 “비용통성”을 낳아 서비스 개선을 크게 저해하고 있었다.

이민자 서비스 기관들은 사회서비스 제공뿐 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 근절을 위한 정치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일 수 있다. Beyene외(1996)와 같은 캐나다 연구자들은 이민자들이 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접근을 거부당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정착과 적응과정에서 직면하는 인종차별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점차적으로 많은 수의 이민자와 난민들이 이민자서비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 기

관들은 반인종차별적인 문화와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종차별 주의를 영속시키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지역사회 교육과 발전에 관여하고 있었다. Beyene외는 이를 “정착지원 서비스와 정치활동의 결합이며, 결국에는 인종차별 없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Beyene외 1996: 173).

Beyene외와는 다르게 Ng(1996)은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의 역할 특히, 정치 활동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국가가 이들 기관을 재정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Ng의 책 “지역사회서비스의 정치(The Politics of Community Services)”는 비영어권 여성들에게 구인구직 서비스 및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발적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이민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민족 주도의 지원기관들은 정부와의 공동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기능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재정지원 요건 및 평가 절차를 통해 국가가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로 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들 기관들이 보였던 초반의 열의는 퇴색되게 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의 지역사회 중심 여성 단체와 캐나다의 여성 운동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에서 Agnew(1996)는 캐나다 정부가 영어, 프랑스어 이외에 언어에 대해 문화 인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정책이 큰 실효를 얻고 있으며, 정책 실행 및 권리선언(Charter of Rights)에 명시된 차별 금지 활동과 더불어 국가 기관들이 사회서비스와 정치활동의 자금 지원을 위해 국가 재원을 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의 재정 지원은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할 이들 기관들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실용적이고 무비판적인 접근”을 낳게 되었다. 이민자 여성 단체에 대한 이 두 연구는 비록 이들 기관들의 목표가 이민자 여성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하에서는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같은 캐나다 연구자인 Holder(1998)는 이민자 지원 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복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또 다른 접근을 제시하였다. Holder는 정부와 자원 활동 단체의 대립 관계가 오늘날의 추세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포르투갈/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여성 센터 (Portuguese and Spanish Speaking Women's Centre)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Holder는 이민자 서비스 기관은 활동가인 동시에 정책 수혜자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들 기관과 국가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민자 서비스 기관들은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없는 이민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조직으로 인식된다. 이들 기관 활동의 핵심은 언어와 문화의 결합이며 주류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주의로부터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집단 임파워먼트를 촉진한다. 이들 기관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객들이 보다 넓은 사회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정보, 참여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고객을 대표해서 관료사회와의 소통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서, 소수민족 지역사회의 영향력, 재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일된 표준을 없애고, 결국 협소한 인종 혹은 문화적 방식의 정체성 정의를 통해 사회의 결집이 아닌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다민족·다인종 중심으로 결성된 다양한 단체들과 조직, 자조 모임, 종교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이민자들의 민주적 시민사회로의 참여를 촉진하고, 포용성 있고 융통성 있는 열린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접근: 미국의 이주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들

오늘날 북아메리카 복지 국가들의 사회 복지 목표치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조직들이 제공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완수되고 있다. 이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이민자 지원 단체는 최근 이민자 서비스 제공 영역의 새로운 주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이민자 지원 인프라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모범사례의 몇 가지 예를 소개하고, 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문화 인지적 포괄적 서비스

에 대한 과제와 함축적 의미에 대해 논할 것이다.

앞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30년 동안, 소수민족 이민자를 지원하는 인프라라는 이민자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고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전국단위의 이민자 인프라에 대한 조사를 통해 Applied Research Center(2002)는 이민자와 난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형태를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 자조지원단체와 소수민족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는 일반지역사회조직
- 이민자 가족의 성공적 정착의 장애요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
- 이민자 지역사회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노동자 권리, 경제 발전, 정치활동 등의 접근을 특정 이민자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접목시키려는 크로스 오버(Cross-over)조직

1) 자조지원조합(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MAAs)과 소수민족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

이민자가 이국땅에 도착하여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보장받는 일이다. 직장을 구하고 주택을 확보하고, 유아와 아동의 취학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자조지원조합(Mutual Assistance Associations) 혹은 소수민족 중심의 자생적 상부상조 모임들이다. 자생적 상부상조 조합은 일반적으로 특정 이민자 그룹의 문화, 전통 관습에 기초해 형성된 단일 민족 중심의 단체들로서 좁게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종교적 조직, 가족 혹은 씨족, 모국과의 관계, 동일한 정치적 지향성, 문화보전을 위한 노력 등이 기본 취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들 단체는 주로 새로운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통역자, 지지자,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중 언어를 하는 소규모의 자원 봉사자

들로 특정 지워진다.

자조지원조합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관에게 새로운 이민자 지원 서비스를 목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난민법(The Refugee Act of 1980)은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가 난민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증한 자조지원조합에게 설립 자금과 단체의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재정지원은 비공식적인 자조지원 단체들이 비영리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식적인 이민자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촉매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85년과 1991년 사이에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기관 수는 30%나 증가하게 되었다.

소수민족중심의 서비스 조직들은 약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언어지원 역량과 서비스 내용 측면에 있어서 자조지원조합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아시아 보건서비스(Asian Health Services, AHS)와 밴쿠버, 중국 다층서비스 센터(Chinese Multiservice Center in Vancouver)와 같이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화적 언어적 연관성을 가진 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HS와 같은 조직들은 서비스와 대상자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인원을 추가하고 정부 추가 자금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오레곤 인도차이나인 센터(Indochinese Center of Oregon)는 명칭을 오레곤 국제 난민센터(International Refugee Center of Oregon)로 개칭하고 아프리카 및 구소련에서 온 이민자들에게까지 구인구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아프리카 지원 연맹(The Alliance for African Assistance in San Diego)도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여 구소련에서 온 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MAAs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의 명칭, 서비스 영역, 서비스 종류 등의 변화를 통해 전환을 꾀하고 있다.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들은 자조지원조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조지원조합들이 초반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면, 소수민족주도의 비영리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정착”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

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조지원조합들은 소규모의 단일민족 조직으로 유급 무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규모가 자조지원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특성화된 서비스와 국적이 다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표 V-1〉 자조지원조합과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지역중심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개입에 요구되는 역량의 부족	보건 의료 서비스
이민자들의 생존지원	정부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한 조직활동의 한계	주택서비스
이민자가 조직구성원	기존의 정치활동 지역사회와의 낮은 연계	이민 절차
모국의 사회, 가족 문화적 가치를 기반	부족한 자원확보를 위한 조직간 경쟁과 이민자 인프라의 약화	경제 발전
다언어/다문화	-	번역과 영어 서비스

2) 일반지역사회조직

일반지역사회조직은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리더십 고취에 적극적인 지역에 기반 한 단체를 말한다. 이들 조직은 민간 및 정부 기관에 자신의 요구를 피력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사회 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하려는” 조직의 활동으로 특정 지워진다. 이민자와 난민들은 이미 이 지역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도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일반지역사회조직들이 이민자 집단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부응할 수 있고, 이민자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다 나은 오�클랜드를 위한 연합(People United for a Better Oakland)과 같은 조직들은 회의를 스페인어, 영어, 베트남어 3개의 언어로 진행하고 있는

며, 이는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단체 대표는 “이것이 단지 중요한 행동계획의 의사 결정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진정한 토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물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말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필요와 이해를 포괄하는 영역의 확장은 조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재조정 및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북서지역 시민 위원단(Northwest Neighborhood Foundation)은 최근 지역 거주자 중 불법이민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허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렸다. 한편 아이다호 시민 행동 네트워크(The Idaho Citizen's Action Network)는 지금까지 미국 태생의 백인중심 조직이었으나, 최근 라틴계 이민자를 위해 농장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법안 통과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는 많은 유사한 사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표 V-2〉 일반지역사회조직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지역중심	국가정책 파급역량 부족	교육 개혁
일반 거주자와 이민자간의 통합 지원에 적격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자원의 부족	경제 발전
다언어/다문화적 부분이 반영된 내부절차	기존의 조직 행태가 이민자들의 문화적 경험과 정치적 취약성을 고려해 수정해야 할 경우도 발생함	이민 절차
새로운 이민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지역중심의 리더십 구조	-	주택

3) 이민자권리옹호단체

이민자권리옹호단체도 자조지원조합과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

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민자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이민자가 직면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초기의 서비스 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 운동을 도모하고 조직하는 것 또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최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종종 이런 정치적 활동이 생존을 위한 일상의 문제보다 이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와 난민을 위한 일리노이 연합(Illinois Coalition for Immigrant and Refugees)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제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시민권 신청 절차의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단위의 자금 모음 운동을 추진했으며, 공공 혜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위해 일리노이 주 정부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오레곤 주에 있는 CAUSA는 법안을 영어로만 표기하는 방식을 금지시키고, 오레곤 주의 2개 국어 교육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저지시켰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풀뿌리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와 정책적 활동을 병행하는 단체이다. 구성원 중 대부분은 변호사나 조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일하는 주요 활동 분야는 정책 분석,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에 대한 정책 활동이다. 이는 이민자 단체를 비롯한 노동, 종교, 정치 분야의 단체를 파트너로 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표 V-3〉 이민자인권옹호단체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주정부/연방정부의 정책개입	자금과 자원의 부족	이민정책개혁
정책적 활동과 풀뿌리 조직의 동원 가능	기존의 거주자들로 구성된 인종차별 금지 활동 단체와의 연계 부족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처우
종교, 노동,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주요 운동 영역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국가 정책 개입에 대한 과열 경쟁	인종/언어 차별
모국의 사회, 가족 문화적 가치를 기반	-	교육개혁

4) 크로스오버(Cross Over) 조직

본 연구에서 검토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은 비이민권 지역사회에서 있어 왔던 정책 활동, 서비스 노동자 권리 운동, 경제 발전과 같은 전통적 접근을 이민자의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특정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이민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구비해야하는 이중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에 위치한 중국진보연합(The 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CPA)은 일주일에 4일씩 방문 서비스(drop-in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CAP는 경찰 폭행, 노동자 권리, 주거문제 등을 조직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스턴에 위치한 Viet-AID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국 이민 노동자 중재(the 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 KIWA)가 발족한 코리아타운 레스토랑 노동자 연합(The Restaurant Workers Association of Koreatown)과 같은 다수의 단체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조직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RWAK의 경우는 직접 행동, 협상, 지역사회 동원 등을 통해 라틴계와 한국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권리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이 캠페인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장 성공적인 노동 운동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표 V-4〉 크로스오버(Cross Over) 조직의 일반적 특성

주요 강점	과제	주요 이슈
지역중심	특수한 성격을 가지며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움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에는 설문에 참가한 해당 단체의 수가 매우 적었음
기존 단체가 해결하지 못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해결	새로운 인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함	
후원자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함	일반 기존 세력 및 같은 분야의 “동맹자”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하게 됨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북미의 경우, 소수민족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성(姓), 친족 단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어 왔다. 사실 소수민족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전문 사회서비스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mendments)의 통과와 함께 소수민족 이민자(대부분이 아시아계와 라틴계)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이와 같은 급속한 유입은 사회 서비스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지만 기존의 비공식 지원 시스템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서비스 조직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지역사회가 지역 수준에서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기회를 얻게 되었다(Wei 1993).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이민자로 구성된 사회 복지사가 양성되었고, 이들은 이민자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공공 지원 요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단체들은 자조지원조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자조지원조합들이 초반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면, 소수민족주도의 비영리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정착” 지원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의 활동이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자조지원조합들은 소규모의 단일민족 조직으로 유급 무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수민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규모가 자조지원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특성화된 서비스와 국적이 다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이민자 집단의 다양한 요구와 일반 사회서비스간의 틈을 좁히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합을 꾀하고, 문화적 요소에 기초한 실천적 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이민자 주도의 지원 단체들을 초기에는 시민들의 지원을 받은 풀뿌리 원조 단체에서 시작하였지만, 차츰 수백만 달러의 복합 비영리 단체로 성장하

게 되었다(Sohng and Chun 2005).

다. 결혼이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립 전략에 대한 제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북아메리카에서는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논쟁이 기존의 동화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다문화화를 포용한 통합주의 이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도화하는 방법론에 집중 되어 있다. 다문화 통합주의는 손님으로서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던 결혼이주자와 이주민을 주류 사회의 타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할 사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인지하고,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담론이다.

또 한편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 왔던 주류 사회의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주장과도 연결되어 있다. 북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초기에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점차 국내 주류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들의 문제도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응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한 세계 각 국가들의 정책 방향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존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주민의 적응 내지 동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문화 정책은 민족이나 종교 또는 문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를 전제 한다(엄한진 2006).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정책기조로 본격적인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단계는 아니며 정책 내용도 다문화 정책으로 평가되기에는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다문화주의에 기울어져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앞으로 결혼이주자와 함께 어울려 사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온정주의적 시선을 넘어 대등한 이웃으로 이들을 주체화 시키는 과제가 큰 도전이다. 결혼 이주자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인이자 수동

적 존재일 뿐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주체성을 지원할 지원 전달체계를 수립하는데 북아메리카의 경험이 앞으로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 정립전략에 레퍼런스가 될 시사점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가 다문화 되어가는 역사나 과정은 북미나 서구와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가 수반하는 사회 정치적 이슈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다문화적 감수성과 문화다양성의 고양이 사회·문화·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 라는 입장이 21세기 다문화 주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 기관들은 현재 수천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이 부분에서 다루는 모델은 멀티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 모델이 어떻게 다양한 이민자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실천적 원칙의 주요 요소를 파악하고, 한국적 다문화주의 모델의 정립 전략을 정리함으로써 이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주요 활동 원칙

(1) 발전적 접근

이민자 주도의 지원 멀티서비스 센터(이하 “멀티서비스센터”)는 특정한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사회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멀티서비스센터의 발전적 접근은 서비스 범위가 협소한 사회문제 모델 방식을 뛰어넘은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오명, 불명예, “체면 차리기”와 같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다수의 이민자들은 기존의 일반 서비스 단체에 필요한 도움을 꺼리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Kitano 1970; Sue & Morishima 1982).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멀티서비스 센터 접근은 발전적 서비스를 통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이 지원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서비스 대상이 사회적으로 수치나 오명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잔재형(residual welfare)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universal) 사회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통한 예방 중심이 발전적 접근의 근간을 이룬다. 이 말은 멀티 서비스 센터의 서비스 지원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이민자 가족들이 적절한 육아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연구조사에 근거하여 센터에서는 육아 서비스를 미리 제공한다. 청소년 센터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언어, 문화 교육을 보편화한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특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활동을 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이 범죄, 폭력, 약물남용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Zhou 1992). 이 밖에도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세대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부모 훈련 프로그램과 가족 캠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적 접근

이민자에게는 적절한 언어 구사와 직업 기술, 자금자족 수단 확보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다. 언어적 장벽은 이민자의 일반 노동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최근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에서 습득한 직업 기술과 교육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일터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멀티서비스센터들은 제2 외국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 기타 직업 훈련과 같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음에 따라, 이와 관련해 센터는 거리 박람회, 라디오 토크쇼, 지역 소수민족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수민족언어로 된 신문 등을 이용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교육 워크숍, 관련자료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민자 가족들은 대략 3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영역은 크게 부부간의 문제, 부모자식관계, 아동학대 및 배우자 폭행과 같은 가정 폭력 문제이다. 이에 따라 멀티서비스센터는 가족 서비스 영역에서의 이민자 그룹을 지원하고 가족 관계 문제 해결을 돕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본 단체는 이민자들의 언어로 상담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워크숍, 도서관 자료 제공, 미디어를 통한 공공 교육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방

송사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위한 교육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하며, 일반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 부모, 학교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문화 시민사회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문화 간 만남의 기회와 다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역사회 단체들에게 교육 홍보하는 역할에 앞장서며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화의 광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후원하고 있다.

(3) 포괄적 접근

이민자들은 이민이전 단계(혹은 출발단계), 이주단계, 정착 단계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단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물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적응도 함께 수반한다. 이민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다층적 문제를 감안하여, 멀티서비스센터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타국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어느 곳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느 곳에서 전화와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어떻게 은행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등의 일상생활의 문제이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요구들이 때에 맞추어 신속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적응이 지연될 것이다.

이민자 서비스의 또 다른 특수한 측면은 가족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함께 영어 수업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어린 자녀들이 육아시설에서 함께 보호를 받으며, 10대 자녀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노인복지 센터에서 체스와 다과를 즐기고 있는 모습은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모습이다.

구직활동은 이민자의 정착과 사회 통합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멀티서비스센터는 이를 위해 전 방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이들에게 직업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언어교육, 고용서비스, 창업개발 3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규모 창업개발 및 훈련은 창업기획

및 창업자 훈련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멀티서비스센터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문화적·언어적 장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멀티서비스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 정보와 소개
- 사례관리, 지원 및 네트워크 서비스
- 상담 및 치료 서비스(적응 및 정신 건강 상담,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상담)
- 보건 서비스(지역사회보건 프로그램, 건강교육, 예방 아웃리치)
- 가족 및 청소년 상담(아동 학대/방치 방지 및 치료 서비스)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부모지원 그룹, 교육 및 워크숍)
가족폭력 인식 서비스와 지역사회 교육(돌봄 지원)
- 직업 재활 서비스
- 청소년 서비스: 방문센터(Drop-in-centers), 청소년 아웃리치
학교중심/연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여름 청소년 임파워먼트,
구직 구인 지원, 교육과 직업 서비스, 임파워먼트 훈련
- 주택 서비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 제공
-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및 구인 구직, 인턴십,
청소년 경력 개발, 여름철 취업, 노인층 파트타임 프로그램,
소규모 창업 개발 및 훈련, 창업자 훈련 개발 프로그램
- 이민과 법적 지원 서비스: 법적 지원 서비스, 번역 및 통역,
시민권 관련 수업과 평가
- 노인 서비스: 가사도우미 서비스, 노인 방문 센터,
노인 가정 서비스와 상담

(4) 임파워먼트 접근

임파워먼트는 이민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폭넓은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권, 정치적 참여가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요한 두 가지 도구들이다. 하지만 소수민족 이민자 대부분은 선거민주주의가 금지되거나 발달이 미비한 국가에서 온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정치적 참여를 통한 임파워먼트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된다. 시민권의 중요성과 시민으로써의 의무를 이해하는 과정은 이민자 임파워먼트의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에 멀티서비스 센터는 시민권 교육, 투표 등록, 투표 집계, 당선자를 위한 초당파적 자금 모음 행사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리더십 훈련과 지역 일반 혹은 비영리 시민 단체 의사 결정 위원회나 이사회 등의 회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5) 네트워킹 접근

이들 멀티서비스 센터들은 지역 사회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이웃, 병원, 경찰, 학교 위원회, 지역 센터, 미디어 조직 등을 방문하여 이민자들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일반 서비스 조직과 소수민족 관련 미디어와의 연계는 멀티미디어 센터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 센터는 고도로 전문화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성공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예를 들어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심각한 정신 질환, 약물 남용과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처리해야 할 경우, 다른 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적시에 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민자 집단을 대표하여 센터의 활동가들은 연계 단체들에게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한 치료를 요청하고 설명하는 것도 또 다른 업무 중에 하나이다. 이민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큰 일반 사회에서 인식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들 활동가들은 또한 지역사회와 일반 단체 위원회와의 연계를 위해 활동도 지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 및 멤버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센터 활동과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원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 활동가는 센터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그들만의 다양한 방식

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이들은 수행하고 있다. 멤버십을 통한 센터 운영은 조직의 중요한 미션이다. 센터들은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지도층 및 이사회 임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민자들의 필요와 흐름을 이해하고 보다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6) 문화인지적 접근

이민자 지원 서비스 각 분야의 최전방에는 이민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신청 등록에서부터 초기 면접, 전문 서비스 지원 전 과정에 걸쳐 센터 이용자에게 익숙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센터의 포스터, 예술 작품, 브로셔, 전시물, 배경 음악 등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문화적 특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이러한 “고향 같은 느낌”의 접근은 이민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초기 이민자들에게는 주위 환경의 문화적 친숙 정도가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라. 소결

종합하여 정리하면 소수민족 주도의 멀티서비스 센터는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이민자 커뮤니티에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 둔 실천적 모델로 등장하였다. 멀티서비스 센터는 이민자 지원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역할, 즉 (1)문화적 요인을 가미한 서비스를 제공, (2)이민자를 대표해 이들의 이익을 옹호, (3)이민자 지역사회의 교육과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Guo 2006). 이들의 주요 활동은 직접 서비스와 정보 소개 서비스, 이민자들을 대표한 이익 옹호 활동, 기존 일반 프로그램의 개선 활동, 사회통합 지원, 이민자 지역사회와 일반 사회와의 소통 지원, 이민자 지역사회의 교육과 개발 촉진, 새로운 이민자와 공공 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활동, 언어와 문화의 전달자 활동, 자원 및 지원 활동 네트워크 제공, 인종 및 문화적 정체성 지원을 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모델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결혼이주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한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모델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물질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멀티서비스센터 접근으로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자리해야 하고, 서비스의 제공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예방적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주민을 위한 언어구사, 직업기술 훈련 등을 제공하고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홍보교육도 실시하며, 또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여 일상생활에 부딪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멀티서비스 센터의 성장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구직활동을 돕는 것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것 역시 멀티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보다 먼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들이 보여준 결론은 주류사회가 주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민자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제도적, 불평등과 문화적 특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따라서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Banting & Kymlicka 2006; Bommes and Geddes 2000; Carens 2000; Reitz 1995).

사실 기존의 일반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다문화적 조직 모델을 소개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왔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요구가 구조적, 정책적, 프로그램 및 조직 운영에 통합되어 제고되지 않기 때문에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수민족 이민자들은 그네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전하고, 문화적 자긍심과 임파워먼트를 돕는 자조모임이나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이런 자조 단체는 소수민족 주도의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여 이민지원기관들로 성장하면서 이민자 집단에 언어와 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특수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없는 결혼이주자와 이민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조직으로 인식된다. 이들 기관 활동의 핵심은 언어와 문화의 결합이며 주류사회에 팽배한 인종차별주의로부터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통해 집단 임파워먼트를 촉진한다. 이들 기관들은 또한 자신들의 고객들이 보다 넓은 사회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정보, 참여의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고객을 대표해서 관료사회와의 소통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넘어서 소수민족 지역사회의 영향력, 재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대한 강조는 사회 서비스 제공방식의 통일된 표준을 없애고, 결국 협소한 인종 혹은 문화적 방식의 정체성 정의를 통해 사회의 결집이 아닌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온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자와 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보다 넓은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가 점차 진행되고 있는 이때 소수민족 중심의 기관들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정부 예산이나 기금모음 등에서 다른 집단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서비스 단체와 이들의 지도층은 단순히 특정 그룹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종 및 문화적 집단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꾀할 수 있는 다문화적 포용과 사회통합의 전략을 동원하고 발전 시켜 열린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Sohng & Chun 2005). 따라서 이 소수민족 주도의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다민족·다인종 중심으로 결성된 다양한 단체들과 조직, 자조 모임, 종교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이민자들의 민주적 시민사회로의 참여를 촉진하고, 포용성 있고 융통성 있는 열린 문화 사회를 이룩하는데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수민족주중심의 인프라 지원이 결국 다른 언어와 문화 이민자들의 주변화(ghetto)를 영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수민족주도 기관들 존재의 당위성은 실업, 저임금, 3D직종 등을 얼마나 효과적

으로 해결하고,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민자들의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 양질의 서비스를 이민자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당위성을 가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에게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다문화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화 간 만남과 교류, 인권, 평화 등을 주제로 한 통합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새로운 다문화 가치를 장려해야 하며, 종교 단체, 문화·예술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시민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병행 지원해야 한다.

VI

결론 및 정책과제

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207
2. 임신·출산전·후기	209
3. 아동양육기: 아동취학전·후기	211
4. 노동시장(재)진입기	214
5. 전(全)단계	215

2000년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급증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인해 현재 많은 사회서비스들이 이들과 그 가족에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이 낯설은 한국 땅에서 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생애주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우리는 생애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최근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체계에서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급여 위주의 복지제도 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 내용들이 전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대인 중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체계에서의 사회서비스의 중요성과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한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견지해야 하는 관점은 사회서비스가 단순히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에 집단적으로 대처하여 각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자율성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서비스를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는 이들을 복지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이들이 자율성을 증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임파워먼트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보편적 대응, 즉 각 생애주기에 따라 그 욕구에 맞추어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제

공할 수 있다.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화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의 단일성에 대한 주장보다는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정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어야 한다. 제5장에서 살펴 본 이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미의 국가의 예에서 보면,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근거를 두고 멀티서비스 센터에 중심으로 제공된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잔여적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면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보편적 권리의 행사이며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거나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를 받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만이 차이와 다름에 대한 편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까지도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28쌍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심층면접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목표, 개입 분야, 서비스내용과 관련하여 생애주기의 단계별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기

가. 사전 정보 제공 및 교육의 확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입국 전에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치 못한 경우 초기적응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희망자에게 현지에서 사전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예산 지원과 이 사업을 3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외의 관련 국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전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 외에도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실시함으로써 국제결혼생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입국 후 가족형성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나 부부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목적을 외국여성의 한국사회 이해에만 두기 보다는 부부의 상호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 이제는 좀 더 발전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당사자 외에도 이들 가족 대상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가족의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언어를 배우려는 배우자나 가족의 태도가 한국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수용도와 이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해 보인다.

나. 한국생활안내 도우미제도 체계화

남편과의 인터뷰에서 입국초기에 외국인 배우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매우 힘들었음을 발견하였다. 대부분 이들의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역할 수행이 남편에게는 부담이 되고 갈등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여성 입장에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남편 스스로도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서비스 기회를 놓치기 쉽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입국초기에 한국생활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보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멘토 결연 맺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가능한 한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여성결혼이민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공동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생활안내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책자 제작은 여러 부처에서도 실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입국 시 체류 및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보장제도와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에서의 정보 제공 등 부처별로 자세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발간되는 계간지 등 안내 책자는 생활안내와 정보제공이 시급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인상을 준다. 좀 더 실용적이고 많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통역서비스 제공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입국초기의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여 혼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초기의 행정 절차 모두를 전적으로 그 배우자인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적취득 신청을 할 때 그 배우자 역시 행정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이를 알기 쉽게 영상물 등을 통한 교육방법도 제안되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우는 국적신청과 배우자의 친인척 초청 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각국의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표 Ⅶ-1〉 입국초기-가족형성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1단계	입국초기-가족형성기	사전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한국어 교육	- 자국 언어로 한국어 교육 -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통역서비스 제공	- 이주초기 한국어습득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한국문화 및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 이해	- 결혼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부부대상 교육 확대 - 남편 및 가족 대상 교육의 다양화
			상담 및 부부교육	- 국제결혼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한국생활 안내 도우미 제도 강화	멘토링제도 활성화 소식지 등 안내책자의 실용화	- 이미 결혼이주를 경험한 여성과의 연결로 일상생활상의 문제 해결 - 현 안내책자 제작의 보완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통역서비스 제공	국적취득 및 초청	- 영상홍보물 교육 - 국적취득 시 상담의 내실화 - 배우자 가족 초청 시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

2. 임신 · 출산전 · 후기

가. 임신 및 출산지원 강화

임신 · 출산을 전후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정보부족과 언어문제이다. 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료관련 통역서비스도 강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후조리에 있어서도 산후도우미제도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농촌에서는 이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 · 출산기야 말로 고향의 가족과 음식 등이 가장 그리운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친정가족 초청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수적인 한계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정가족의 방문기간 동안에 질병 등 위기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어려울 때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국내 거주하는 같은 국가 출신자들로 하여금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외국인 상점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에서 이러한 상점이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일부 국립의료원과 전국의 몇몇 의료기관이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기 전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VI-2〉 임신 및 출산전·후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2단계	임신 및 출산전·후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임신 전과 임신 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비스에 대한 출신국의 언어로 된 안내책자의 발부 - 상담 및 교육 - 외국인 상점이나 편의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자국 음식지원
			산후관리: 산후도우미지원 확대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관리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 - 농촌지역의 특성상 방문하는 산후도우미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나타남 - 이주초기 한국어습득이전까지 출신국의 언어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및 육아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연령대별 육아정보(이유식, 운동법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 - 통역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통역서비스의 강화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의 통역 서비스 제공 및 홍보 확대

3. 아동양육기: 아동취학전·후기

가. 아동양육지원 강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문아동양육 지원사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5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서비스 기간을 몇 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 후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가족의 경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자고 한다면, 담당인력의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결혼이민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지도하는 방안, 사회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지역에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보육시설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양육지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바로 옆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먼 거리에 있는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행정구역의 구분 없이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결혼이민자가족의 경우 확대가족에 대한 의무나 가족원 중 환자 등 보호부담이 많거나 경제,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상태가 많아 사회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의 개선이 요청된다.

나. 아동교육 및 다문화교육 지원 강화

자녀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자녀교육 방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편 불안감과 염려를 보여주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나 한국의 학교체계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역할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에 비교적 잘 적응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사회의 학부모 모임에는 결코 적응하기 어려움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부모에 대한 무시와 차별적인 시각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또한 교육환경의 과도한 경쟁 심리와 학부모의 낮은 의식수준은 다문화를 수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사교육을 필수로 알고 정보를 나누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의 자녀교육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다문화에는 관심이 없는 한국부모의 경우 외국인 엄마와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학부모로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학급이나 학부모 회의 등에서 일반 부모 대상의 다문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의 예의범절과 자녀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녀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독서 지원 서비스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이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고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의 제고 등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3〉 아동양육기: 취학전후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3단계	아동양육기	아동 양육 지원 강화	방문아동양육도우미제도 확대	- 지원기간 연장 및 시간 조정 -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까운 곳 이용가능토록 조정
			사례 관리 제도 도입	- 방문아동양육도우미 서비스 이후 이용가능한 서비스 안내와 자녀양육에 대한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담당인력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
			보육시설이용지원확대	-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아이의 성장에 따른 육아정보 제공 강화 - 농촌지역 농번기 보육시설 확대 운영
		아동교육 및 다문화공유지원 강화	취학기의 아동 교육지원	- 규칙 및 예절 교육 강화 - 책 읽어주는 서비스 확대 - 불편한 통학환경 개선(농촌) - 방학 중의 프로그램 활성화 -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 부모, 아동, 멘토링제도 강화
			다문화공유지원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면 홍보 - 다양한 문화자원 유지를 위한 지원: 각국별 자녀 모임 지원 등 - 일반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확대

4. 노동시장(재)진입기

가. 사회참여 통로의 확대와 의미부여

면담 대상자 중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고 한국어 실력이 되는 결혼이민자들 경우 현재 센터나 복지관의 아동양육지도사, 방과후지도사, 학습지도사, 상담 통역사, 문화강사 등 자원봉사자 형태나 준전문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교실 등 교육활동에 열심히 참여함은 물론 가족의 협조가 뒷받침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새로 이주한 결혼이민자가족을 방문하여 한글교육이나 자녀양육을 지도하게 됨으로써 사회참여의 의미도 찾고 급여수당이 가게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일자리창출로도 볼 수 있지만, 결혼이민자들 경우는 본국 출신의 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므로 보람을 갖게 되고 상대방 결혼이민자에게도 효과적이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나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역할이 쌍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사 대상의 정기적인 수퍼비전이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 담당자가 이들 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요청된다.

나.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방안

여성결혼이민자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중 언어 전문가로 교육,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현재 일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상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다문화 전문가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결혼이민자 적성에 맞는 취업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에 비해 취업가능한 일이 적어서 저임금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Ⅶ-4〉 노동시장 (재)진입기의 정책과제

단계	생애주기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3단계	노동시장 (재)진입기	사회 참여 통로 의 확대	취업교육의 질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교육 시 각국 언어별 보조강사 배치 - 자원봉사 등에 의지하고 있는 강사진의 전문성 제고 - 프로그램 수준 체계화 - 취업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지원제도 모색 - 수퍼비전의 제공
		자기계발을 위 한 지원방안	적성에 맞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취업교육 개발 - 이중 언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

5. 전(全)단계

가. 한국어교육의 다양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면접 내용을 이해할 정도로 비교적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어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였다. 잘 하면서도 ‘부족하게 느끼는’ 점이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어 학습을 통해 노력한 만큼 주변에서 인정과 격려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습득이나 마스터는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마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기 보다는 초급 단계의 교육에 몇 번 참여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초급이나 중급 교육과정 후의 고급과정의 개설이 중요해 보이며, 단계적 교육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개별학습에 대한 안내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문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사전조사에서도 보건소, 출입국관리소, 경찰서 등의 담당자들이 불친절하거나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역량에 따라 서비스 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담당자와 관련 기관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담당자 외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 좀 더 경험이 많고 성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희망하였다. 행정부서나 관련기관의 담당자 대상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 VI-5〉 전(全)단계의 정책과제

단계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내용	세부내용
전(全) 단계	한국어 교육의 다양화	한국어교육	- 교육기간 연장 - 강사진의 질 향상 - 체계화된 한글 교육 - 방문학습 기회 제공확대
	행정부서, 담당자 대상의 교육 확대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	- 행정부서의 관련 담당자의 다문화교육 확대 및 강화 -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다문화교육 강화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철희·김미옥(2000), 「여성장애인의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위한 구직화 과정 분석 연구」, 『재활복지』, Vol. 제4호(1), pp. 1-31.
- 강혜규·노대명·박세경·강병구·이상원·조원일·이병화(2007),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주요 사회서비스 수요 추계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김가을(2007), 「비취업 여성의 고용상태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오남(2007),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사회복지』, 겨울, 통권 제175호, pp. 22-39.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장혜경·김혜영·양명희·최은영(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혜순(2006), 「한국의 다문화사회 담론과 결혼이주여성: 적응과 통합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본 전제들」,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학회, pp. 13-41.
- 김혜원·안상훈·조명훈(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희선(2007),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민족연구』, 31, pp 50-85.
- 나영선·이수경(2000), 『여성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노대명 외(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연구 발전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1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현주·강민정 외(2007),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법무부(2008),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총괄 분석』, 인수위 보고자료.

- 양옥경·김연수(2007), 『다문화가족』, 서울시정정책연구원.
- 엄한진(2006),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 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pp 45-75. 한국사회학회.
- 외국인정책위원회(2007),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 윤희경(2007),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중장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김용득·여유진·강혜규·남찬섭(2006),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의 과제: 경험과 전망,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가고용전략과 비전: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빈부격차시정위원회, 7월 14일.
- 이현주·강혜규·서문희·정경희·유동철·정재훈·이승경·노언정·현명이(2003),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현주·박세경·김영순·최은영·이윤경·최현수·방효정(2006),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 및 발전전략』, 보건사회연구원.
- 정일선(200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최은영(2007), 「사회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역할분담 방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효과적 창출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5월11일.
- 최현미·이수연(2008),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현황분석과 전문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족연구』, 제2호, pp. 1-22.
- 통계청(2008), 『2007년 혼인통계 결과』, 통계청.
- 홍승아·김혜영·류연규·Soma Naoko·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정책팀 내부자료.
-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자료집.

◎ 외국문헌

- Alber, Jens. 1995.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131-149.
- Agnew, V. 1996. Counseling and settlement services: The current and future role of mainstream and settlement services. In S. Yelaja, (Ed.), *Proceedings of the settlement and integration of new immigrants to Canada: Conference February 17-19, 1988*(pp. 199-221). Waterloo, Ont: Faculty of Social Work and Center for Social Welfare Studies, Wilfrid Laurier University.
- Anttonen, A. and J. Sipila.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t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 Anttonen, Anneli and Jorma Sipila. 1996.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Is it Possible to Identit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87-100. Alber, J. 1995.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rvic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2): 131-149.
- Applied Research Center. 2002. Mapping the immigrant infrastructure. Research monograph. Oakland CA.
- Bahle, Thomas.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1): 5-20.
- Banting, Keith and Kymlicka, Will. (Eds.) 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in, B. 1988. Equality is the issue: A study of minority ethnic group access to health and social services in Ottawa-Carleton. Ottawa: Social Planning Council of Ottawa-Carleton.
- Beyene, D., C. Butcher, B. Joe and T. Richmond. 1996. Immigrant service agencies: A fundamental component of anti-racist social services. In *Perspectives on racism and the human services sector: A case for change*, edited by C. E. James, 171-82.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ommes, Michael and Geddes, Andrew. (Eds.). 2000. *Immigration and welfare: Challenging the borders of the welfare state*. Routledge.
- Brockmann, Michaela and Mike Fisher. 2001. Older Migrants and Social Care in Austri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1(4): 353-362.
- Carens, Joseph. 2000. *Culture, citizenship, and community: A contextual exploration of justice as evenhanded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Casey, J. 1988. Ethnic associations and service delivery in Australia. In *Ethnic associations and the welfare state: Services to immigrants in five countries*, edited by S. Jenkins, 239-27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heetham, J. 1988. Ethnic associations in Britain. In *Ethnic associations and the welfare state: Services to immigrants in five countries*, edited by S. Jenkins, 107-154.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ow, Julian. 1999. Multiservice centers in Chinese American Immigrant communities: Practice Principles and challenges. *Social Work*, 44(1): 70-81.
- Daly, Mary.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31(2): 251-270.
- Doyle, R. and L. A. Visano. 1987. A time for action: Access to 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members of diverse cultural and racial groups in metropolitan Toronto. Toronto: Social Planning Council of Metropolitan Toronto.
- Esping-Andersen G., D. Gallie, A. Hemerijck and J.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 Finnan, C. R. and R. A. Cooperstein. 1983. South-East Asian Refugee Resettlement at the local level: The role of ethnic community and the nature of refugee impact. Social Sciences Center, Stanford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Menlo Park, California.
- Giddens, A. 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Cambridge: Polity Press.

- Gold, S. 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Sage Publications.
- Guo, S. 2006. Bridging the gap in social services for immigrants: A community-based holistic approach. Research o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Metropolis. Work Paper Series No. 06-04.
- Hein, J. 1995. *From Vietnam, Laos, and Cambodia: A refugee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wayne Publishers.
- Henry, F., C. Tator, W. Mattis and T. Rees. 2005. *The color of democracy*. Toronto: Harcourt Brace & Company.
- Holder, B. S. 1998. The role of immigrant serving organizations in the Canadian welfare state: A case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Iglehart, A. and Becerra, R. 1996. Social work and the ethnic agency: A history of neglect.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4(1): 1-20.
- 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2003. *World Migration Report 2003*. Geneva: IOM.
- Jenkins, S.(Ed). 1988. Ethnic associations and the welfare state: Services to immigrants in five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utto, Mikko. 2002. Investing in Services in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1): 53-65.
- Kitano, H. 1970. Mental illness in four cultur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0: 121-134.
- Leung, H. H. 2000. Settlement services for the Chinese Canadians in Toronto: The challenges toward an integrated planning. Toronto: Ontario Administration of 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
- Lewin and Associates. 1986. Assessment of the MAA Incentive Grant Initiativ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Washington. DC.
- Ma, A. 1996. The Chinese perception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A survey report. Toronto: The Taskforce on Sustenance and Transformation of Agencies Serving the Chinese Canadian Community.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odley, K. 1983. Canadian multiculturalism as ideology. *Ethnic and Racial Studies*, 6(3): 320-331.
- Morissen, Ann and Diane Sainsbury. 2005. Migrants's Social Rights, Ethnicity and Welfare Regimes. *Journal of Social Policy*, 34(4): 637-660.
- Ng, R. 1996. *The politics of community services: Immigrant women, class and state*. Halifax: Fernwood Publishing.
- Nguyen, T. C. 1991. Report on the Vietnamese community in the City of York. York: York Community Services.
- Reitz, J. 1995.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aspects of ethno-racial access, utilization and delivery of social services.
<http://www.ceris.metropolis.net/Virtual%20Library/other/reitz1.html>.
- Sohng, S. and Chun, M. 2005. *Multiethnic, multiracial coalition building: Connecting histories, constructing identities and building alliances*. New York: 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 Sohng, S. and Song, K. H. 2004. Korean children and families. In Rowena Fong (Ed.), *Culturally competent practice with immigrant and refugee children and families* (pp. 81-9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ue, S. and Morishima, J. 1982.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San Francisco: Jossey-Bass.
- Uba, L. and Sue, S. 1991. Nature and scope of services for 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s. In N. Mokuau (Ed.), *Handbook of social services for Asian and pacific Islanders* (pp.3-20). New York: Greenwood Press.
- Van Berkel, Rik and Paul van der Aa. 2005. The Marketization of Activation Services: a Modern Panacea? Some lessons from the Dutch Experienc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5(4): 329-343.
- Wei, W. 1993. *The Asian American mov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Weinfeld, M. 2000. The integration of Jewish immigrants in Montreal: Models and dilemmas of ethnic match. In D. Elazar and M. Weinfeld (Ed.), Still moving: Recent Jewish migration in corporative perspective (pp.285-298). New Jersey: Transaction.

Zhou, M. 1992. *Chinatow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인터넷 자료

법무부 2007-8-27.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명 돌파’, ‘법무부 뉴스’, 법무부 홈페이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4월26일, <http://www.pcsi.go.kr>, 2006년 8월 3일 검색.

세계일보(2007), ‘다민족 사회 코리아 리포트; 2050년 외국인 400만명 ... 10명 중 한 명꼴’, 2007년 4월 26일 검색.

동아일보(2007), ‘새 이웃사촌 다문화 가정’<下>이주여성 지원정책 문제없나,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1160060>.



부 록

<부록 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 다문화사업 현황	227
<부록 2> 외국인주민 현황('08.5월 실태조사 결과)	229
<부록 3>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230

<부록 1>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국 및 소속·산하기관 다문화사업 현황

기관명	사업명	'08년 사업내용
관광산업 본부	취약계층 복지관광	• 다문화가정 국내여행경비 전액지원
한국 관광공사	다문화가족 한국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문화관광 체험기회 제공
아리랑TV	다문화이해제고 홍보활동	• 10개 다문화 프로그램 제작방영 • 13개 사업 참가 및 캠페인 전개
영화진흥 위원회	함께하는 영화세상	• 이주노동자 200명의 일상생활을 영상물로 제작 및 영상편집 교육
	이주노동자 전통혼례식	• 이주노동자 3쌍의 전통혼례 및 국가별 전통혼 례음식을 제공하는 피로연 개최, 하객 300명
한국문화 예술교육 진흥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지자체 협력사업 및 새터민 청소년 문화예술교 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 다문화교육인력양성 (3단계 각 35명, 14시간) • '08.10~'08.11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 사업	• 방과후 학교를 이용, 다문화학교 대상 미디어 교육
체육국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외국인노동자 생활체육교실	• 서울, 광주, 대전 등 6개소 개최('08.5~'08.10)
	외국인노동자 생활체육대회	• 국가별 축구대회, 국가별 부스, 번외경기 및 민 속경기 개최 ('08.10)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아시아문화포럼	• 주제별 컨퍼런스(3-4개), 특별공연, 특별전시
	아시아 청소년포럼	• 아시아청소년 포럼 및 아시아청년무대한마당 개최(아시아 청소년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문화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 담론형성과 홍보의 거점 공간(자체 블로그 및 콘텐츠 개발)
	아시아문화 이해자료제작	• 아시아문화 e-learning 시스템 개발(시청각 자료 개발 및 배포)
국립중앙 박물관	다문화 사업계획	• 엄마아빠 문화배우기(몽골, 베트남의 문화 체험) • 나도 큐레이터 • 국경일별 외국인 행사

기관명	사업명	'08년 사업내용
국립국어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
	결혼이민자 위한 한국어교육 자료 개발	• 부부 공동 한국어 학습 교재, 한국어문화 안내 가이드,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역어 동영상 교재
	방송을 통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용 교재(초급)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개발
	방문학습지 개발	• 방문교육용 교재개발(이주여성용, 미취학아동용) 및 시범사업
도서관 정보정책 기획단	다문화가정 도서관사업 지원	• '09년이후 도서관에 다문화 전용자료실 설치,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민자 사서도우미 채용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팀	• 작은 도서관 조성, 이주민 국적별 자료수집 및 언어프로그램 운영
	다문화지식정보 포털 구축	• 다문화 포털서비스 모형 개발 및 다문화 대상국 국립도서관과 연계
국립중앙극장	청소년 예술제	• 아프리카 청소년 합창단 공연 및 세계 각국의 전래동요 소개 • 다문화가정 아동 초대
국립민속박물관	이주민 대상 민속교실 운영	• 어린이박물관 다문화교육상자 '아시아의 친구들'(다문화체험공간) • 찾아가는 박물관 '아시아와 놀자' (아시아의 장난감, 동물과 상징 등) • 다문화가족초청 박물관 나들이 (월1회 총9회, 매회 50명 이내)
국립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 국립국악원 연주단(30명) 방문 공연
	주한외국인 국악문화학교	• 가야금, 단소 등 국악실기 강습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공연	• 미얀마, 몽고, 아프리카 등의 전통음악 및 부채춤, 판굿 공연 • 국립국악원 연주단 및 문화동반자 사업 참가 아시아 예술인 참여
	창작국악인형극 '발해공주' 공연	• 이주민에게 전통설화 소재 공연의 관람기회 및 할인혜택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문화 체험수업 '반가워요! 아시아'	• 서울지역 초등학교 600명을 대상으로 아시아 6개국 중 1개 나라의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8), 다문화정책팀 내부자료.

<부록 2> 외국인주민 현황('08.5월 실태조사 결과)

□ 외국인주민의 범주

- 국적 관련법상 외국인 뿐 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도 대상
 - ※ 국적취득사유 : 출생·결혼·귀화·복적·인지·입양 등
- 외국인 중에서도 90일미만의 일시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제외, 사실상의 장기거주자(불법체류) 포함

□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총수 : 891,391명(남 54%, 여 46%)
 - 인구의 1.8%, 시·군·구별 평균 거주외국인 수 3,842명
 - ※ 법무부 체류외국인('08.5) : 1,142천명
- 유형별로, 외국인 근로자 437,727명(전체 외국인주민의 49%), 국제결혼 이주자 및 자녀 202,392명(전체 외국인주민의 22.7%)
 - ※ 기타 유학생·상사주재원·외교관 등이 171,104명(19%)
- 국적별로, 중국이 57.8%(조선족 42% 포함), 동남아 22.2%, 남부아 3.7%, 미국 3.0%, 대만 2.3%, 일본 2.7%
 - ※ 동남아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 ※ 남부아 :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등
- 지역별로, 경기 31.2%, 서울 29.2%, 인천 5.5% 등 수도권 65.9%, 영남 17.7%, 호남·제주 6.4%, 강원·충청권 10.0% 거주

□ 시·군·구별 거주분포

- 외국인주민 다수거주 시·군·구(1만명이상)
 - 영등포(39,793), 구로구(28,818), 금천구(19,432), 관악구(14,461), 용산구(12,586), 광진구(12,555), 동작구(11,517), 성동구(10,255), 서대문구(10,115), 수원시(25,019), 성남시(18,344), 안산시(36,387), 시흥시(16,665), 화성시(24,119)등
- 외국인주민 소수거주 시·군·구(1백명미만)
 - 울릉군(58)

□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 조선족(중국)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 구로구(25,889), 영등포구(35,338), 금천구(16,585), 관악구(10,934), 안산시(19,947), 수원시(15,649), 성남시(12,297)
- 동남아 출신 외국인주민이 집중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 화성시(11,680), 안산시(6,613), 시흥시(5,355), 인천 남동구 (5,476), 김포시(5,701), 김해시(5,748), 천안시(5,627)

자료: 행정안전부(2008) 내부자료.

<부록 3> 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

구 분	합 계			국적 미 취득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합 계	144,385	16,702	127,683	102,713	13,711	89,002	41,672	2,991	38,681
서 울	36,532	6,754	29,778	24,048	5,406	18,642	12,484	1,348	11,136
부 산	7,287	773	6,514	5,431	717	4,714	1,856	56	1,800
대 구	4,436	382	405	3,424	333	3,091	1,012	49	963
인 천	8,291	1,217	7,074	6,068	1,087	4,981	2,223	130	2,093
광 주	2,807	181	2,626	2,094	165	1,929	713	16	697
대 전	3,032	394	2,638	2,196	345	1,851	836	49	787
울 산	2,431	149	2,282	1,797	127	1,670	634	22	612
경 기	39,395	5,316	34,079	27,770	4,281	23,489	11,625	1,035	10,690
강 원	3,636	173	3,463	2,665	144	2,521	971	29	942
충 북	4,160	221	3,939	3,015	182	2,833	1,145	39	1,106
충 남	5,874	249	5,625	4,284	197	4,087	1,590	52	1,538
전 북	4,947	135	4,812	3,565	104	3,461	1,382	31	1,351
전 남	5,919	101	5,818	4,501	83	4,418	1,418	18	1,400
경 북	6,503	202	6,301	4,894	144	4,750	1,609	58	1,551
경 남	7,934	360	7,574	6,057	314	5,743	1,877	46	1,831
제 주	1,201	95	1,106	904	82	822	297	13	284

자료: 행정안전부(2008) 내부자료.

Abstract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Sun-Ju Lee
Ai-Gyung Yang
Mi-Hye Change
Hyun-Mi Choi
Sue Sohng

International migration is not resistible. In August, 2007 the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South Korea are about one million, which consists of about 2 % of the total popul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have also increased, and stands at 97,236 in 2007. Since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have risen, the Korean social society previously identified as a nation of one people, needs to now transit to a multicultural one.

In 2006 the government adopted a policy in order to integrate migrants into the society. Among the migrants, the government has paid a special attention to marriage migrant women because they have to settle down as a member of community. Most of Marriage

migrant women have a lot of difficulties in settling down as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customs, and culture. In order to help the wom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 services. Social services for migrant women should be designed to empower them and make them manage risks that they may encounter during the course of their life. In this respect, this study recommends social services for marriage migrant women on the basis of results found through interviews of 28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17-05
2008 연구보고서-2-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2008년 12월 29일 인쇄

200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268-7 94330

<정가 13,000 원>

978-89-8491-264-9 94330 (세트)